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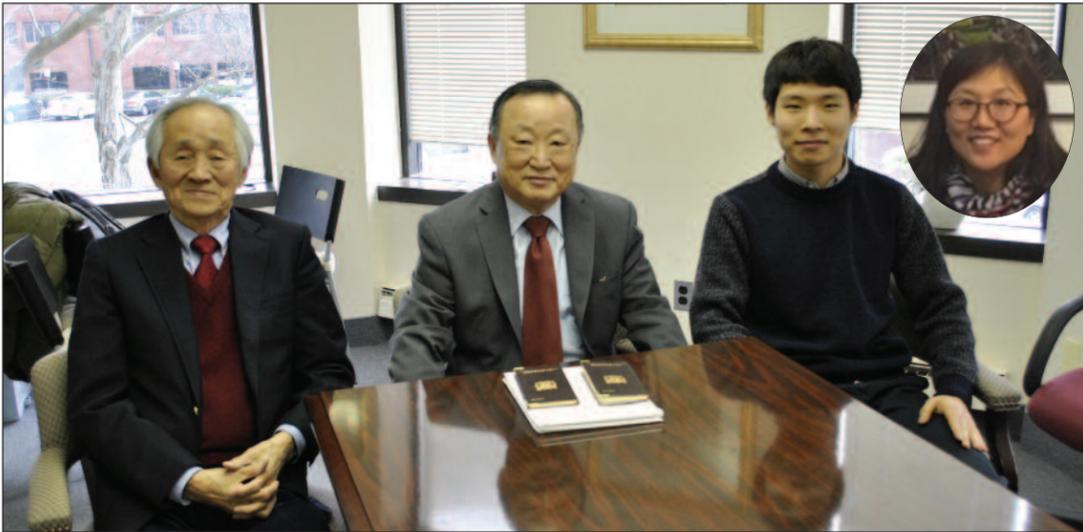


#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50호 2015년 2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 왼쪽부터 임종식(의대 51)박사,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 김신(의대 본과 1년). 원안은 지영미 박사.

##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 총 12명 응모 현재 정밀 심사 중



시 5명, 수필(수기) 7명, 칼럼 1명(중복 응모) 등 ... 동창회보 3월호에 심사 결과 발표 예정

미주 동창회가 지난 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미주 지역 동문들을 대상으로 창작 문학 우수작품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장경태(사대 75)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장이 응모 작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시 부문 5명, 수필(수기) 부문 7명, 칼럼 1명 등 총 12명(1명은 중복 응모)의 동문들이 작품을 응모해주셨습니다.

이에 미주 동창회에서는 현재 이 작품들에 대한 정밀 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심사위원은 이미 미주 문단의 저명한 작가며 저술가로 정평이 있는 백순(법대 58) 주필을 비롯해 이영목(공대 59) 전 회장, 서윤석(의대 62) 편집위원, 장경태(사대 75) 편집위원장 등입니다.

미주 동창회는 3월호 회보를 통해 이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여름 혹은 겨울 방학 때가 좋은 것 같다. 멘토링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고 매년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멘토 자원과 멘티에 관련된 문의는 아래로 하면 된다.

▶멘토 문의 = 미주 동창회 사업국(김정식 교수 301-580-9736, jk99 @ georgetown.edu).

▶멘티 문의 =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 황정남(1-213-905-9482, hwangjn @ snu.ac.kr)

현재 소속 중인 SNU Mentee 학생들과 지금까지 자원한 SNUAA-USA Mentor 동문은 아래와 같으며 더

많은 동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Mentor로 나서주기 바라고 있다.

#### <SNU Mentees>

▶김신(의대 1년) = Completed the one month(1/12 to 2/12) at USUHS at Dr. Ji's Lab.

▶정정화(의대 1년) = will visit for 1 week(4/26 ~ 5/21) passing through from Europe meeting.

▶김수지(의대 1년) = wish to visit for 1 month - not determined yet

▶고유진(간호) = wish to visit about 10 days - not determined yet

<3면에 계속>

## “Mentoring Program결실 보이고 있다”

### 첫 Mentee 김신(의대 본과 1년) 동문 연수

그 동안 임종식 박사(의대 51)의 노력으로 지난 1월 12일 김신(의대 본과 1년) 동문이 첫 mentee로 워싱턴에 왔다.

김신 동문은 2월 12일까지 1개월간 Bethesda, Maryland의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USUHS)에서 임종식 박사와 같은 직장의 지역 미 박사 실험실에서 배우고 경험을 쌓았다.(3면 Mentor-Mentee 프로그램 김신 동문 참조) 귀국을 전후해서 미주 동창회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기를 쓰기로 했으며 다음 회보에 기사로 실을 수 있겠다.

미주 동창회는 기존하는 미주 전역의 Network과 전문분야 동문

Database를 활용해 자원하는 동문 멘토 Database를 만들고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는 모교 재학생들에게 알려 자원하는 재학생 멘티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미주 동창회와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는 상호 협력해 적합한 동문멘토-재학생 멘티를 맺어 주는 것이며 동문멘토와 재학생 멘티는 시작부터 과정, 결과를 미주 동창회와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에 보고해주는 방식이다.

미주 동창회 멘토링 프로그램은 제12대 회장단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미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계 등에 재직 중인 동문들이 그 동안 미주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재학

생 후배들을 위해 진로상담, 미국대학원 진학, 미국기업 취업상담 등에 대해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Online 멘토링도 포함하고 있는데 e-mail, internet,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 정도에 따라 자연히 정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 있다.

미주 동문들의 멘토 자원신청은 미주 동창회 Homepage(www.snuaa.org)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김원영 webmaster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 재학생들의 멘티 신청은 모교에서 할 수 있다.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 것은 형편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 김동역(의대 89)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 ‘뇌경색 지도’ 세계 첫 개발

분당 서울대병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 공동연구

김동역(의대 89) 교수(동국대 일산병원)팀이 분당 서울대병원, 표준과학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뇌경색의 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허혈 뇌지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공동연구팀은 뇌경색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뇌에 만성 허혈(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류가 막히거나 피가 부족한 상태) 증세를 보이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팀은 지난 5년간 국내 뇌경

색 환자 2천 699명의 MRI 촬영 사진 6만여 장을 분석했다. 환자별 나이, 체중, 혈압 등을 비롯한 700가지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연령대별 환자의 뇌경색 정도를 100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혈 뇌지도’는 뇌경색 위험 정도를 객관적인 도표로 보여준다. 즉 뇌경색의 정도가 심할수록 등급 숫자가 높아지는 ‘허혈 뇌지도’는 연령대별 도표가 제공돼 ‘뇌 건강나이’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괴사되는 질



↑ 김동역 교수(오른쪽)가 환자에게 뇌경색 지도로 설명 중이다.

병으로 2013년 암에 이어 한국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뇌졸중의 주요 발병 원인이다.

지금까지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의사가 환자의 뇌손상 정

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뇌경색에 대한 진단을 해 왔으나 이번에 개발된 ‘허혈 뇌지도’로 객관적으로 그 위험성을 일목요연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됐다.

<2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1차 연도에는 회비17%를 달성, 이번 2차 연도 목표는 30%를 달성하려고 하오니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시: 6월 19일(금)~21일(일) ▶행사내용: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제24차 전국평의원회의(제14대 미주 동창회장 선출 포함), 친선 골프대회 (Spouse 위한 별도 관광 프로그램 계획) ▶장소: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d, Plymouth Meeting, PA 19462. 610-834-8300.http://doubletree3.hilton.com/philadelphia-west-PHLGHDT/index.html Single bed: \$ 114+tax (+1 sofa bed) Double Beds: \$ 124+tax (+1 sofa bed). Reservation 마감 6월 1일(3면 게시판 참조). \*\*\*



KUSCO에서 권신애 홍보담당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모교 국제하계학교 프로그램을 설명중이다.

## “서울대 국제 하계강좌에서 알찬 여름을 보내세요!”

1월 6일 지원서 모집 시작, 서울대 동문자녀 대상 특별 장학금 혜택... 2월 4-5일 워싱턴 DC 지역 언론사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

모교는 지난 2007년부터 해외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SNU ISI)' 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미주센터 황정남 부소장은 국제협력본부의 이 국제하계강좌 권신애 홍보담당과 함께 이에 대한 설명회를 위해 지난 2월 4일 워싱턴 DC지역을 찾았다. 홍보팀은 미국의 여러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역 설명회 3면 참조)

홍보팀은 워싱턴 DC 지역 각 언론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4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한식당 '한강' 에서 연 데 이어 5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3층 강당에서 가졌다.

모교에는 지난 8회 동안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국제 하계강좌에 참여해 서울대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아시아학과 한국학을 비롯해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과 생활하며 우정을 키우고, 우리나라와 서울대에서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잊지 못할 여름을 보낸 바 있다.

올해 9회째를 맞아 국제 하계강좌는 한국을 찾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 아시아학과 한국학에 더 큰 비중을 둔 29개 교과목과 참가생들이 국적 불문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또다시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젊고 열정 가득한 학생들과 여름을 보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최고의 국립대로서의 책임과 아시아를 이끄는 서울대의 위상에 맞춰 전 세계 한국학

교육의 장려를 위한 '한국학 장학금 (Korean Studies Scholarship)' 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장학금 제도도 새롭게 정비해 학생들 혜택의 폭을 넓혔다.

최근 몇 년간 더욱 과열된 대학들의 국제 하계대학간 경쟁 속에서, 서울대 국제 하계강좌는 '서울대' 라는 자부심으로 서울대 교수진 중심의 내실적 교육 중심의 강의와 등록생 규모보다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개별적 관심을 중요시 하는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 <서울대 국제 하계강좌 내역>

▶모집 기간 = 2015년 1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 지원서 제출, 5월 7일 등록금 납부 마감. 3월 2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등록금 납부 시 조기등록 할인으로 지원료 20만원이 면제되니 꼭 일찍 지원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필요서류 = 온라인 지원서 제출시 첨부 서류로 향후 학생증에 사용될 본인의 사진, 여권 사본, 재학 중인 대학 성적표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성적표는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장학금 수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숙사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도 이때 제출해

↓권신애 담당(가운데)이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Washington 동창회 장경태 회장, 오른쪽은 오인환 회장



야 하니 국제 하계강좌 웹사이트에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미리미리 준비할 것.

▶2015년 주목할만한 교과목 = 이번 여름 처음으로 정치외교학과 운영관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강의를 열게 될 예정이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므로 학생들에게 뜻 깊은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국제 하계강좌와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들 모두가 워낙 본인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로서, 그리고 학회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기에 매년 학생들이 높은 강의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동문 자녀에 대한 혜택 = 국제 하계강좌의 설립 초기부터, 서울대학교 동문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 동문인신 부친 또는 모친의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수업료 20%를 할인받게 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항상 모교를 잊지 않고, 서울대에서 수학하는 경험을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동문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응답하고자 설립된 장학금이다.

▶자세한 정보 = 국제하계강좌 웹사이트(<http://isi.snu.ac.kr>)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국제 하계강좌팀에게 e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주소는 [applyisi@snu.ac.kr](mailto:applyisi@snu.ac.kr), 전화번호는 +82-2-880-4449이다.\*\*\*

### 편집위원 시 감상

## 신발수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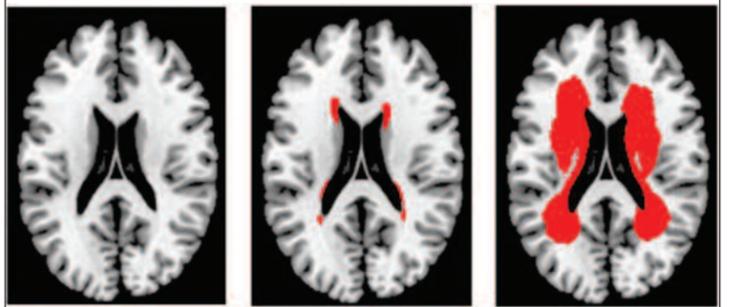
서윤석(의대 62)VA  
한국 현대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굵주림과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전선(戰線)에 쌓였다  
동이 틀 무렵 총성이 멈추었다  
밤새 밀려오던 그림자들도 사라지고  
그 위를 하얀 눈이 덮었다  
팽과리, 피리 소리도 끊기더니  
흰 옷을 입고 남은 중공군들은 북으로 돌아갔다  
쌍둥 터널, \*지평리로 푸른 열차가 들어오고  
포위망을 얻 작은 고지에서는  
새벽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네모난 상자 속에서 할아버지는 꿈을 꾸다  
꼭예사가 앞에 서고 슈 샤인 소년이 따라간다  
“구두 닦아, 신발 닦아” 소리치며 간다  
눈물이 섞인 그의 목소리 메아리치는 계곡에서  
병사들이 새 신을 신고 살아온다

해마다 이 때가 되면  
피비린내 나던 고지에 사람들이 모인다  
할아버지는 그리운 사람들의 신을 고친다  
거리에는 전동차가 정시에 섰다가 출발하고  
수 많은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물결로 흐른다  
육이오 특집방송을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앞치마에 구슬땀을 뺀다 \*\*\*

\*1951년 2월 13-16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서 팽덕회가 지휘하는 9만명의 중공군의 공세에 대항하여 리지웨이 장군이 이끄는 3천명의 유엔군(미 2사단 23연대, 프랑스 대대)이 커다란 승리를 이룬 전투임. 유엔군으로 참가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현재의 신기호 할아버지는 병사(적군 아군 모두 포함)들의 신발을 고쳐주었다.\*\*\*



### <1면 '뇌경색' 기사 계속>

연구책임자인 김동익 한국인 뇌 MR 영상 데이터 센터장은 “뇌경색은 사망률과 장애율이 매우 높은 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만성 허혈성 뇌손상은 증상이 없는 사람의 MRI에서도 흔히 관찰되며 뇌경색의 발생 위험도를 잘 반영한다”며 “한국인 허혈 뇌지도가 병의 원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했다.

연구팀은 한국인 허혈 뇌지도를 ‘한국인 뇌MR영상 데이터 센터 홈페이지(<http://brainmr.com>)에 공개하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 65-74세 뇌경색 환자의 대뇌부채살(운동·감각신경이 지나가는 대뇌 중앙 부위) MRI 사진의 등급별 비교: 1등급(왼쪽)의 경우 혈관 손상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50등급(가운데)은 중앙혈관 일부에 손상이 보이고 100등급(오른쪽)은 중앙 혈관 상당부분이 손상됐음을 알 수 있다. 사진 붉은색 부분이 손상된 뇌 혈관이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실 비치용 패널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뇌경색 지도’의 연구 성과는 미국 뇌졸중 학회 학술지 ‘스트로크 (Stroke)’ 12월호에 게재됐다.\*\*\* <중앙일보>

### 차 례

- 3. 모교 동창회 신년하례식/ Mentor-Mentee Program 김신 동문/ 게시판
- 4. <기획 독도와 일본>일본 아베총리의 국수주의와 독도/ Quantum World
- 5-6. <독도와 일본>독도분쟁 소고(少考)
- 7. <시사 위인칼럼>미 전쟁영웅 김영욱 대령/ <생활단상>작심삼일/ 두 연방의원의 세금개혁안

- 8. <모교소식>새학기부터 선한인재 장학제도/ 정년퇴임 이준구 교수 사회현안에 돌직구/ 제22회 자연과학 공개강연/ 시진핑 장서 1만권/ 신입생 OT 4년만에 교내 실시
- 9. <모교소식>농생대 재학생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이진규 교수 정년보장 뿌리치고 LG행/ 고3때 부친 간식 오용석씨 재수끝에 컴퓨터공학부 합격/ 자폐동생 돌보려 중3때 자퇴 손해원양 수시 5관왕 모교 컴퓨터공학부 합격/ 서울대병원 정창욱 교수팀 요로결석 스텐트 개발

- 10. <역사칼럼>성덕태자/ 류길재 장관의 통일비전/ 골프와 춤
- 11-13. 미주 동문 동정
- 14-18. 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 19. <이색동문> 마라톤 93회 박창차 박사
- 20-21. <관악세대 아크로 광장>올해 나를 붙잡아줄 두 단어/ 새 동지/ 남업이 떨어진 후 보이는 것들/ 국제시장의 메시지/ <건강의학>겨울철 뇌졸중 예방법/ 죽은 자와 산 자의 가르침
- 22. <독후감>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

- 동문 시 감상>옛동산에 오르니
- 23. <My Journey to>아메리칸드림 50년<19>
- 24. <문학기행-1>스미소니언 캐슬에서 시작
- 25. <교육칼럼>자녀양육에 관한 조언
- 26. <여행기>산티아고 순례길 낙수<2>
- 27-32. 회비 후원금, 동문업소록,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 모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지난 1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모교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서정화) 신년 교례회가 열렸다. 주요 인사들이 시루떡 나눔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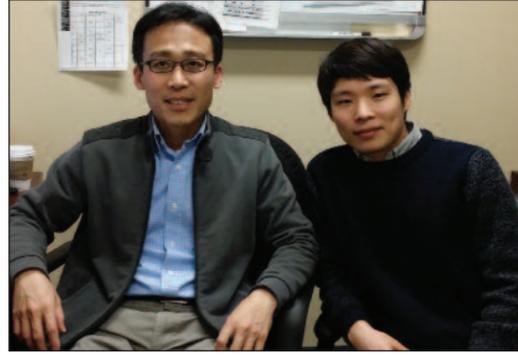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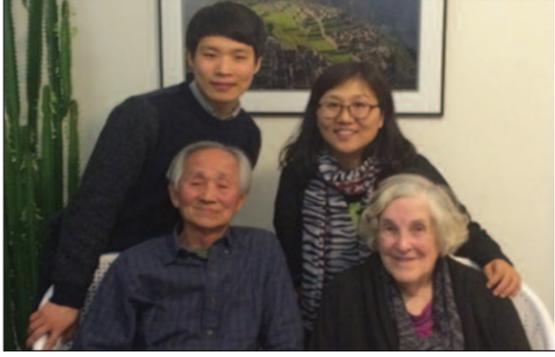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인호 KBS이사장,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이

길여 가천대 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서정화 회장, 정의화 국회의장, 임광수 명예회장, 권이혁 서울대 의학과 명예교수,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서울대 총동창회>

<1면 Mentoring Program 계속> <SNUAA-USA Mentors> ▶임종식(의대 51) = Cancer Biology, Oncology, NIH or USUHS, Post-doctoral training http://nihksa.org/xe/KSA/board\_12/1036 ▶이강원(토목 66) = Transportation engineering, construction materials and management, renewable Energy, The Univ. of Rhode

Island, Internship/short-term training, Rhode Island ▶지청룡(물리 72) = Theoretical Physics, Nuclear and Particle area,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Internship or short-term training, North Carolina ▶손재옥(가정 77) = Architecture/Engineering or Business Administration, Timothy Haahs &

Associates, Inc., 부사장 Internship or short-term training http://www.timhaahs.com/ Philadelphia, PA ▶하용출(외교 67) = Political science and social sciences, Internship or short-term training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http://jsis.washington.edu/faculty/yongha5.shtml \*\*\*



### Mentor-Mentee Program 김신(의대 본과1년) 동문

### 이상부위 골화에 대한 치료법 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계기 = 임종식 박사는 한국 과학자로서 처음 NIH에서 Visiting scientist로 임명된 후 20년 이상 Senior Investigator로 암 연구에 매진해온 분으로 연결시켜주셨다. 임 박사께서는 모교 의대 재학 중 전공취 지도교수 소개로 Dr. Sabin(Oral polio developer) 연구실에서 postdoctoral fellowship을 받았다. 그곳에서 Sabin oral vaccine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JAMA 1960 Aug 6; 173:1521-6: Live orally given poliovirus vaccine : Effects of rapid mass immunization on population under conditions of massive enteric infection with other viruses. SabinAB. Ramos-Alvarez M. Alvarez-Amezquita J.

Koch MA, Barnes JM, and Rhim JS)에 참여했다. 임 박사께서는 지도교수가 Dr.Sabin을 연결해준 인연을 기억, 후배들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따라서 필자는 임 박사의 첫 멘티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임 박사는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이후 일본뇌염 바이러스와 전립선 암에 대한 연구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필자도 임 박사처럼 인류의 질병 해방에 기여하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 임 박사께서 지영미 박사를 소개해주었다. 지 박사는 USUHS(Uni-

↑ 왼쪽 사진은 임종식 박사 부부(앞줄), 지영미 교수와 함께, 오른쪽 사진은 Georgetown 대학의 김정식 교수와 함께.

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소속으로 필자도 이곳에서 배우게 됐다. 지 박사 연구실에서는 폭발에 의해 발생한 상처의 재생과정에서 이상부위 골화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필자도 이 연구에 참여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만 현재 해당부위 절단 외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이상부위 골화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지 박사는 15년여 동안 미국립 보건원에서 연구에 매진, 이상부위 골화의 기전을 밝히고 치료방법 개발에 기여해왔다. 질병기전을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생물정보학, 분자분광학적 방법을 도입하며 다른 연구실과 활발히 협동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김신>

### 국제하계강좌 프로그램 담당 일행 미주 홍보활동

▶2월 4일(수) = 올해 9회째를 준비 중인 국제 하계강좌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대 미주센터 황정남부소장 일행(홍보담당 권신애)이 미주 동부지역 홍보 일환으로 2월 4일 Washington DC를 방문해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과 장경태 Washingto DC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과 모임을 가졌다. ▶2월 5일(목) = KUSCO강당에서 학부모를 위한 강연회 개최. ▶2월 7(토)~10일(화) = 캐나다 방문과 뉴욕 동창회(회장 광승용) 방문 ▶2월 11일(수)~14(토) = 뉴헤이븐/로드아일랜드 보스턴 뉴잉글

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방문. ▶2월 15(일)~19일(목) =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방문. ▶2월 19(목)~21일(토) = 시카고/웨스트 라파에트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용주 공대 69 방문 ▶2월 22(일)~23일(월) = 애틀랜타 조지아 동창회(회장 강창석) 방문.\*\*\*

### 게시판

###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시 = 2015년 6월 19 - 21일 ▶6월 18일(목) = Brain Network Symposium 연사와 참가자 도착 & 저녁식사 ▶6월 19일(금) = 오전 8:30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시작 + 서재필 박사 기념관 Tour + 전야제 겸 지역 동창회 장기대회 ▶6월 20일(토) = 오전 9:00 제24차 평의원회의 + 제14대 미주동창회장 선거 + 저녁만찬 ▶6월 21일(일) = 오전 11:00 전국 평의원 친선 골프대회(서정화 총동창회장 순회배) ▶장소 =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oad, Plymouth Meeting, PA 19462 (T)610-834-8300 (F)610-879-4242(F) http://doubletree3.hilton.com/en/hotels/pennsylvania/doubletree-suites-by-hilton-hotel-philadelphia-west-PHLGHD/index.html Single bed: \$114 before tax (+1 sofa bed) Double Beds:\$124 before tax (+1 sofa bed) ▶예약마감 = 6월 1일. but first come first served at the above rate ▶연락처 = 오인환 회장(전화 301-775-3919), 손재옥 차기회장(전화 267-736-2992) Janice Haahs (JHaahs @ timhaahs.com)\*\*\*

### 미주 동창회 한국학 연구지원 후원기금 모금

미주동창회가 제23차 평의원회의(2014년 6월 28일)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 미주 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에 이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소(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 라는 이름의 Think Tank를 건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구하며 미국 유수의 Think Tank들과 교류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해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Think Tank의 포럼, 브리핑,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나아가 서구 학계의 편향된 학문적 시각을 극복해 한국과 한민족의 시각에

서 보는 정체성 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쌓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서구 학계에서는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한국하면 일본의 식민지 혹은 중국의 변방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모금운동은 서울-총동창회에서도 총동창회 회보에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0million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연구프로젝트 팀 리더 = 하용출 교수(외교 67),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이채진 교수(정치 55) ▶회장 = 오인환(천문 63) ▶후원금 보낼 곳 =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

### IRS감사대비 내부감사 일정과 담당 감사위원

▶감사기간 = 2015년 6월 말 100% 마칠 때까지 요청한 세금 보고자료 보내주기 바랍니다. ▶박숙 위원(Chicago, 847-707-9693 jhcspc@naver.com,) = 달라스·룩키타운턴·시카고·중부텍사스·휴스턴 동창회 ▶김창수 위원(NY, 212-760-1768.changsookimcpa@hotmail.com) = 뉴욕·뉴잉글랜드·조지아·오하이오·필라델피아 동창회 ▶김지영 위원(남가주, 213-308-0009

jkym@yahoo.com) = 남가주·북가주·샌디에고·아리조나·하와이 동창회 ▶노상문 위원(DC, 703-749-1110 cpa\_noh@yahoo.com) = 미네소타·워싱턴 DC·플로리다·캐롤라이나·테네시 동창회 ▶배규영 위원장(Heartland, kybae8533@gmail.com, 913-709-2335) = 알래스카·오레곤·워싱턴주·유타·하틀랜드 동창회. 내부감사에 대한 문의는 배규영 위원장께 연락바람.\*\*\*

### 워싱턴 DC 동창회 설날잔치 및 이사회

<설날잔치> ▶일시 = 2월 2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소 = 우래옥(타이슨스 코너) ▶참가비 = \$20/인

<이사회> ▶일시 = 4월 4일(토) 오후 5시 ▶장소 = 우래옥(타이슨스 코너) ▶문의 = 장경태 동창회장(703-901-3770) \*\*\*

### 지역 동창회 신임 회장

▶남가주 = 박혜옥(간호 70) ▶룩키타운턴 = 송요준(의대 64) ▶미네소타 = 조해석(공대 84) ▶북가주 = 박희례(간호 73) ▶Houston = 최인섭(공대 75)

▶달라스 = 오기영(공대 73) ▶샌디에고 = 김주성(농대 83) ▶시카고 = 김용주(공대 69) ▶조지아 = 강창석(의대 73) ▶하와이 = 성낙일(해양 77) \*\*\*

### 지역 동창회장님들께 드리는 부탁사항

▶지역동창회 주소록을 표준화된 Template Spread Sheet를 써서 유지해 주시고 본부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연회비(\$100)를 납부해주시고 ▶지역동창회 분담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대 김귀현 학장께서 미주지역 음대 동문들의 연락

처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지역 동창회는 속히 본부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연락처를 보내주신 지역 동창회는 DC, S. California, N. California, NY, Philadelphia, Washington State, Oregon, Dallas Texas, Central Texas, Minnesota, Tennessee, Vancouver 등 12개 지역 동창회.\*\*\*

<기획> 독도와 일본

# 일본 아베 총리의 국수주의 (Chauvinism)와 독도



이향열(법대 57) Shepherd대 전 석좌교수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장

지난 2014년 한국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북한의 김정일이 뽑혔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없는 아베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치러진 중의원 해산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번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얻은 의석은 연립정권의 공민당 의석까지 합치면 3분의 2(317석)를 훨씬 넘는다. 이제 아베 총리는 그의 공약이며 목적이었던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정책을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헌법 9조(일본의 정규 군대 폐지)조항을 개정할 것이며 또한 일본의 침략 과거사 부정 움직임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의 60%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며 더불어 위안부 강제 동원도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반역사적, 반국제법적인 정책을 그는 택하는 것인가. 물론 그의 첫째 목적은 자민당 당수로서 대다수 보수적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극우적인 신념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극우의 전 기시 총리의 외손자로서 그의 정치 이념은 젊었을 때부터 굳어졌으며 현재 일본은 20년간의 경제 침체와 중국·한국·러시아와 영토 분쟁 때문에 맹목적인 애국심이 고조돼 있으며 극좌와 진보 성향을 비판하는 것이 일본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다. 이런 성향을 이용해 아베는 더욱 그의 정책을 우향우로 이끌어 장기집권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전 수상 고노와 무라야마 수상의 2차대전 침략 사과문과 위안부의 강제동원 연설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독도(다케시마), 중국의 다오유(센카쿠), 러시아의 쿠릴 영토 문제에 있어서 아베는 민감하며 그의 국수주의 정책 때문에 세 나라와의 관계가 더욱 쪼그러워질 것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 관점에서 볼 때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이 자명하다. 아베를 위시하여 일본의 극우파들은 다케시마가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독도가 무인도(Terra nullius)였기 때문에 1905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영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시대 512년 벌써 우산국(독도)이 신라에 조공을 바치며 합병된 것으로 기술됐으며 고려사에서는 우산(독도)과 무릉도(울릉도)를 강원도 울진군의 행정구역 밑에 두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1451년과 1531년의 동국여지승람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측 문서에서도 1872년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와는 다른 색깔로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으며 1877년에는 일본 정부의 최고 정책기관인 다이조관(Council of State)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기했다.

이런 많은 역사적 고증이 있는데도 그들은 독도라는 이름이 확실치 지도에 없고 한국에서도 독도를 우산국, 석도, 송도라는 여러 명칭을 썼는데 이 모든 이름이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조선에서는 1881년부터 독도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함).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름 혼동 문제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고집하여 1905년에 합법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것이 되었다고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에서도 무인도를 발견하고 가끔 방문한 증거가 있으면 꼭 주민이 당분간 그 섬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토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1973년 Minguires and Ecrehos라는 case에서 판결내렸다.

일본도 한동안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으며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명기하였다. 현재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고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고쳐 쓰는 등 혼동의 역사가 있다.

그들은 1905년에 무인도인 독도를 자기 영토로 영입했다고 주장하는데 벌써 1900년에 고종이 그의 제국칙명 41조에 의해 독도를 강원도로 편입한다고 칙명을 내린 것이 역사의 문서로 보존되고 있다.

일본의 1905년 독도 영입 주장은 국제법에서도 인정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강제로 편입하는 조약 같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1976년의 Vienna조약과 국제연합 헌장(Charter of UN) 2조에 명시돼 있다. 국제법 원칙에 의하면 '오래 된 중요한 역사적인 문서와 조약(Treaty)들이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사용된다'고 기술돼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럼에도 일본은 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강조하며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잘못된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일본 국민을 선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 Quantum World



정정수(의대 56) PA

Isaac Newton(1642 ~ 1726)이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만유인력)'를 발표하고 난 뒤 모든 자연현상 법칙이 설명되고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더 복잡한 우주현상이 보충 설명되고 - 130억년 전 Big Bang - Big Inflation 으로 우주가 가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Schroedinger 등 거장들의 light is particles and wave 라는 Dualism 등 Solvey Meeting에서 전혀 다른 미지 세계 Quantum World가 발전하면서

이런 잘못된 애국심은 동남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본의 침체적인 경제도 고립된 일본을 전환시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전했어도 경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국수주의가 아니라 평화가 오래 지속되고 한국전쟁으로 군수품을 한미 연합군에 공급하였고 모든 국력을 경제발전 에 집중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들이 군대를 강화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꿈을 다시 꾸었다면 일본은 세계 경제의 2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국가나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데 대개 경제 침체가 계속되거나 위기 의식을 느낄 때 선동적이며 국수주의적인 demagogic한 지도자를 추대해 추종한다. 2차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좋은 예로 그는 애국주의를 가장하여 유대인을 학살했으며 '게르만 민족이 세계 제일의 민족'이라고 외쳤고 좌충우돌식으로 영국과 전쟁도 힘에 겨울 때 소련도 동시에 침략해 무참하게 패전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패전 후 서독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과오를 깨달았으며 세계 특히 유대인의 이스라엘 국가에 진심으로 사과와 보상을 했다.

현재 독일 수상 Andrea Merkle은 이스라엘 국회를 방문해 심심한 사과를 드렸으며 이스라엘은 그녀에게 이스라엘 명예 시민권까지 부여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독일 지도자와는 반대로 한국과 중국에 사과 대신 전쟁의 과오를 인정도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2차대전 전범을 영치한 야스쿠니 사원에 가서 오히려 그들을 애국자들처럼 추모하였다.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영웅시하는 19세기의 사이고 다카모리(1827-1877)가 일본의 잘못된 애국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조선 침략을 주장했으며 조선을 정복해야 일본이 대국이 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그의 조언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을 조선에 보내달라고 했다. 조선이 자신을 죽이면 그것을 핑계로 조선을 치라고 한 것이다. 아베 총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이고 다카모리를 영웅시한다. 이런 자칭 애국자는 평화주의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이런 위험한 자칭 애국자나 광적인 종교 신봉자가 있으며 위험한 인간들이다.

오늘날 digital 혁명으로 안방에서 화상통화로 한국 친척들과 실시간 통화하는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다. quantum superposition, quantum tunnelling, photon dualism, twin photon entanglement, quantum computing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수박 겉핥기 식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애썼다. 이것이 Big Bang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로 추측 비약해서 parallel universe, multi universe로 비약해가니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2600년 전 불타님의 예언처럼 the UNKNOWNABLES로 간주하고- 장사익의 노래나 들으면서 낮잠이나 잘까 하다가도, MRI, Nano technology, biotechnology fusion energy, teleport, quantum encoding, Cryptography, 스위스 바깥 지하 터널에서 매일 더 빠른 속도로 Particle Accelerator로 충돌 - 새 이름의 particle들이 발견 - 무한 기술발전 가능성에 틈이 운동경이 보는 것보다 이런 것 공부하는 것이 즐거우니 나는 머리는 나빠도 공부를 좋아하는 늙은이가 되었다.

시간적으로 독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까우며 일본도 인정하는 한국 영토 울릉도에서 87km이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 오키(Oki)에서는 157km나 떨어져 있다. 국제법에서도 '영토 근접성(Territorial Contiguity)이 영토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영토권 분쟁 때 더 가까운 나라가 발견과 효과적인 통치 역할 가능성이 더 있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Palmas Island Case에서 판결한 바 있다. 2차대전 중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본이 침략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기돼 있으며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영토반환을 강조했다. 패전 후 1946년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 명의로 'Liancourt Rock(독도)은 울릉도와 제주도를 위시하여 한국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독도 12마일 해역에서는 일본은 어업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그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제주도·울릉도·거제도도 한국의 영토로 서술했으나 작은 섬인 독도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독도를 위시해 2천여개의 작은 섬들이 특별히 서술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구의 물이 4-5억년 전 지구 생성때 혜성들이 충돌하면서 생성되었을 것이라면서 혜성에 로켓 탐사선을 보내 충돌 채취하는 장면을 실시간 TV 카메라로-지구 주변 Astroid Belt에 귀한 물질의 무진장 가능성과 인류멸망을 가져올 충돌을 피할 연구 - 화성탐사선에서 보내오는 사진들 - 멀리서 quantum entanglement를 실험 증명하고 앞으로 도둑맞지 않을 비밀정보 교환가능성 등 재미거리로 가득찬 흥미진진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1937년생! 친구들의 20%가 유명을 달리하고 허리가 아파, 또는 어디가 고장나 골프를 접었거나 추위를 피해, 또는 자식들 가까이로, 선교봉사로 이사가는 소문도 무성다. 뉴턴 물리의 determinism보다 Quantum World의 probability, uncertainty principle이 우리 인생살이에 더 맞는 것 같다. 금방 읽은 것, 본 것도 잊어버리는 건망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망한 것을 하는 나를 가끔 질책해보지만 머리를 계속 써야 치매에 방에 좋고 내가 즐겨하니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단련 만보 걷기로 생각하고 계속 하려고 한다. \*\*\*

일본의 태도는 억지이며 법률적으로도 상식 밖의 일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2년 뒤인 1952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연안에 Rhee Line을 설정하고 그 영해 내에서 외국 배는 어업도 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전쟁 중 평화선을 설정해 영토 근처의 인근해를 설정하는 많은 예가 있으며 미국도 영토로부터 200마일 떨어진 해협을 미국의 어업해역(Fishery Zone)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이후로 네번째 독도 영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한국이 30여 명의 경찰과 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독도를 한국의 지배에서 강제적으로 빼앗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국제화시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못가겠다고 하면 '한국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그렇다'고 알려지게 하려는 의도다.

만약 일본이 지금이라도 독일이 패전후 실행한 것처럼 자신의 침략과 학살행위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웃나라인 한국과 협상한다면 일본은 민주 우방국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면에 있어서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려면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어야 동아시아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계속되는 인민해방군의 전쟁준비 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위험한 북한의 핵맹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생명줄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팽창주의를 막는 민족주의 교두보가 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국수주의자들의 퇴폐적인 언동을 삼가야 되고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하는 것만이 동북아의 민주화와 평화가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기획> 독도와 일본

# 독도분쟁 소고(少考)



이회백(의대 55) Seattle

올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겐에 편입한지 110년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지 10년이 되는 해다. 우리의 독도를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라 부르고 자기 영토라 주장하며 시마네겐(島根縣)에 편입시킨 1905년부터 100년이 되는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우리의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도전적 행동이라 비난, 자기 영토임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독도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논리는 양국 정부와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본의 타국영토 침범역사를 돌아봄으로서 그들의 영토쟁탈전이 처음이 아니며 그 영토쟁탈전이 그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나, 그리고 이 분쟁이 그들을 이롭게 할 것인지 생각해볼까 한다.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자고 하나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1982년 소유권을 싸고 영국과 알제틴이 열전을 벌였던 Falkland(Malvinas) Island도 아직 미해결 상태고 미 워싱턴주와 Canada Vancouver섬(당시 영국령) 사이에 있는 San Juan Islands의 소유권 분쟁을 미국과 영국이 독일황제 Wilhelm 1세의 중재(arbitration)로 해결한 예도 있지만 독도 소유권이 중재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독도 외에 일본은 센카쿠(釣魚島) 제도를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이며 쿠릴열도 남단의 소위 북방 4개섬의 반환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 제1차 청일전쟁(1894년)부터 1차 대전(1919년)까지

“War is a mer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Carl von Clausewitz

일본은 1894-1895년 청국과 전쟁 후 시모노세키(下關)조약에 의해 대만·펑호도·요동반도를 차지하고 배상금(2억량)을 받아냈으며 조선반도에서 청국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일본은 다시 1905년 노일전쟁 후 Portsmouth조약으로 사카린 섬의 남쪽 반을 차지하고 요동반도에서 소련세력을 몰아냈다(요동반도는 청일전쟁 후 일본이 차지했으나 삼국간섭, 즉 영국·프랑스·러시아의 압력으로 조약 18일만에 물러난 후 러시아가 장악). 사카린 섬 전체를 일본군이 점령한 판에 반쪽만 차지하게 됐고 전쟁배상금 한 푼도

못받은 것은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라고 분개한 일본인들은 히비야(日比谷)폭동을 일으켰고 이에 굴복한 가즈라(桂太郎) 내각은 실각했다.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가 잠시 수상직을 이었으나 가즈라는 다시 정계에 복귀, 가즈라-타후트 밀약으로 미국의 묵인하에 한국에 세력을 빼치기 시작,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는 1910년 한국을 합병했다.

그 해 루즈벨트는 포츠머스조약을 성공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러일전쟁 중 러시아 함대가 일본에 의해 대마도 앞바다에서 거의 전부 침몰(5월 27-28일)하기 석달 전인 2월 22일 일본은 시마네겐 고시 40호에 의해 독도를 편입시켰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조선은 다음 해 울산군수 조흥택(趙興澤)의 보고로 겨우 알게 됐다.

▶파리 강화회의와 일본 =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파리 강화회의에 이들 전승국과 여러 집단이 몰려들었다. 윌슨 대통령이 전후 질서 처리방안으로 미 국회에서 발표한 14개 항목 중 제5 항목에서 식민지 지배하의 국민에게 ‘자유선택

권(self-determination)’을 주자는 항목은 전 세계 약소민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강대국들의 반응은 달랐다. 윌슨을 ‘사교계에 처음 등장하는 아가씨(debutante)’로 비유하는가 하면 Georges Clemenceau 프랑스 수상은 “The good Lord had only ten!” 하고 비꼬았다.

우리도 임시정부 대표로 김규식 박사를 파견,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3.1 운동은 청원에 도움되게 국내운동을 벌여달라는 김규식 박사의 요청에 응한 것이었다고 한다. 파리 식당주방에서 접시 닦던 한 베트남 청년도 청원하려 했으나 북도에서 쫓겨났는데 그가 바로 베트남 독립을 위해 훗날 일본·프랑스·미국과 싸운 호치민(胡志明)이다. 이 회의의 일본대표는 사이온지긴모치(西園寺公望)였는데 그는 뒤에서 지시만 하고 외무장관과 영국주재 대사가 출석,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들 요구는 1)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규약문에 인권동등권 조항(Racial Equality Clause)을 삽입할 것, 2)북태평양 섬들(Marshall 군도, Caroline 군도, Mariana 군도)을 일본지배하에 둘 것, 3)산둥(山東)에 있는 독일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도록 승인할 것 등이었다. 북태평양 3개 섬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먼저 의제에 올랐다. 전쟁 중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합의

#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일본은 중국의 산둥(山東) 지역을 점령, 독일을 내쫓고는 독일의 이권을 넘겨받는다는 비밀 조약에 중국이 서명토록 강요했다”

관이 걸린 山東문제 때문에 일본이 양보(?)하고 넘어가게 된다.

山東은 중국사상의 중심로 공자·맹자의 고장이기도 하며 중국이 가장 많은 지식인을 배출한 곳으로 강대국들의 침식에 분노한 중국인들이 일으킨 義和團사건(Boxer Rebellion)의 발생지다. 이 사건 때 2명의 독일인 선교사가 살해됐다는 소식에 독일 카이저 Wilhelm 2세는 “하늘이 내린 회소식”이라며 이 핑계로 중국을 압박, 山東지방을 초차하고 철도부설권을 얻은 후 칭타오(靑島)에 해군기지를 건설했다.

▶일본이 山東을 점령 =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일본은 이곳을 점령, 독일을 내쫓고는 독일의 이권을 넘겨받는다는 비밀 조약에 중국이 서명토록 강요했다. 이 비밀조약의 존재가 파리 강화조약에서 강대세력(특히 Wilson)이 山東지역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일본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큰 이유가 된다.

대전이 일어나자 중국도 독일에 선전포고(1917년), 한 때 10만명의 중국인이 서부전선에서 프랑스를 위해 참호를 파 동맹군을 도왔다. 많은 중국인이 포탄에 맞거나 질병으로 죽었고 프랑스 수송선이 지중해에서 독일 잠수함에 격침됐을 때 중국인이 500명이나 익사하기도 했다. 종전되자 중국 정부는 3일간 공휴일을 선포하고 축제를 벌였다.

중국인들이 이제는 강대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Wilson이 내세

운 민족자결권이 자기에게도 주어지리라고 생각했다. 서구가 자기들에게 설교하던 자유민주주의가 자기들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했고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망은 두터웠다.

파리에 파견된 중국대표는 벨지움 여자와 결혼, 전통 머리봉지를 잘라 한 때 추문의 대상이 됐던 루쟁창(陸征祥)이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한 것은 Wellington Koo로 불리던 구웨이켄(顧維鈞)이다. 그는 Columbia대 출신에 칭찬에 인색한 Clemenceau 수상조차 칭찬을 아끼지 않은 탁월한 웅변술의 외교관이었다.

일본대표들은 山東문제는 북태평양 섬들과 함께 패전 독일영토 문제니 두 문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자 제안하고 또 이 문제는 일본과 독일에 관한 문제니 중국은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했으나 다른 세력들은 동조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山東의 독일 이권을 일본에 이양한다는 비밀조약에 중국이 동의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런 비밀조약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중국 대표 Wellington Koo는 실사 그런 비밀협정이 있었다 해도 이것은 강압으로 맺은 조약이니 무효며 따라서 이 문제는 강화회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山東을 독일에서 해방시켜준 일본에 감사를 표함에 인색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대가로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토지를 일본이 차지한다는 것은 훗날 중국과 일본이 큰 불화를 이끄는 불씨가 될 것”

요한 것은 정의와 자유가 아닌가!” 하면서 Wilson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다.

▶일본의 속임수 = 고민하는 Wilson에게 일본대표들은 “궁극적으로 일본은 山東을 중국에 돌려줄 것”이라는 거짓약속으로 얼버무리려 했다. 그러면 이를 성문화 하자고 하자 “그렇게 하면 일본내려론이 악화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응하지 않았다.

회답이 중국에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소식에 파리의 많은 중국인들이 열화같이 불만을 토했고 4거두, 특히 Wilson을 힐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Wilson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그의 숙소의 경비가 강화되었다.

이 때까지 Wilson의 14개 조항을 믿었고 파리 강화회의가 山東을 중국에 반환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던 중국인들의 실망은 너무 컸다. 5월 3일 밤 북경대 학생들은 다음 날 天安門에 모여 시위하기로 결의하고 조약에 서명하지 말라는 전보를 파리 중국 대표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손가락을 잘라 청도를 반환하라는 혈서를 쓰는 청년도 있었다.

“파리강화조약 소식이 우리는 크게 놀랐다. 외국인들은 아직도 이기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전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우리는 더 큰 전쟁이 조만간 올 것이고 그 전쟁은 동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 정부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소위 위대한 영도자(예로 Wilson같은)가 외치는 원칙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건 투쟁 뿐이다.” 어느 한 대학생의 말이다.

다음 날 아침 5월 4일, 3천 여명의 시위자가 천안문 앞에 모여 “청도를 돌려달라” “강압정치 반대” “중국은 중국인에게”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주모자를 구속했으나 시위는 더 격렬하게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정부는 할 수 없이 구속학생을 석방하고 사과해야만 했다.

이 때 중국정부는 남쪽과 북쪽의 두개로 쪼개져 있어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남쪽정부는 대세에 편승해 ‘북쪽은 전쟁중 일본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폐기할 것, 山東결정을 거부할 것’ 등을 북경정부에 요구했으나 친일군사세력이 우세한 북쪽은 이를 거부했고 남쪽과 북쪽의 협상은 결렬, 그후 중국은 9년간 분열과 내전이 계속됐다.

1919년 5월 4일은 중국민족주의 역사의 획기적인 날이다. 무엇보다 지식층이 서방을 거부하는 계기가 된 날이다. 1919년 전 그들은 서방 개인주의와 경쟁주의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나은 모델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서방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자기들이 실험한 공화제가 실패로 돌아가고 유럽 국가들이 전쟁으로 자신들을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목격하자 서구제도에 대한 불안감은 더 깊어져 갔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했던 한 저명 학자는 “서방은 사막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지적 파산자들과 같다. 이들에게서 아무것도 본받을 바가 없다”고 선언했다.

<6면에 계속>

이라고 하면서 민족자결권과 영토보전권을 보장한 Wilson의 원칙을 적용하면 당연히 山東은 중국에 반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중국주장이 옳다고 인정했고 Wilson도 동조하는 듯 했다.

그러나 전승국 일원으로 당연히 자기(이탈리아) 영토로 인정해줄리라 예상했던 Adriatic Coast의 중요 항구 Fiume(Rijeka)가 3거두(Wilson, Clemenceau, Lloyd George)에 의해 거부당하자 이탈리아 수상 Vittorio Orlando가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Orlando는 실각하고 그 덕에 이것이 후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2차 대전의 동맹국이 되는 큰계기가 된다.

Wilson의 최대 관심사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창설이었다. 인종동등권 주장에서 우리가 양보(?)했는데 山東요구 마저 거절당한다면 자기들은 국제연맹에 조인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위협에 Wilson은 굴복하고 말았다.

Wilson의 대변인 Baker가 세계여론이 중국을 지지하고 있음을 대통령에게 상기시키자 Wilson은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이탈리아가 퇴장한 판에 일본마저 참가를 거부하면 국제연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고 반문했다.

보좌관들은 입을 모아 “만일 일본이 山東을 차지해도 좋다면 왜 이탈리아는 Fiume(Rijeka)을 차지할수 없는가?”고 Wilson에게 따졌고 한 보좌관은 “평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화보다 더 중



<5면에서 계속>

역사에 우연이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는가 보다. 1919년, 서방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 1911년 중국이 실패한 서방식 민주주의가 실패했을 때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이런 우연을 말해준다. 공산주의가 서방민주주의 대안이 아닌가 중국인들은 생각해보게 되었다.

불세비키 정부 외무담당자가 소련은 Tsar시절 차지했던 중국에 있는 모든 이권을 포기하겠다고 제안은 이들을 매혹시켰다. 불세비키 정권은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당시는 전례없는 관대함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 극단주의자는 1년 후 중국 공산당을 결성했고 5월 시위 주동자가 여기에 가입했다. 5.4 시위에 활동했던 모택동과 주은래의 지도하에 당은 1949년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만일 Wilson이 山東을 일본에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일본이 굴복했을거라는 증거도 있고 국제연맹을 거부했을거라는 증거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어쨌든 Wilson이 그렇게 외친 원칙까지 버려가면서 가까스로 만든 국제연맹을 미국은 비준조차 하지 않았고 조인한 일본은 만주사변(1931년)을 일본이 꾸민 것이라 혐의로 국제연맹이 조사하려다가 탈퇴하고 말았다.

일본은 山東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지만 대가는 매우 컸다. 중국인들의 저항은 점점 거세져 일본인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또 일본인들에 대한 외국세력들의 감정도 나빠졌다. 동맹국 영국조차 일본을 의심하기 시작, 일본을 'Yellow Prussia' 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됐다. 생각보다 중국인의 저항이 커지자 일본은 처음 구두로 약속한 山東반환을 고려하고 협상을 제의했으나 중국은 냉담했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주권과 영토권을 보장하겠다는 조약을 다른 강대국과 맺었으나 이 조약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거쳐 1932년 중국본토를 침공함으로써 휴지가 되고 말았다.

## 제2장 세계 2차대전 후(1945년)의 일본

"Those who do not learn from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George Santayana

제1장에서 보았듯 일본은 청일전쟁, 노일전쟁, 1차 세계대전을 통해 한결같이 군국팽창 정책을 펼쳤고 승전 후엔 가져앉이 패전국의 영토를 강탈하고 전쟁보상

금을 받아내는데 급급했다. 이미 전부 점령한 사카린 섬을 반밖에 차지 못하게 됐고 전쟁배상금조차 못받아낸 데 불만을 품은 일본 군중은 히비야(日比谷) 폭동을 일으켰으며 가즈라(桂太郎) 내각은 사임해야 했다.

미 대통령 Teddy Roosevelt의 압력으로 이런 일을 당한 일본인들의 감정은 반미로 번졌고 후에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됐다. 그런데 2차대전에 패한 후 보여준 일본인의 행동은 전혀 달라진다. 어찌 그럴수 있는가?

그렇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이고 누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도왔는가. 독도, 센카쿠(釣魚島) 그리고 소위 북방 4개섬에 대한 분쟁에서 해답을 얻어볼까 한다.

▶북방 4개 섬의 역사 = 북방 4개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자.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은 Treaty of Shimoda에서 쿠릴열도중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남방 4島(Iturup, Kunashir, Shikotan, Habomai Rocks)는 일본, 그 이북의 섬들은 러시아 소유로 협정을 맺었다. 1875년 양국은 St. Petersburg 조약으로 사카린 섬은 러시아가 차지하는 대신 쿠릴열도는 일본 소유로 협정을 맺었다.

1905년 Portsmouth조약으로 일본은 북위 50도 이남의 사카린 섬을 차지했다.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전쟁을 선포한 소련은 사카린섬 전체를 점령하고 8월 18일부터 31일 사이 쿠릴열도를 점령한 후 일본인(1만 7천명)을 전부 쫓아냈다.

1945년 알타회담에서 미·영·소 3거두는 독일과 전쟁이 종결되는 3개월 내에 소련이 일본에 전쟁을 개시하면 종전 후 사카린은 소련에 반환, 그리고 쿠릴열도는 소련에 준다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쿠릴열도의 일본 소유권은 박탈했으나 소련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북방 4개섬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고 일본 홋카이도에 속한 섬이라고 주장,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소련이 조인하지 않게 된 중요한 이유로 현재 러시아와 일본의 쟁점이 된 이유다.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제도의 역사는 복잡

←독도(獨島)는 동해의 남서부,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일본 시마네켄 오키 제도에서는 157.5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하나 중요한 사건만 보면 청일전쟁 중인 1895년 일본은 이 섬들이 무주지(無主地)라 주장,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2차대전 후엔 미국이 신탁통치하던 오키나와 관할하에 두었다가 1972년 오키나와를 미국이 일본에 반환한 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 분쟁에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엔 일본 주장을 두둔하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예로 최근 국무장관 클린턴의 발언이 그렇다.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그를 견제하는데 일본의 가치가 높아진 게 그 이유인가?

▶독도의 역사 = 독도의 역사도 자세히 적자면 길지만 간단히 중요한 사건만 기술하면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켄(島根縣)이 고시 40호로 독도(다케시마)를 시마네켄에 편입했다.

당시 무주지(無主地)라는 이유를 세웠으나 나중에 무주지라는 주장에서 선점(先占)으로 이유를 바꿨다. 2차대전후 맥아더 라인 밖에 독도가 표시돼 있었으나 맥아더 라인이 강화조약 후 없어질 것을 예상한 이승만 대통령이 평

## “일본이 이렇게 오만하게 된 것은 전승국이 패전국에게 전쟁책임과 손해배상도 받지 말자는 정책에 미국과 소련이 종전 후 적대국으로 냉전이 벌어진 게 원인이다”

화선(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포, 이 선 안에 독도를 포함한 후 한국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패전한 일본이 왜 이렇게 적은 섬들을 가지고 이웃나라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나는 일본이 전과(前過)를 잊고 패전국이 아닌 절로 착각하는데서 나오는 행동이라 판단한다. 북방 4개섬을 ‘반환하라’는 그들을 보자. 소련이 2차대전이란 호기를 이용해 이 섬을 불법점거한 거라 치자. 그러나 그들을 도적이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 게 있다. 소련의 도적질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소련이 한 것이 설사 도적질이라 해도 일본인들이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은 없지 않나 하는 것이다. 왜? 러일전쟁을 상기하면 간단하다.

일본과 대조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패전국이다. 독일은 전쟁에 짐으로서 Oder-Neisse 이동의 막대한 땅을 잃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불평없이 승전한 강대국들의 결정에 승복했고 폴란드에게 내 땅 내놓으라고 시비걸지 않았다. 또 저지른 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쟁 범죄자 색출과 처벌에 적극 협력했다.

▶일본이 오만하게 된 원인들 =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데 사과는 커녕 젊은 한국여성들을 납치, 성노예로 삼은 일조차 시치미를 떼고 있다. 죄책감은 커녕 오히려 전쟁피해자 처럼 엄살을 부리

고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피해만 주장하는 게 그거다.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또 다른 예로 많은 일본인들이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전쟁범죄자가 아니라 영웅이라 떠받들고 있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승국(특히 미국)이 패전국에 대해 전쟁책임을 묻지 말고 전쟁배상도 받지 말자는 정책이 첫째이고 전쟁 중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종전 후 적대국으로 냉전이 벌어진 게 둘째 원인이다.

1941년 8월 영국수상 처칠과 미 대통령 루즈벨트는 영국과 미국은 종전 후 영토팽창을 하지 않으며 영토변경은 주민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한다고 대서양 헌장에서 선언했다. 이것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개입 전 발표한 원칙선언이지 무슨 조약은 아니다. 1945년 7월 미국·영국·소련 3거두는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지역은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정하는 작은 섬에 한정한다고 선언했다. 말하자면 일본은 연합국이 주권지역을 정할 때 작은 섬만 잘 챙기면 전쟁에 졌어도 한 치도 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한 것이다.

승자가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은 1차대전 후 히틀러의 등장을 목격한 데서 나왔다. 가상할 일이다.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자는 것, 얼마나 아름

다운 노릇인가. 기독교 정신이 그것 아닌가.

그러나 이런 관용에도 문제는 따른다. 가령 죄인을 감옥에 가두었더니 출옥하자 더 횡포해지더라. 그러니 죄진 자를 감옥에 보내지 마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형무소는 다 문 닫아야 할 것 아닌가. 형을 저야 될 자가 관용을 베풀는 자에게 감사는 커녕 큰 소리 친다면 관용은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전후 일본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이 후자에 속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주장하게 되는 첫째 근원은 여기에 있다고 나는 본다.

둘째, 냉전이 어떻게 일본의 전후행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우선 냉전은 유럽에서 이미 시작돼 그것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큰 영향은 중국의 공산화다. 1943년 카이로 선언 때만 해도 중국 장개석 총통이 우리 편에 서 주었다. 카이로선언에 우리의 독립을 보장하는 조목을 포함시킨 것도 그의 덕이다.

그런데 내란으로 중국이 둘로 쪼개지는 바람에 어느 정부가 중국을 대표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돼 둘 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석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우리는 또 전쟁중이라 참가자격을 가지지 못했다. 자그마치 48개국이 조인한 조약에 일본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우리와 중국은 이례서 제외됐다. 이것은 우리와 중국에겐 크나큰 불행이었으나

일본에겐 큰 행운이었다.

역사에 가정(假定)이란 소용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일 이랬더라면...’ 하는 가정을 해보고 싶은 때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모택동이 중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데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고 그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 계기는 5.4 운동으로 파리 강화회담에서 강대국(특히 Wilson)이 山東을 일본에 넘겨준 데 기인한다. Wilson이 山東을 일본이 차지하게 한 노릇이 중국 공산당의 성공에 기여했고 이것이 냉전을 격화, 그 덕을 일본이 보고 있으니 역사의 큰 아이러니다.

‘만일 장개석이 평화조약에 중국을 대표했다라면...’ 도 물론 부질없는 꿈이다. 이 통에 독도, 센카쿠(釣魚島), 쿠릴열도에 대한 문제는 강화조약에서 이들 섬의 주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결정짓지 않고 상대국들이 협상하도록 남겨두어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었다. 일본이 독일과 달리 전혀 전쟁책임에 둔감하게 된 것은 이러한 냉전덕인 것이다.

일본인들이 전쟁책임에 대해 얼마나 불감증에 걸려 있는냐는 것은 1963년 제3차 한일회담에서 일본수석대표 구보다 하이치로(久保田 貫一郎)가 한 말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는 1) 한국이 강화조약 발효 전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2)일본 패전과 동시에 재한 일본인을 전부 철수시킨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3) 제한 일본 사유재산 몰수는 국제법 위반이다. 4)카이로 선언에 ‘한민족이 노예상태’에 있었다는 문구는 전시 흥분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 5)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가 한민족에 은혜를 주었다 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후 국제정세 호기를 타고 일본은 패전의 대가를 지불치 않고 평화조약을 맺는 행운을 누렸다. 이런 평화조약의 맹점을 이용해 몇개의 섬을 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이 설치고 있다.

이런 자국내 여론에 편승, 극우 아베 신타로(安倍 晋太郎)가 다시 수상에 올랐고 그는 일본 극우 ‘愛國者’ 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 100년 전 사이온지가 물러나고 가즈라가 재등장하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다.

아베는 일본 ‘愛國者’ 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가 한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사이온지는 1913년부터 소위 원로로 일본 왕도 그의 말을 무시 못하는 일본정치의 거두였다. 일본이 만주를 넘어 중국본토까지 진격하는 것을 근심스럽게 바라보던 그는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애국심의 부족함이 아니다. 나는 이 흘러넘치는 애국심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몰고 갈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때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본인은 별로 없었다.

사이온지 긴모치가 오늘 날 살아 있더라면 그는 “나는 조그마한 섬 몇 개를 일본이 잃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섬 몇 개 얻자는 싸움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갈 것인가를 두려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



1999년 8월 LA 일미 박물관 옆 'Go For Broke' 에서 김영욱 대령(왼쪽)과 함께.

시사 위인 칼럼

# 미국 전쟁영웅 '김영욱 대령'

조동준(의대 57) CA  
미주 의대동창회 전 회장

일부에게만 알려진, 한국계 미국 합중국 전쟁영웅 김영욱 대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미국 LA 출생(1919-2005년)으로 이곳에서 태계하신 분이며, 미 3대 대통령으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 맥아더 장군 같은 위인을 포함한 미국 전쟁영웅 16인 중 한 사람으로 인증받은 김영욱 대령은 제2차 대전에 참가해서 연합군의 승리에 눈부신 공헌을 세웠다 한다. 그는 프랑스·이탈리아 등지의 연합군 유럽전선에서의 업적으로 미합중국으로부터는 물론, 프랑스·이탈리아로부터 18개의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전쟁터의 부상자로 인해 수술도 40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그의 사후 LA 한인타운에는 Young-Oak Kim을 추모, Young-Oak Kim Academy 라는 이름을 딴 중학교가 설립됐고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에는 Young-Oak Kim Study Center(책임교수장태환)가 세워졌다.

그는 자신의 업적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고 책으로 남겨지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고 한다. 항상 과묵하고 근엄한 성격에 세상을 떠나고서야 미국 언론들이 그의 삶을 대서특필해 2005년 LA 타임스는 그의 일대기를 1페이지 가까이 할애해서 소개했다.

사실 그는 생존시 442대대(Go for Broke 부대)를 중심으로 2차 대전에서 일본 2세 부대와 함께, 그리고 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 건립을 도왔고 'Go for Broke' 전쟁기념물 건립 주동인물로 일본 2세 사회에서 널리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내가 이 분을 만난 것은 1992년으로 한미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창립이사로 처음 만나 6년 후 사임했을 때까지 함께 일했는데 당시 그는 70대, 나는 50대였다. 그러나 전혀 그의 배경을 모른채 매달 이사회에서 만나곤 했는데 집이 San Diego인데도 내내 개근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지난 해 한국에서 그의 자서전을 사서 읽고는 그의 업적을 알게 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항상 과묵했고 행동이 항상 신중했으며, 보통 사람과 어딘가 다른 데가 있었던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생각컨대 미국의 한국계 미국 시

민으로서 이 분을 능가해 존경할 수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그는 전쟁영웅을 넘어 친구의 전쟁 유가족은 물론 한국 전쟁고아를 돌보았다. 1972년 군에서 제대한 후에도 작고할 때까지 LA 일본사회와 한인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던 박애주의자로 길이 추모되는 분이다.

그는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습격과 함께 제2차 대전이 터진 후 하와이의 일본 2세 젊은 청년들과 함께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아시아인 인종차별과 의심으로 입대를 거절 당했으나 차후 미연방정부의 아시아계 미국시민 징집법이 통과돼 하와이의 일본 2세들과 함께 미군에 입대, 6개월 후 보병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졸업 후 100th 보병부대로 배치받았는데 이는 바로 442 전투대대(Go for Broke 부대)로 하와이 출신 상원의원 Daniel Inouye 의원이 장교로 소속했던 부대였다.

부대 대대장은 그가 한국인 후예라는 사실에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고 다른 부대로 옮겨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일본사람도 없고 한국사람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가 미합중국을 위해 싸우는 미국 시민입니다" 라고 대답, 부대 전출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미국은 일본 2세들을 믿지 않고 애국심을 의심하면서 주거 지역에서 3일만에 집과 재산을 버리고 멀리 집단수용소로 강제 이송시켜 그들이 진정 어려웠던 시기였다.

442대대는 후시 일본군과 손을 잡을까 의심돼 태평양쪽으로 보내지 않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유럽연합군 전선으로 보냈으며, 이탈리아 남부를 장악하고도 이듬해까지 로마에 입성하지 못하고 독일전차부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돌과구를 연 젊은 장교가 바로 젊은 김영욱 소위였다고 한다. 그는 단 1명의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초소에 근무하던 독일병 2명을 생포해왔으며, 이를 통해 독일군의 위치를 파악해서 로마를 손에 넣고 복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았다.

트루만 대통령은 442 전투부대를 종전 후 뉴욕항구로 초청하고 Washington DC의 환영대회에서 'Go for Broke' 부대를 극구 칭

생활의 단상

## 작심삼일 (作心三日)



문성길(의대 63) VA  
워싱턴 DC동창회 전 회장

결심보다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작심삼일(作心三日)'이다. 작심삼일의 단골 메뉴는 아마도 금연과 금주, 생활의 윤택, 운동, 신앙생활, 체중조절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는 특히 '말조심하기', '부드러운 말 쓰기, 특히 가족에게'를 첨가하고 싶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실천할 수 없었던 희망사항들을 이루어보려고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다짐해보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

찬하면서, "여러분은 적군과 싸워 승리했을 뿐 아니라 미국민의 인종편견과도 싸워 승리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제2차 대전 후 LA로 돌아와서, 세탁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다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의 나라가 위태롭다며 다시 미군으로 입대하려 할 때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매달렸지만 다시 미군으로 복귀해서 한국전선으로 달려가 동부전선에서 역시 무공을 세웠다.

전쟁 중에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고아원을 세웠고 내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다. 아버지 김순권씨는 생존시 대한인동지회 회원으로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으로 당시 경무대를 방문,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안부도 전했다고 한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태극 무공훈

다. 우리들이 잘 아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다짐과 작정도 중요하지만 실천 방법이 또한, 아니 더욱 중요한 것 같다. 무슨 일을 할 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계속함이 경박하고 불규칙하며 지속성이 결여됨보다 낫다는 사실은 70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실히 느끼고 싶은 말이다. 그 얼마나 많은 계기 말발하다던 사람들이 중도에서 실패자들이 되었으며, 굵직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내노라 세상이 알아주는 위치에 우뚝 서 있는가?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 '이것 저것 다 건드려 보는 사람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인생을 100미터 경주가 아닌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한다. 일시적 만인들이 놀랄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생 승리 전부는 아니며, 설령 실패를 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곧 인생의 끝은 아니다. 다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 원인을 자세히 살피고 다시는 실패의 원인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함이다. 유명 대학의 수석 졸업생들의 몇십년 후 근황을 조사해 봤더니 별로였다 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몇 해 전 우리 부부는 새해결심으로 실내운동기구를 이용해 달리기를 했다. 그러나 처음 2개월간 너무 과욕을 부려 심하게 운동했는데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소위 몸살이 난 후 크게 아팠다. 그 후 다시는 운동기구에 올라가지 않게 되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60일이었지만 결국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흔히 꿈은 높고, 크게 가지라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금년 새해부터는 높고 큰 것을 향하되, 과욕 부리지 말고 우선순위를 가려 몇 가지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시작해 봄이 어떨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순찰에 배부르랴, 티끌 모아 태산' 젊은이들에게 새해에 다시 한 번 해주고 싶은 말들이다.

성공이란 꿈이 말한다면, 그가 소속된 사회에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구성된 단 한 사람에게서라도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켰느냐가 아닐까?

인생 마지막 3단계 초입, 나의 해인 양떠 올미던 새해 결심사항 중 으뜸을 '겸손 하라' 그리고 '범사(凡事)에 감사하라!'로 하고 싶다.

'부드러운 말 쓰기, 특히 가족에게'라는 작심도 함께 실천되기를...\*\*\*

장도 받았다.

그는 16인의 미합중국 전쟁영웅이기도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전쟁영웅 이상이였다. 전역 후 사망한 전우의 가족들과 부상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빈민, 그리고 소수계 불우한 가정을 보살핀 진정 휴머니스트였다.

전후 미국의 정·재계가 그를 영입하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한사코 거절했으며 아시아계인으로는 처음 장성진급 조건을 갖추었으나 부상이 괴롭혔다고 한다. 그는 군복을 입었을 때는 무기를 들고 세상을 지키는 방패, 군복을 벗었을 때는 사랑과 봉사로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었다고 자서전을 쓴 한우성씨는 말한다.

LA의 Little Tokyo 일미 박물관 옆에 건립된 'Go for Broke' 기념물 건립에 주요 인사의 한 사람으로 일했다. 이 석조 기념물

'Go for Broke'에는 일본인 후손들로 제2차 대전에 참전한 부대원 1만 6천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박물관에는 김영욱 대령을 interview한 동영상도 보존돼 있으며 미주 일본 후예들 사회에서는 김영욱 대령의 이름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72년 군에서 제대 후 LA 일본인 사회와 한인사회에서의 활약은 다시 한 번 돋보인다. The Korean American Museum, The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The Korean Youth and Cultural Center 그리고 The Pacific Asian Families 등, 휴머니스트로 community를 위해 한 일은 수없이 많다.

고 김영욱 대령은 진정 한국계 미국 시민, 우리 모두의 끝없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

세무 칼럼

## 두 연방의원의 세금개혁안



강호석(상대 81) CA  
CPA

지난 해 초 상원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선출됐다. 그가 덴 코스트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고심한 주제가 세금보고 개혁이다. 와이든과 코스트 의원이 추진한 세금보고 개혁의 초점은 많

은 공제항목과 세금 크레딧을 줄이고 세율을 낮춰 세금보고 형식을 단순화 하는 것이다.

개인납세자들은 10~39.6%까지 7개의 세율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이를 3개의 세율구간으로 줄이자는 주장이다. 두 의원은 3개 구간의 세율을 15, 25, 35%로 책정했다.

와이든과 코스트 의원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공제액을 지급보다 3배로 늘려 많은 세금 특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왔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소득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양도소득의 35%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 개혁안이 법제화되면 항목별 공제대상 가운데 모기지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이 사라지게 된다.

와이든과 코스트 의원의 세금

개혁안은 개인 뿐 아니라 법인세도 다루고 있다. 법인세법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규모 사업체의 활성화다.

법인세율을 24%로 조정하고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법인들에겐 장비구입비의 비용처리를 허용해 세금을 줄여줘 결과적으로 현금의 유동성을 높이고 도와 비즈니스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계획이다. 세율의 변동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국내생산분에 대한 세금 크레딧, 연구개발비 크레딧, 저소득층 하우징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없애 발생하는 세수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와이든과 코스트 의원은 세금개혁안에 대해 "현재 세법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세금개혁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의 (714)530-3630\*\*\*

## 모교 소식

## 새학기부터 ‘선한인재 장학제도’ 시행

□

모교 성낙인 총장은 올미년 새해를 맞아 “‘선(善) 의지’는 배타적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선한 공동체주의”라며 취임 초부터 얘기해 온 ‘선한 인재상’ 정립과 ‘공동선’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성 총장은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해 우리 사회는 있어서는 안 될 여러 일들로 가슴 아파했고 학내외적으로 만연했던 비인간적인 일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분별한 경쟁과 과도한 물질만능의 시류에 편승한 개인성취 지상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라며 “선 의지가 우리의 의지 전체를 관통하고 생활의 근본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대의 도덕적 사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으로 무장한 참된 인재, ‘선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차상위 계층에게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선

한 인재 장학제도’를 신학기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성 총장은 “대학 운영 전반에 국립대 체제와 법인 체제가 여전히 혼재해 있는 상황이며 아직도 국가·국민에게 법인 체제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발전모델의 정립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며 새롭게 탄생한 서울대의 확실한 모습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학문의 철학적 기반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지식생산 체계를 창조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서울대가 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통해 학문공동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 총장이 언급한 ‘선한 인재 장학제도’에 대해 서울대 본부 측은 “장학금 지급 대상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내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원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가 있었지만 신청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지급하지는 못하고 300



정년퇴임하는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 사회 현안에 대해서 ‘돌직구’

지난 2월 초 정년 퇴임한 이준구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대표적 미시 경제학자이자 사회 문제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교수로 정평이 있다. 이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대한항공 사태부터 기업인 사면까지 사회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렸다.

이 교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크고 특히 규제 완화, 민영화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미국 사회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담뱃세나 주(酒)세 인상은 국민 건강증진과 세수확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윈-윈 정책’으로 아무런 맥락 없이 순수히 담뱃세를 올린 것이라면 찬성”이라고 했다.

이 교수의 쓴소리는 31년간 몸

담은 모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서울대가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입시 정책이나 대학교육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어느 제도가 과연 공정한 제도인지, 우리 현실에 맞는 지 등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교수는 인터뷰 내내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가르치는 처지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정작 그는 “많이 놀라”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놀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며 “나아가 전공에 치우치지 말고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교양을 쌓으면서 건전한 판단력과 양식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 ‘제22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헌트 경 초빙

모교 자연과학대학이 과학 대중화를 위한 ‘제22회 자연과학 공개강연’을 지난 2월 5일(목)부터 이틀간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73동)에서 개최했다.

주제는 ‘과학자의 꿈과 도전’으로 강연진에 있어서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팀 헌트 경을 필두로 물리와 화학, 수학, 천문학 분야 국내 정상급인 모교의 자연과학자들이 직접 과학자로서의 삶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여 과학자와 강연 주제는 ▶ 팀헌트경(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 ‘Lessons from a life in science : how to win a Nobel prize’ ▶ 오세정 교수(물리천문학부) = 강연자와의 대화 진행 ▶ 김지환 교수(화학부) = ‘빛으로 분자와 대화하기’ ▶ 전현수 교수(물리천문학부) = ‘빛, 광자, 그리고 반도체’ ▶ 하승열 교수(수리과학부) = ‘수학과 다함께 차차차’ ▶ 우종학 교수(물리천문학부) = ‘인터스텔라의 우주와 블랙홀’ 등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공개강연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무대를 기획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날의 공개 강연에는 고교생과 서울대 신입생, 일반인 등 모두 1천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구성은 학교장 추천 고교생 900여 명,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신입생 100여명, 일반인 500여 명 등이다.

이날 공개 강연은 수학 콘서트를 개최해 온 카오스 재단과 서울대가 공동 개최했으며, 인터파크가 후원했다.\*\*\*

<한국대학신문>



↑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팀 헌트 경.

## 신입생 OT 4년만에 교내서 실시

모교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4년 만에 교내에서 개최했다. 모교는 2015학년도 신입생 3천271명 가운데 일부 수시 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OT를 지난 1월 13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관악캠퍼스 등에서 진행했다. 서울대 측은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OT를 한 번에 진행하기에는 인력·장소 등이 부족해 3년에 나눠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수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OT는 15일, 수시·정시모집(글로벌인재특별전형 포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OT는 2월 9일 열렸다.

모교는 신입생 OT를 2010년 이전에는 교내에서 개최하다 2011년부터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국립 평창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3년 동안 교외에서 개최하던 것을 올해 다시 교내에서 열게 된 데는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올해 교내에서 개최한 것은 조금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지난 해 발생한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방한 때 약속 시진핑 장서 1만권

“귀교의 수업과 학습 그리고 학술연구를 위해 중국 정보를 담은 도서와 영상자료 1만 권을 가져 오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해 7월 4일 시 주석은 서울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총 1만 권 분량의 책, 정기간행물, 영상물을 서울대에 기증한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됐다. 하지만 여태껏 ‘시진핑 장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목록이 알려지지 않아 국내 중국 연구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왔다.

당시 시 주석 강연을 총괄한 정종호 국제협력본부장은 “중국 측으로부터 2월, 늦어도 3월까지 장서가 서울대로 올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선적용 컨테이너 1~2개 분량의 방대한 장서를 해외대학에 기증하는 건 중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시 주석의 선물인 만큼 책 선정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기증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주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서울대에서 성낙인 총장에게 도서를 전달하는 기념식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국제협력본부에 따르면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장서 목록은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서 최종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특히 구하기 힘든 중국의 정기간행물과 중국어판 공학도서가 포함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수요가 많지만 실물은 보기 힘들었던 ‘교육발전연구(教育發展研究)’, ‘농업경제(農業經濟)’ 그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한 논문을 실었다가 2004년 정간을 당하기도 한 중국 사회과학연구소의 ‘전략과 관리(戰略與管理)’ 등이 기증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양국 간 역사논쟁을 야기한 동북공정(東北工程) 연구서도 대거 입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동북공정 대응논리를 연구하는 국내 역사학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소수민족 자료 등 문화인류학 서적과 영상물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도서, 영상자료는 서울대 도서관 안의 중국 관련 공간에 따로 전시할 계획이다. 박지향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은 “귀한 장서들이 만큼 예우를 갖춰 방문 당시 찍은 사진, 방명록 글귀(진리를 탐구하고 광명을 추구한다)와 함께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농생대 재학생들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방문

모교 농생명과학대(이하 농생대 산업단) 재학생 20여 명이 지난 1월 12일 익산에 설치돼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방문해 관심을 끌었다. 농생대 산업단은 올해 네덜란드

푸드벨리 답사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 푸드벨리인 국가 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날 학생들은 각 지방에 육성 중인 지역 클러스터와의 네트워

←모교 농생대 재학생들이 익산에 설치돼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방문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크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활용 방안과 농가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4조원 정도의 경제유발과 2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박경철 익산 시장은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세계에 한류를 연계해 우리나라의 식품시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익산 시 관계자는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식품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대 농생대 산업단이 국가 식품클러스터 발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신문>

### 고3때 아버지에 간 이식 오용석씨

### 재수 끝에 컴퓨터 공학부 합격



←고3이던 2013년 오용석(오른쪽)씨가 간이식 수술직전 아버지와 찍은 사진.

씨로 고3이던 2013년 8월 병원에서 간경화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 오재일(47)씨에게 자신의 간 70%를 이식했다. 아버지는 용석씨가 중학 1학년 때부터의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 악화됐다. 오랜 투병생활이 이어졌다. 2013년 의료진은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 용석씨 모친 임영순(46)씨가 자신의 간을 이식해달라 했지만 검사 끝에 "아들의 장기가 거부 반응이 적을 것 같다"고 했다. 모친은 이런 얘기를 아들에게 하지 못했다.

더구나 아들은 고3이었다. 망설임 끝에 어머니가 "아버지 병이 위중한 상태. 너의 장기를 이식하는 게 가장 좋다는구나."

오허려 아들이 담담하게 답했다. "어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수술을 마치고 아버지 오씨는 건강을 되찾았다.

아버지에게 간이 이식한 용석씨는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았으나 수능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결국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몇 곳에 원서를 냈으나 불합격했다. 이듬해 건강이 회복되자 재수로 모교 컴퓨터공학부에 합격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서울대 총동창회는 오용석씨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총동창회는 2월 27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오씨의 효행이 총동창회의 장학금 지급 요건으로 그의 효행이 효문화 확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자폐동생 돌보려 중학 중퇴 손혜원 양

### 서울대 등 수시 5관왕 차지

집에서 계획표 짜 혼자 공부... 매일 2~3시간 동생 지도, 검정고시로 고교 진학 전교 1등... '프로그래머가 꿈'



2009년 중학 1학년이던 손혜원(19)양은 자퇴를 결심했다. 공부를 잘 하는 딸의 선택에 부모님이 필쩍 뛰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요." 세 살 아래 남동생은 발달 장애자로 부모는 "동생은 우리에게 맡기고 공부에 열중하라"고 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혼자 홈스쿨링을 시작한 혜원이는 동생을 가르치며 검정고시로 서울 오금고에 진학했다. 혜원이는 이번 수능에서 만점 가까운 성적을 받고 서울대·연세대·카이스트 등5개 대학 진학에 합격했다.

중학교 자퇴 뒤 혜원이는 동생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시작했

다. 동생이 초등학교 특수반에서 돌아오면 하루 2~3시간씩 교과서를 펴놓고 함께 공부했다.

어머니 박윤주(44)씨는 "혜원이는 동생과 피자를 나눠 먹으며 나눴음을 가르쳤고 탁상시계와 액자로 삼각형·사각형 도형을 이해시켰다. 밀도를 설명할 때는 설탕과 쌀을 만져보게 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쉽게, 더 쉽게 설명했다"고 했다. 혜원이는 스스로 택한 홈스쿨링

기간에는 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했다. 손수 만든 계획표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어 원서로 독해 연습, 수학의 정석, 일본어 공부 등의 일정이 빼곡했다. 3시 이후는 동생과 함께했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책을 읽는 데 썼다. 2년 남짓한 독학 기간에 독서 노트에 기록한 책 목록만 200여 권이다. 대입 자기소개서에는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뒤, 혼자 있는 시간에 유일한 친구가 책이었다'고 적혀 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마친 혜원이는 오금고에 진학, 2~3년 동안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여름방학 때는 장애아동 특수 체육 보조 교사로 봉사했고, 친구들을 위한 학습멘토 프로그램에 2년간 참여해 눈높이 교육습씨를 발휘했다.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한 프로그래머의 책에 '조물주가 되어 창조하는 즐거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구절이 사로잡았다. 혜원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택했다. \*\*\* <조선일보>

### 모교 화학부 이진규 교수

### 정년보장 뿌리치고 LG행



'tenure 교수' 버리고 계약직으로 간 이진규 교수...왜?

1998년 화학부 조교수로 시작해 17년간 모교 교수로, 2003년엔 부교수가 되면서 정년을 보장받았다. 만 65세까지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됐다. 2008년 교수로 승진했다. 하지만 과감히 'tenure(정년보장) 교수'를 버리고 계약직 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기(無機)나 노소재 분야 석학으로 꼽히는 이진규 교수(52) 얘기다.

이 교수는 스스로 '발명가'라고 했다. 교수 재직 중 출원한 특허 수만 97건. 실제제품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연구에 논문 쓰라, 가르치라, 기술 이전하라 틈이 없었다. 벤처회사에 기술 이전해도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TV 패널에 탑재되는 주요 기술인 '퀵텀닷(전류를 흘리면 스스로 빛을 내는 양자를 주입한 반도체 결정)'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나노스퀘어'라는 회사를 차렸다.

이 교수는 "당시 상용화는 성공했지만 시장은 퀵텀닷 기술을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기업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50이 넘는 나이에 '도전'을 결심했다. 이 교수는 2월 1일부터 LG화학 수석연구위원(전무급)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로 중앙연구소에 출근했다. "주변에서 왜 서울대 테뉴어

교수직을 버리고 가냐고 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늦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60이 넘으면, 기업에서도 절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교수는 "매년 실적으로 평가받는 계약직이지만 정년보장 약속이 없어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가치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니 당연히 정년까지 일할 만큼 업적을 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테뉴어 교수 중 기업체로 옮긴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고교생 아들 둘과 화가로 활동 중인 아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

이 교수는 MIT에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슈루어 교수의 지도로 무기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MIT 학문간 융합연구 그룹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쳤고 106건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LG화학에 인연을 맺은 것은 2013년 안식년이던 해 LG화학 중앙연구소에서 1년간 자문활동을 했다. 그러다보니 직접 개발을 하고 싶어졌다.

"LG화학은 좋은 인재, 장기간 걸리는 기술개발에 대한 인내, 제품개발 경험 등 3박자를 갖춘 회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측에서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을 때 '제가 관심이 많습디다' 라고 답했죠."

그는 "연구 목적만 교육에서 상품화로 달라졌을 뿐 다른 건 없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무기 나노소재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는 대체로 흑연으로 만들지만 무기소재인 실리콘으로 만들면 용량이 증가한다. 탄소나노튜브는 열전도율이 뛰어나고 강성은 철강보다 100배 높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분야다. LG화학은 이 교수 영입을 계기로 무기소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정창욱 교수팀

### 요로결석 수술용 스텐트 독자개발



정창욱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팀이 복강경을 이용해 요로결석을 수술할 때 손쉽게 요관에 넣을 수 있는 스텐트(가는 수술용 관)를 개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로에 돌이 생긴 증상을 말한다.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직접 배를 가르는 수술보다 복강경 수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 교수팀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요로결석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은 33명의 환자에게 이 스텐트를 적용한 결과 스텐트 평균 삽입 시간이 5분 이내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합병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내비뇨학회지 최근호 표지 논문에 실렸다.\*\*\* <한국경제>

역사 칼럼

### 성덕태자(聖德太子)



장수영(공대 57)MD  
포항공대 전 총장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 인물로 존경하듯이 일본인들은 성덕태자(聖德太子 586-621)를 존경한다. 그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호황자(麩戶皇子)라고도 부른다. 그의 아버지는 용명천황(用明天皇)이고 어머니는 아나호베노 하시히토 황녀였다. 그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자매간으로 蘇我稻目(소가이나메)의 딸들이었다. 이나메의 아들 蘇我馬子(소가우마코)는 572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신이 되어 44년간 정권의 실력자였다. 石渡信一郎은 소가우마코가 실제로 왜국의 대왕이었고 일본서기에 나오는 많은 천황들은 실존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가씨의 조상은 백제에서 온 木滿智가 蘇我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用明天皇, 崇峻天皇과 推古天皇은 모두 소가우마코의 조카가 되며 성덕태자는 손자분이 된다. 552년 백제에서 불교가 전래된 후 物部氏는 불교를 받아들이기를 반대해서 588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 성덕태자는 소가우마코 편에 서서 불부씨 부자를 살해하였고 593년에는 추고천황 밑에서 황태자가 되어 국정전반을 통괄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성덕태자는 두 살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7세에는 섭정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된다. 그래서 917년에 만든 聖德太子傳曆에는 572년에 출생한 것으로 돼 있다. 성덕태자는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말을 했다고 하며 승만경과 범화경을 추고천황(성덕태자의 고모)앞에서 읊었다. 그리고 전국에 315소를 창건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큰 공로로 인식되는 것은 603년에 헌법 17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 和를 귀한 것으로 하고 逆함이 없음을 宗으로 하라.
2. 군계 三寶를 敬하라 三寶는 佛, 法, 僧이다.
3. 承詔하면 必謹하라 君은 天이요 臣은 땅이다.
4. 郡卿百寮는 禮로서 本을 삼으라.
5. 貪食貪財를 끊고 物欲을 버려서 분명하게 소송을 가려라.
6. 懲惡勸善은 古의 良典이다.
7. 사람에게 각각 임무가 있다.
8. 軍경백료는 조정에 일찌기 나오고 늦게 退하라.
9. 信은 義의 본이다.
10. 忿을 끊고 怒를 버려 사람의 나와 다른 것을 노하지 말라.
11. 功過를 명찰하여 賞罰을 받

- 드시 정당하게 하라
12. 國司, 國造는 백성을 수탈하지 말라.
  13. 모든 임관된 자는 그 職掌을 알라.
  14. 軍신백료는 질투하여서는 안된다.
  15. 私를 버리고 公을 향하는 것은 臣의 道이다.
  16. 使民以時하라는 것은 옛의 良典이다.
  17. 일을 혼자 단정하지 말라 반드시 衆과 의논할지이다.

그러나 崔在錫은 17조가 성덕의 고유한 발상이 아니고 禮記와 論語 등 중국의 고서 20여 종에서 발췌해서 모자이크한 것이라고 한다.

성덕태자는 高句麗僧 慧子를 스승으로 모시고 불교를 배웠는데 혜자는 성덕태자가 인민의 고통을 구제한 대성인이었다고 말했으며 성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 혼자 살아 남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성덕의 기일에 혜자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호류지(法隆寺)의 고문서 성에 초에는 ‘백제 제26대 聖王은 서거한 후 왜왕실의 성덕태자로 환생했다. 또한 호류지의 팔각전당 夢殿에 있는 구세관음상은 백제 성왕의 모습이자 환생한 성덕태자의 모습’ 이라는 기록이 있다.

大山誠一은 “성덕태자는 실존하지 않은 가공의 인물” 이라고 주장하며 小林惠子는 기마민족인 돌궐의 達頭可汗이 600년에 왜국에 와서 성덕태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申采浩는 성덕태자의 사적이 대부분 백제 近仇首王(재위 375-384)의 것을 본따 만든 것이라 주장한다. 근구수의 ‘近’은 음 ‘견’ 이니 백제 때 聖을 ‘견’ 이라 했고 구수는 음 ‘구수’ 로서 구유(馬廐)의 칭이니 성덕태자의 ‘聖德’ 이란 칭호는 근구수의 ‘近’ 을 가져간 것이고 성덕태자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므로 ‘麩戶’ 라 명한다 함은 근구수의 구수를 본뜬 것이다.

593년에는 法興寺(飛鳥寺)에서 소가우마코 등 100여인이 백제옷을 입고 불사리 안치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蘇我稻目이 536년에 大臣이 된 후 稻目-馬子-夷-入鹿 등 4대에 걸쳐 109년 동안 왜국 조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제에서 왕자가 오면 소가씨가 정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덕태자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이 죽은 入鹿에 의해서 643년에 모두 주살되었다.

결론적으로 신체호의 주장대로 성덕태자는 근구수왕의 치적을 흉내내 만든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고 실존인물이라면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모두 소가씨의 딸로 백제인이라 할 수 있으며 백제 성왕의 화신으로 볼 수도 있다.

620년 백제 멸망 후 왜국으로 간 많은 지식인들과 그의 자손들이 日本書紀를 쓰면서 백제의 기록들을 마치 일본 왕실의 기록인 것처럼 여러 곳에 교묘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

시사 칼럼

### 류길재 장관의 통일 비전



이내원(사대 58) VA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전국 이사장 역임

지난 해 12월 9일, 워싱턴 동포 사회에는 참으로 오랫동안 진지하면서도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강연회가 있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통일정책 설명회를 이룬다.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일에 대해 관심과 의견이 있고 정당기관 단체마다 나름대로의 양보 없는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주장한다. 그야말로 의견백출(意見百出)이요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미주 동포사회도 예외가 아니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특히 미국 시민권의 잇점을 이용하여 북한을 출입하는 인사가 적지않다 보니 보는 시각과 친소의 차이로 주장과 의견의 충돌이 적지 않은 현상을 빚기도 한다. 특히 워싱턴 지역은 미국의 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국제관계 및 정책연구소들의 강연회가 많은 곳 이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곳이다.

더욱이 고국 정부로서도 속수무책이었던 위안부 문제와 동해빙기 성공을 통하여 제일(制日-일본을 이기는) 외교력을 실현한 분고장이다 보니 워싱턴 동포들의 넘치는 통일 관심은 진전없는 통일 대박론에 회의와

답답증이 일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류길재 장관의 통일정책 기조 설명회는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 남북통일의 바른길을 밝히는 전조동 역할을 톡톡히 해 내어 모처럼 강연대박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류장관의 강연요지를 따라가 보면 누구나 막연한 미망에서 깨어나 통일의 바른길을 선명하게 내다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평화통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쟁이나 폭력을 배제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합의에 의한 이성적 통일을 이룰 것이다.

둘째,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 접근 방식으로 흡수통일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 오해의 소지를 깔끔히 차단하였다.

셋째는 통일 당위론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헤어진 가족이 반드시 다시 합쳐야 하듯이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수천년을 한민족 한나라로 살아온 만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엄중한 민족적 과제라는 뜻일 것이다.

넷째는 통일 방법론으로 통일은 좌우 진보 보수의 구별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총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식을 이룰 일 것이다. 이는 말처럼 간단치가 않고 실로 어려운 난관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류 장관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의 사과를 전제로 주장하는 일부 동포의 극

우적 주장을 경계하고 차단하였다. 참으로 현명한 접근 자세라고 본다. 시시비비를 따지면서는 통일을 말할 수 없고 빛나간 지도자가 밟다고 그 밑에서 고통받는 동포를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밝은 미래를 위해 어두운 과거를 묻고 넓은 가슴으로 동포를 끌어 안으려는 큰 사랑만이 통일의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다.

한편 류 장관은 워싱턴 평통 주최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사소한 듯 하지만 실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뜻있는 순서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지금 서둘러도 언제 이룩될지 모르는 지난한 대업으로서 대를 이어 그 당위를 공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류 장관의 강연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만족하였지만 넘치는 질문 홍수에 기회를 잃어 끝내 풀어내지 못한 절실한 궁금증이 하나 있다.

어떻게 그 잘 마련된 통일계획을 늦지 않게 때 맞추어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장구한 세월의 매듭사이에는 역사를 지어내는 시대적 적기가 있게 마련인데 뜻밖에 찾아온 북중 갈등의 시기가 바로 통일의 물꼬를 틀 하늘이 점지한 농칠수 없는 운명적 기회가 아닐까?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민간 지원 교류를 활짝 열어 남북 무한 경제교류를 서두르는 것이 동포애를 실천하며 통일의 물꼬를 터서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잘 사는 민족 번영의 큰 길로 나가는 최선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미주 동포들은 고국 정부의 통일기조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다시한번 일사불란하게 단결된 정치력을 발휘하여 미국의 뒤에 숨어 어떻게 하던지 한국 통일을 방해하려는 일본의 음모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골프와 춤



진봉일(공대 50) NY  
뉴욕시 전 교육공무원

건강유지를 위한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골프와 댄스는 둘 다 걷는 운동이다. 골프는 시원하게 펼쳐진 초원에서 대자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운동이고 춤은 실내에서 음악에 맞춰 즐겁게 걷는 운동이다.

장단점은 골프는 야외에서 하므로 피부가 햇빛에 타기 쉽고 18홀을 돌고 난 다음 19홀까지 가서 노닥거리다 보면 하루가 다간다. 반면 춤은 실내라 피부가 탈 염려도 없고 시간도 마음대로

조정하며 장비도 필요없고 운동량이 골프보다 훨씬 많다.

미국은 골프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프로 경치 좋은 곳도 많이 가보게 된다. 나는 지난 여름 친구 덕분에 지상낙원에 서 놀다 왔다. 무더운 여름을 피해 북쪽 Main주에 올라가 시원한 산 속에서 일주일 골프를 치다 보니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돌아왔다.

네 couple이 생수가 생산되는 Poland Spring Resort에 갔는데 앞벽에 ‘Stress Freezing Zone’ ‘Laugh Often Love much Live well’ 이라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감명 깊었다. 아침 점심 저녁도 그렇게 잘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다. 특히 치아가 시원치 않은 Senior에게는 모든 음식이 매끼 다르게 부드러울수가 없었다. 잘 먹고 뉴욕보다 5-6도 정도 낮은 산 속에서 골프를 치니 stress가 안 풀릴 수 없었다.

골프는 다음 5가지와 3C 지키면 싱글 골퍼가 될 수 있다.

1. No head up 2. Shoulder Turn 3. KNeer Lock 4. Weight shift 5. Back to the target, Belly to the

target. 3C는 Confidence, Concentration, Cordination(control).

힘빼기 3년, 욕심빼기 3년, 퍼팅과 어프로치 3년이다.

넓은 ballroom에서 멋진 춤을 추면서 리듬 감각을 익히고 허리를 유연하게 하체를 튼튼히 하여 돌아오는 봄에는 멋진 스윙을 통해 골프 핸디도 줄이면 좋겠다.

파티 문화가 발달된 미국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녀들 웨딩 리셉션에서는 신랑 신부는 물론 부모도 춤을 추게 돼 있다. 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도 춤추어야 한다.

미국 생활은 늘 시간에 쫓기어 살므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10여년 전 대장암, 5년 전 위암을 골프와 춤으로 극복했다. 일만 하다 놀아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 2-3일 앓고 죽는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오준(인문대 74) 주 UN 대사

### UN에서 명연설로 SNS 2030 열광

지난 해 12월 22일 뉴욕 유엔본부. 북한 인권 상황이 최초로 정식 의제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말미에 오준(인문대 74) 주유엔 대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수백만명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수백km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 흘립니다. 안보리를 떠나며, 우리는 북한에 있는 무고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디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을 위해 말입니다.”

불과 3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연설이었지만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 대사가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울림은 회의장 밖으로도 퍼졌다. 연설 내용이 보도되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큰 관심을 끈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연설 동영상(<https://www.youtube.com/embed/pQEy9IBehfA>)을 공유하며 북한 주민들의 아픔에 무심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2030세대 사이에서 ‘이상 열기’를 불러 일으킨 오 대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뉴욕에 있는 그는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감사할 따름이다. 이 회의는 최초로 북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올리는 역사적인 자리였다. 이날따라 15개 이사국 말고도 60여개국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길래 많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인데, 국내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더니 다행스럽다”고 설명했다.

SNS를 통해 오 대사에 직접 소감을 전한 이들만 몇백명이라고 했다. 800명 정도였던 오 대사의



↑ 오준 대사가 UN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페이스북 친구는 사흘만에 1천 200명으로 늘었다. 그는 “원래 알던 분들의 친구신청만 받는데,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가져주는 게 감사해서 신청한 분들을 다 친구로 수락했다. 신청자 대부분이 학생, 군인 등 젊은이들이었다. 흔히 젊은 층은 북한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 반응들을 보니 이들은 남북간 대립적 상황이 싫은 것 뿐이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연설은 원고도 없이 한 것이었다. 실제 동영상에도 오 대사는 5분 정도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읽다가 이후 원고를 보지 않은 채 다른 이사국 대표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연설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 그 절박함

을 전달하기에는 공식입장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다른 나라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많은 국제 인권 문제 중에 하나, 많은 인권불량국가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북한은 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마지막 연설이었는데, 한국이 이사국 임기를 북한 문제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가슴아픈 우연인지를 알고 싶었다.”

이를 위해 오 대사는 굳이 원고를 만들지 않고 마음 속으로 대략의 내용만 생각하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다른 국가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들은 뒤 우리나라의 소회를 밝히고 싶어 발언순서도 일부러 의장국을 제외 맨 마지막인 14번째로 신청했다”고 했다.

오 대사는 개인적으로도 실향민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머니 고향이 개성이고, 장인 어른이 함경도에 살다 6.25 때 월남하셨다. 장인께서는 계속해서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하셨지만 끝내 북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10년 전 쯤 작고하셨다.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대사의 ‘진정성’에 다른 나라 대사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제라르 아로 프랑스 대사는 회의장에서 오 대사에 감동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서맨사 파워 미 대사는 오 대사의 연설 내용을 즉시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다음 날에는 오 대사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직원들 전부에게 연설 동영상을 꼭 찾아보라고 했다”고 했다. 본부에서 연설을 생중계로 지켜본 반기문 사무총장도 나중에 오 대사를 따로 만나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이사국 임기는 끝났지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인권문제 해결이 필수 조건이란 인식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심어줘야 한다. 국제사회가 압박을 시작했고, 북한도 과거에 보여주지 않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8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외교관 생활의 3분의 2 이상을 유엔 등 다자외교 분야에서 일하며 의장국을 제외 맨 마지막인 14번째로 신청했다”고 했다.

오 대사는 개인적으로도 실향민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는



조각가·화가·수필가 유수자(미대 63) 동문

### VA 비엔나 MK 갤러리에서 전시회

‘일상의 소소한 풍경들’ 서양화가 루이스 쉐네쉬씨와 작품전

중견 서양화가이며 조각가, 수필가인 유수자(미대 63) 동문이

오랜만에 버지니아 지역에서 작품전을 열었다.

비엔나 소재 MK 갤러리(대표 김미영)에서 ‘인물과 풍경’을 주제로 지난 1월 10일 개막돼 30일

까지 계속된 작품 전시회에서는 의사 출신의 서양화가 루이스 쉐네쉬씨와 2인전으로 진행됐다. 작품전은 워싱턴 지역과 여행지 등을 담은 풍경화와 가족, 이웃 등의 일상을 엮은 인물화들로 구성됐다.

유 동문은 2015년 을미년 ‘양의해’를 맞아 ‘인간이 되고 싶었던 푸른 양’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비롯한 여섯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자신의 거주지 가까운 포토맥에 위치한 한 커피 매장에서 본 일상의 소소함을 그린 ‘커피 브레이크’를 비롯 ‘댄싱 우먼’ ‘케이트 앤 조이’ 등의 오일 작품 6점을 전시한 것이다.

미대 조소과 출신의 유 동문은 타운스대 미술 대학원 졸업 후 조각과 서양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16회의 개인전과 100여회가 넘는 그룹전에 참가했다. 서울 호암 아트 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손형우(미대 99) 동문

### LA 비전 갤러리에서 개인전

물질을 통해 마음을 소비하는 현대인들

“물질을 소비하고 매체를 사용하는 인간은 숙명 같다. 몸을 가진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숙제를 한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사랑을 한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전화를 한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 마음을 소비한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삶이라는 긴 여행을 한다”

‘미디어 숲으로 간 인간’이란

제목의 한국 작가 손형우(미대 99) 동문 개인전이 지난 1월 15-24일 LA의 비전갤러리에서 열렸다.

손형우(미대 99) 동문은 미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언론정보 대학원에서 디지털 영상학을 전공했다. ‘생의 축제’란 제목으로 3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10여회의 그룹전에 참가했다. 서울대학교 총장상과 서울 미술대 상전에서 특선했으며 경기 평화 통일미술대전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향 전 지휘자 정재동(음대 48) 동문

### 메릴랜드 자택에서 작고

서울 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을 20년 가까이 이끌어 온 정재동(음대 48) 동문이 지난 해 12월 17일 메릴랜드 엘리컷시티 자택에서 향년 8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모교 음대와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 지휘학과를 졸업한 고 정재동 동문은 1971년 서울시향에서 전임 지휘자로 시작해 1974년부터 1990년까지는 상임 지휘자로 서울시향을 이끌었다. 그는

중앙대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1988년 국내 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에서 순회공연을 열었고 ‘팝스 콘서트’, ‘범세대 연주회’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 심가 명복을 빕니다

▶이복성(법대 47) 동문 작고 = 지난 2월 초 휴스턴에서.  
▶권혁창(법대 57) 남가주 동창회 상임이사 부친상 = 지난 1월 29일 캘리포니아에서.  
▶민겸탁(의대 59년) 동문 작고 = 지난 해 11월 26일 캘리포니아 Napa Valley 농장에서.\*\*\*

### 모교 우종학 교수 시애틀서 강연

최근 ‘인터스텔라’ 영화로 우주과학 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크리스천 과학자인 모교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가 시애틀 지역에서 두 차례 강연을 통해 과학과 기독교 신학의 관계를 설명했다.

우 교수는 1차로 1월 7일 워싱턴대(UW) 골드 홀에서 ‘기독교와 과학’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우 교수는 다음 날인 1월 8일 시애틀 드립교회에서 ‘과학의 도전과 신학의 응답’이란 주제로 2차 강연을 펼쳤다.\*\*\*

평양과기대 명예총장 박찬모(공대 54) 박사

### VA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강연

“민간 학술분야 남북협력 재개돼야” PNP포럼 강연

“북한 학생들의 능력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남한의 하드웨어,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입니다.”

박찬모(공대 54)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사진)은 지난 1월 9일 PNP포럼(회장 윤홍노) 주최로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민간 학술분야의 남북협력력이 재개돼 남북의 IT분야 등의 과학기술이 함께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일부의 우려와 달리 재학 중인 대부분 북한 학생들은 체제나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열정을 갖고 과학 기술 연구에만

순수하게 집중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니사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과기대에서는 해킹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며 “디도스 공격은 중학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메릴랜드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을 역임한 박찬모 총장은 포항공대 총장,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특보를 지냈으며 평양 과학기술대학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기독교계 등의 지원으로 2010년 개교한 평양과기대에는 미국을 포함해 중국,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교수들이 와 있지만 한국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한국인 교수는 없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학대학 등에서 선발된 수재들만이 모이는 평양 과기대에서는 전 과목이 영어로 진행된다.

박 총장은 평양 과기대의 미래 비전 캐치프레이즈가 ‘상상을 뛰어넘는 글로벌 대학(A Global University beyond Imagination)’이라며 “남과 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oeing 전 책임연구원 김강수(문리대 59) 박사

### ‘창세기와 빅뱅 이론’ 집필중

“앞으로 우주의 탄생 미스터리를 성서적 관점에서 풀어낼 터”

“140억년의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우주. 과연 창조주는 존재하는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거주 중으로 지난 2012년 ‘현대과학이 보는 우주’를 출간해 화제를 모았던 재미 물리학자 김강수 박사(문리대 물리학과 59)가 두 번째 저서 ‘창세기와 빅뱅 이론(가제)’를 집필한다.

1961년 도미한 김강수 박사는 UC 샌디에고에서 핵물리학과 고체물리를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프리드만의 지배방정식을 풀어냈고 많은 이론들을 오차도 없이 증명해내야 했던 그가 우주과학과 함께 절대자를 이야기 하려 언론과 인터뷰했다.

“신은 존재하는가? “물론이다. 우주를 들여다 보면 절대자의 존재를 믿을 수 밖에 없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은하수(Milky Way Galaxy) 안에 있다. 지름만 12만 광년에 이르는 은하수에는 무수한 은하(Galaxy)가 있고 은하들의 작은 집단인 은하군, 은하군의 모임인 은하단, 은하단의 모임인 초은하단이 있다. 상상할 수 있겠나? 크기를 논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강수 박사가 천체 우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The Boeing Company’에서 우주관측 및 정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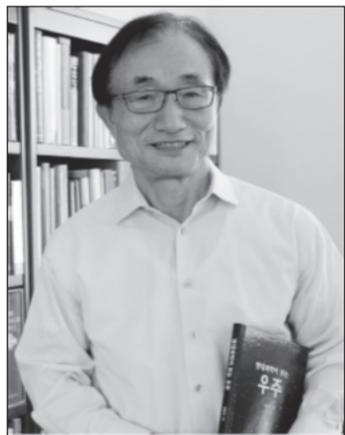
용 망원경 디자인과 제조에 주력하면서부터다. 30년 간 보잉사의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기광학과 과장 및 인공위성 제조사업 지배인 등 요직을 맡으면서 핵물리학과 천체 우주학의 밀접한 관련성에 자극을 받아 망원경, 광학, 핵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10여 년을 독학으로 천체 우주학을 연구했다.

“그저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함에 이끌렸고 정말 재미있었다. 수 많은 이론들과 가설들을 마주하면 가슴이 뛰었고 우주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이롭기까지 했다. 이처럼 거대한 우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40억년을 돌아가고 있다. 절대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현대과학이 보는 우주”에서 천체 우주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저서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과연 우주의 시작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만든 이는 누구인가?

“우주의 처음을 설명하는 우주 폭발 기원론, 즉 빅뱅이론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의 창세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 둘을 체계적으로 살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 아껴두자(웃음)”

빅뱅이론은 태초에 작은 점 안에 갇혀 있던 물질과 에너지가 작은 불꽃이 도화선이 돼 거대한



폭발을 가져왔고 이것이 140억년 동안 팽창을 통해 지금의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우주폭발이 일어나기 전 작은 점에 갇혀 있던 물질은 어디서 왔으며 폭발의 도화선이 된 불꽃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 절대자의 존재보다 더 과학적인가?”

김강수 박사는 천체 우주학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즐거움이 크다고 한다. 지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강사로 초대받아 우주과학 강연을 펼치기도 한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라 하지 않나. 우주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때문에 학문적으로 더 많은 즐거움이 있다. 또한 우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는다. 우주를 알면 저절로 겸손해 진다(웃음)”

우주 탄생의 미스터리를 성서적 관점에서 풀어낸 그의 두 번째 저서는 올해 출간예정이다. “현대과학이 보는 우주” 저자 kim.ks66@yahoo.com

모교 동문 목회자 모임 ‘울목회’

### 콘월대 예배실에서 세미나

미주 서울대학교 동문 목회자회(회장 박성근 목사)인 ‘울목회’가 지난 해 12월 11일 2014년 4분기 모임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콘월 신학대학교 예배실에서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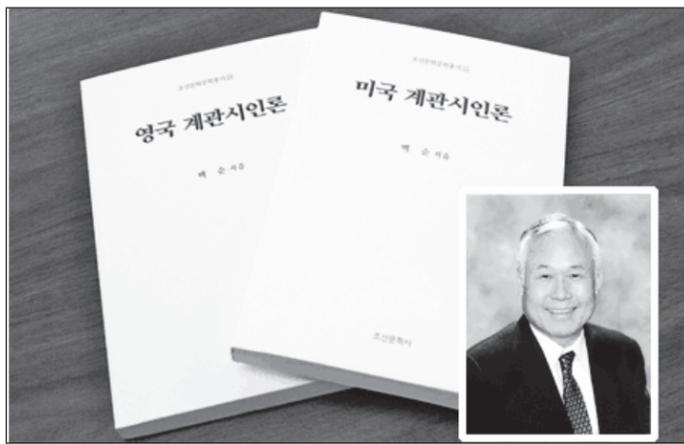
이번 모임에서는 가정사역 전문가인 금병달 목사의 커플관계 진단 및 상담방법 안내, 이혼 및 사별 가정 사역 등에 관한 공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대 목회자회는 아직 등록하

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울목회’는 지난 1998년 당시 LA에 소재한 유니온 교회 교육관에서 교단을 초월하여 서울대학교 동문 목회자들이 모여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목회자는 취지로 모임의 이름을 ‘울목회’라 명명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모임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미주 동창회보 주필 백순(법대 58) 박사

### 계관시인의 시 평론집 두권 출간

평론가, 시인, 수필가로 미주 동창회보 주필을 맡고 있는 백순(법대 58) 박사(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가 영국과 미국의 계관시인들의 시 세계를 조명하는 시 평론집을 최근 두권이나 펴냈다.

‘미국 계관시인론’과 ‘영국 계관시인론’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발행되는 월간 문학지 ‘조선문학’에 연재한 것을 묶어낸 것이다.

‘미국 계관시인론’에는 로버트 워렌, 리타 도브, 나타샤 트레드웨이 등 총 19명, ‘영국 계관시인론’에는 윌리엄 워즈워스, 알프레드 오스틴, 존 메이 스필드, 에드워드 휴즈 등 11명의 계관시인이 다뤄졌다.

백순 박사는 “영국과 미국 대표시인들의 시 사상과 시 철학을 한국과 미주한인 문학계에 알리는 차원에서 두 평론집을 출간하게 됐다”며 “당대의 종교와 철학, 사상을 이미지와 은

유로 표출한 시를 통해 인간의 참모습과 진리의 흐름을 터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계관시인은 1986년 이후의 회 도서관이 ‘미국 고문시인’에서 ‘미국 계관시인’으로 명의 변경한 이후 2014년까지 총 19명을 배출했다.

영국 계관시인은 15세기 이후 영국 왕실이 선정해 온 것으로 평생직이었다가 25대부터 10년 임기 직으로 바뀌어 현재 26대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저서에는 19세기 이후 계관시인 11명의 시 사상을 조명했다.

백순 박사는 모교 법대와 고려대 경제 대학원을 거쳐 오하이오대와 웨스트 버지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선문학, 자유문학, 화백문학 등을 통해 등단했으며 ‘그래도 주님 사랑 넘치면’ 등의 시집과 평론집 ‘형이상학 시인론’ 등을 펴냈다.\*\*\*

금성전기 미국 전 지사장 황석환(공대 66) 동문

### ‘캘리포니아 미션’ 출간



21개 지역 인디언 선교지 방문기

남가주에 거주하는 가톨릭 신자 황석환(공대 66) 동문이 ‘캘리포니아 미션(북랩 출판사·사진)’을 펴냈다.

이는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해변가를 따라 세워져 있는 21개 지역의 미션과 공소들을 직접 찾아가서 소개한 책으로 신자라면 꼭 한 번 읽어 볼 만하다.

황 동문은 평남에서 출생하여 경기중고등학교와 모교 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 1972년 육군 병기장교 중위로 전역하고 한국신국협회 주무검사원으로 근무

했다. 1981년부터 7년간 금성계전, 금성전기 미국지사장을 맡았다. 가주에는 1986년 이주하여 현재 전기제품 안전시험, 전기제품 수입자영업 등을 하고 있다.

황 동문은 “처음에는 관광하는 기분으로 250여년 전에 세워진 당시 스페인의 신부들(프란체스칸)의 헌신적 노력의 인디언 선교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가 점차 몰입됐다”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4년에 걸쳐 21개의 미션과 공소를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가서 보면서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 이 책을 완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황 동문은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미션의 역사와 관련된 40여권의 서적을 참조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이 책을 한 번 읽은 다음 가주의 남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이르는 21개의 미션을 둘러보는 것도 캘리포니아의 역사를 보고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적은 교보문고(www.kyobobook.co.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미주 지역에 거주 중인 오연천 전 총장

### K-Move센터 창업인재 대상 강연

김숙(사회과학대 70) 전 UN대사와 함께 “창업 인재들이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헌해 달라”

캘리포니아의 코트라 SV무역관(관장 나창업) K-Move 센터가 한국 유망 창업 인재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과 김숙 전 UN대사 등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지난 1월 5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진 K-Move센터의 이번 교육과정에는 모교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포항공대, 서강대, 울산대 등에서 선발된 8개 팀 19명의 창업 인재들이 창업 실무 교육, 법률이슈 워크숍, 창업 전문가들의 초청강연 등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콘텐츠로 이뤄진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9일과 12일 각각 이 같은 특별 초청강연

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1월 9일 강연을 펼친 오연천 전 총장은 팀워크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오 전 총장은 학생들에게 “‘가치창조 산업’을 한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으며 “창업을 포함,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겸손, 이를 바탕으로 한 팀워크,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오 전 총장은 특히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를 파악하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이 때 필요한 것이야말로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해나가는 가치창조형 인재



의 도전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창업을 위해 SV까지 온 20명의 한국 학생과 현지 UC버클리 학생 등 한인 청년 인재들에게 동기 부여를 전했다.

1월 12일 특별강연을 펼친 김숙(사회과학대 70) 전 UN 대사는 코트라 K-Move 창업교육에 참가한 창업인재 뿐 아니라 김 대사의 강연을 들으러 온 현지 한인 인재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창업을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K-Move센터가 한국 유망 창업 인재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특별강연 중이다.

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통일은 대내외적으로 젊은이들이 창조와 혁신을 위한 고민과 고뇌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젊은이들의 창업도 매우 좋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창업 인재들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사는 “젊은 세대들은 근시안적인 목표 수립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생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하면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 젊었을 때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여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창업교육 참가 학생들은 1월 16일 졸업 피칭 경연대회를 마지막으로 2주일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 \*\*\*



안호영(외교 75) 주미 대사

### 시민참여센터 및 한인학생들과 간담회

“통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안호영(외교 75) 주미대사는 지난 1월 7일 114차 연방의회 개원식 참가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시민참여센터 직원 및 한인학생들과 가진 20여 분간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정책을 밝힌 후 국내외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차원에서는 통일 후의 정치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며 국제 차원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석 시민참

←안호영(외교 75) 주미대사(가운데)가 지난 1월 7일 대사관을 방문한 시민참여센터 직원 및 한인 학생회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여센터 상임이사와 김동찬 대표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 컬럼비아대학원 한인학생회 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안 대사는 이날 학생들에게 “6일 국제학생회의(ISC) 초청으로 학생들과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미 학생회의(JASC)와 한미 학생회의(KASC) 관계자들도 만나게 됐다”며 “흥미로웠던 것은 JASC 미국 측 대표가 한국계 학생이었고 KASC의 미국측 대표는 중국계 학생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급변하는 다양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에는 7만 명의 한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10만 명 인도 20만 명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인구 수를 감안한 비율로 보면 훨씬 높은 것이다. 이 유학생들이 미 주류사회에서 두각을 발휘해 자리를 잡으면 한미 관계 협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가주 관악연대 양지훈(경영대 91) 동문

### ‘미국을 달리다:꿈을~이야기’ 출간

“인생은 꿈을 향해 떠나는 여행” 할리웃서 음악의 꿈 펼쳐 ‘미국을 달리다’ 출간

한창 잘 나가던 대기업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꿈을 향해 할리웃에 왔다. 팝의 본고장에서 뮤지션으로 다시 성공하고 싶어 대중음악을 전공했고, 이왕 그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미국일주 자동차 로드 트립’을 떠났다. 완전 혼자가 돼 2개월 간 28개 주 2만여 km를 달리고 나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림은 계속 변한다는 걸 알게 됐다. 싱어 송 라이터이자 할리웃 뮤직 프로듀서 양지훈(43) 동문이 지난 3년 간 그려온 그림이다.

올초 발매한 ‘JihoonOwl’s Project III’ 앨범 ‘Drean Sequence’의 타이틀곡 ‘할리웃 스카이’는 이러한 그의 꿈을 담은 노래다. 다음 편은 오는 3월 발매될 베스트셀러 작가 김수영씨와의 공동작사곡에서 이어진다.

부산 출신 양지훈 동문은 1990년대 초반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화제가 된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의 창단 멤버다. 2집부터 작사, 작곡 및 프로듀서의 활동을 시작해 한국에서 다수의 음반 제작에 참여했다.

이후 2001년 SK에 입사하면서 음악활동을 잠시 접은 그는 SK 구조조정 추진본부, SK 텔레콤을

거쳐 제일기획, 네이버(NHN) 등 대기업 컨설턴트로, 마케팅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나이 마흔이 되던 해인 2011년 초,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홀로 미국행을 택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바닥부터 시작해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실용음악 분야 세계적 명성인 할리웃의 뮤지션스 인스티튜트(MI)에서 보컬 및 독림아티스트 과정을 졸업한 뒤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싱 작업과 밴드활동하면서 뮤지션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의 그림을 더 채워나가기 위해 소원이던 미 대륙횡단을 결심했고, 지난 2013년 약 50일 간 자동차로 미국을 한 바퀴 돌았다. 이때의 경험을 담은 미국 일주 이야기가 랜덤하우스 코리아가 펴낸 ‘미국을 달리다: 꿈을 향해 떠난 지훈아울의 첫 번째 로드트립 이야기’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그 뒤에 숨어 살고 있는 수동적인 삶을 깨고 나오려면 홀로 온전히 인생의 주체가 돼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두려움과 대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로드 트립을 떠나보아야 한다”며 자기만의 꿈을 찾아 지지치 말고 달려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의 책은 www.bandibookus.com에서 만날 수 있다. \*\*\*

칠판화가 김명희(미대 68) 동문

### 맨해튼 API 화랑에서 개인전

맨해튼 그리니치 스트리트에 위치한 API 화랑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칠판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김명희(미대 68) 개인전을 열었다.

김명희 작가는 학교에서 쓰던 칠판 위에 오일과 파스텔로 인물과 정물 등 구상성이 강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낮익은 칠판 위에 자신의 경험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풍경들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 작가는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이번

API 화랑에서는 두 번째 갖는 초대전이다.

이번 초대전시회에서는 칠판 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개의 풍경을 그려낸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김 작가는 모교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활발한 전시활동을 해왔다.

전시 장소는 434 Greenwich Street, Ground Floor, New York, 212-343-2599이다. \*\*\*

→김명희 작가의 4개 작품 중 하나인 ‘봄 작품’





**워싱턴 DC 동창회**

**Westin Tysons Hotel서 송년총회**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태 사대 75) 송년 총회가 지난해 2014년 12월 30일 오후 5시 반경부터 버지니아 The Westin Tysons Hotel에서 열렸다.

12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상문(인문 82)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 총회에서 장경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래 보기 드문 규모로 많이 참여해주어 대단히 감사하며 앞으로 임기 동안 동창회 친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회장은 지난해에 있었던 행사와 사업, 그리고 2015년에 치러질 여러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이어 부회장 정종갑(경영 75), 회계 한정희(미대 81), 부회장 노상문(인문 82), 골프회장 정세근(자연 82), 총무 신원석(의대 82) 동문 등 앞으로 봉사해줄 새로운 임원진을 소개했다.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은 격려사에 결어들여 미주 동창회의 한국학 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박윤수(문리대 48) 초대 미주 동창회장은 영상 인사말을 보내왔다. 박 전 회장은 “아내의 건강 문제

로 워싱턴 DC 지역을 떠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마음만은 항상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며 “워싱턴 지역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동문들의 많은 활동을 바란다”고 말해 동문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본격 만찬 전 가장 원로인 방은호(약대 43) 동문의 건배 제의가 있었다. 방 동문은 가장 신참인 이영은(음대 04) 동문과는 무려 61년의 세대 차이를 보여 이목을 끌었다.

윤경의(공대 57) 장학위원장은 박영삼(전산 99·UMD 전산 박사과정)·이지현(영문 01·Jones Hopkins 국제관계 박사과정) 동문에게 각각 1천 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윤경의 장학위원장은 그동안 봉사해온 장학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후임으로 한의생(수의대 60) 동문이 추천돼 만장일치로 선임, 앞으로 4년간 장학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이날 여흥시간에 앞서 동문 및 동문 자녀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작은 음악회는 Flute 왕주현(음대 03), Cello 이영은(음대 04), 피아노 Richard Shin(Columbia대 음대)으로 구성됐다. 특히



↑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경태 동창회장이 함은선(음대 77) 전 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새로운 임원진으로 왼쪽부터 노상문(인문 82) 부회장, 한정희(미대 81) 회계·정종갑(경영 75) 부회장, 정세근(자연 82) 골프 회장, 신원석(의대 82) 총무. 경품 추첨에서 최중현 동문이 1등을 차지했다. 손재욱(가정대 77)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은 무려 4시간을 운전해 참석했는데 추첨에서 2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미주 동창회보 백순(법대 58) 주필과 한의생(수의대 60) 신임 장학위원장(오른쪽)



**동문 2명에게 장학금 수여**

윤경의(공대 57) 장학위원장(왼쪽)이 이지현(영문 01 왼쪽에서 두번째) 박영삼(전산 99) 동문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오른쪽은

장경태(사대 75) 동창회장. 워싱턴 동창회에서는 이 지역에 유학중인 동문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매년 장학금을 증정하고 있다.\*\*\*



↑ 의대 동창회 문대옥(의대 67) 전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다. ↑ 이날 최고 원로 방은호(약대 43) 동문이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Richard Shin은 신원석(의대 82) 총무의 장남으로 수려한 인상으로 이목을 끌었다. 작은 음악회 후 동문과 가족들은 전문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라인 댄스와 볼룸 댄스 파티를 즐겼다. 댄스 파티 뒤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닌센스 퀴즈, 재치 퀴즈 등의 순서가 있었다. 또한 고급 선물을 추첨하는 raffle ticket 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미주 의대 동창회의 문대옥(의대 67) 전 회장은 델라웨어에서 무려 2시간 30여 분, 손재욱(가정대 77)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은 필라델피아에서 무려 4시간이 넘는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고 이 행사에 참여해주어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DC 동창회는 2월 구정(舊正)을 맞아 우리 고유 명절을 기념하는 ‘구정 잔치’를 21일 11시부터 우래옥에서 벌인다. \*\*\* <편집주간>

←이날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Flute 왕주현(음대 03) 동문과 Cello 이영은(음대 04) 동문이 연주 중이다. 가운데는 신원석(의대 82) 워싱턴 DC 동창회 총무의 장남 Richard Shin이다.



휴스턴 동창회

통포인트 서울가든에서 연말파티

휴스턴 동창회(회장 이호성·공대 72)가 지난 해 12월 20일(토) 연말파티를 통포인트에 위치한 서울가든에서 가졌다.

53학번부터 04학번까지 모두 47명의 동문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여, 2014년 동문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4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행된 동문 가족들의 소개에 이어, 이호성 회장이 주재한 총회를 가졌으며, 새로운 스타 사회자로 등장한 조인성·이용석 동문(공대 04)의 '사회자는 왕이다'를 모토로 한 1부 행사, 그리고 이어 2부에서는 구자동(상대 77) 동문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노래자랑의 시간을 가졌고, 끝으로 교가 제창과 함께 모임을 마쳤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올해 건강이 안좋아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루이지애나 강영빈(문리대 58) 동문의 방문이었다.

강 동문의 방문은 참석한 모든 동문과 가족들을 기쁘게 했다. 강 동문의 인사말 가운데 "올해 건강이 안좋았으나, 얼마 전 동문들이 방문해준 덕분에 이렇게 몸이 좋아져 참석할 수 있었다"고 말할 때는 동문회의 존재 이 유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특히 강 동문 부부는 동문들과 함께 하고자 손수 재배한 맛있는 사우마 곶을 수확해서 가지고 와 모두를 감동시켰다.

총회에서는 지난 2014년 크게 봉사해준 임원들 - 이호성 회장,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왼쪽부터 전유택(공대 60)동문 부인 전영자님, 최인숙(약대 76)동문, 한성수(문리대 63)동문, 이재정(미대 73)동문이 속담 맞추기 게임 중. 가위바위보 게임을 즐기는 김기준(공대 61)·김태훈(공대 57)동문. 사진을 맡아준 김철성 동문이 선정한 베스트 댄스 커플 이진현(의대 67)동문 부부. '바람이 멈추어다오'를 코믹하고 멋드러지게 불러주는 황찬주(인문대 84) 동문. 패기있게 1부를 진행중인 이용석(공대 04)동문.

최인섭(공대 75) 부회장, 탁순덕(사대 57) 재무, 김건호(공대 91) 총무 - 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새로 선출된 김동수(의대 60) 이사장과 이진현(의대 67) 동문을 소개하였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최인섭(공대 75) 차기 회장이 만장일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부회장으로 는 구자동(상대 77) 동문이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이사장과 회장의 임기를 2015년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을 동문들의 찬성으로 결정했다.

이어 마련된 1부 여흥의 시간에는 참석자 중 막내인 이용석(공대 04) 동문이 패기 넘치는 진행으로 초성영화 제목 맞추기, 가위바위보 게임, 이구동성 사자성어 맞추기, 속담 맞추기 등의 게임을 팀게임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시(詩) 구절로 시 제목을 맞추는 게임은 동문들에게 아름다운 여러 시들을 다시 한 번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



↑ 지난 해 이사장으로 봉사해준 박유미(약대 62) 동문이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호성(공대 72) 동창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참석해준 강영빈(문리대 58) 동문 부부를 소개하고 있다.

게 해주었다.

2부에서는 구자동(상대 77) 동문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동문 가족들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어울리는 음악 향연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 단골 가수인 이진현(의대 67) 동문의 부인 박용수님, 김태훈(공대 57) 동문, 김동수(의대 60) 동문의 부인 양정순님, 조시호(인문대 59) 동문, 이

호성 회장, 황찬주(인문 84) 동문 등과 더불어 이용석(공대 04) 동문, 최인섭(공대 75) 동문, 전유택(공대 60) 동문, 조희삼(공대 61) 동문, 정공현(공대 84) 동문 등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2부가 끝나고 모든 참가자가 함께 교가 제창을 하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 연말파티를 마쳤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필수 식생활용품 외에, 박유미 동문(약대 59)께서 와인과 건강양말을 선물로 제공해 주었으며, 사진은 필자 외에도 김철성(공대 67) 동문, 이용석(공대 04) 동문 등이 수고해주었다. \*\*\*

<글·사진 = 김건호(공대 91) 휴스턴 동창회 총무>





↑ '남가주 서울대 중앙지역 클럽' 회원들이 지난 해 12월 16일 발족해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남가주 동창회

### 중앙지역 클럽 모임 새롭게 결성

왠지 클락할 때 어딘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이 통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있다면 잠시나마 행복하지 않을까? 게다가 음향 좋은 시스템에 노래 한 곡까지 할 수 있다면 삶에 엔돌핀 축진제가 아닐 수 없겠다.

지난 해 12월 16일 발족된 '남가주 서울대 중앙지역 클럽(위원장 김병연·공대 68)' 동아리가 바로 이 모임이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이서희·법대 70)는 임기 중 중점 목표로 지역클럽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는 남가주 지역을 5개로 나눠 일종의 지역기반 소동문회를 '클럽'이라 부르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 클럽은 관심사나 비즈니스 목적, 혹은 취미 모임과는 다른, 가까운 지역 동문들의 모임으로 향후 동문으로서의 친목을 기반으로 서로 격려와 도움이 되는 행사를 지향한다.

"동문들이 모여라. 인생이 무엇인가 나와서 놀자" 우선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녹이고 저녁을 푸짐히 먹은 다음 너 한 곡, 나 한 곡조에 흥이 나면 춤도 춘다. 아무 부담없이 순수한 학창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딱 하루 함께 모였는데 서로의 마음은 수십년을 같이 한 동지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남가주 서울대 동문 사회에서는 활발한 동아리 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골프 동아리, 산악등반 동아리, 자전거 철벽지 동아리, 사진 동아리, 와인어리 동아리, 영화감상 동아리, 바둑 동아리, 여행 동아리 등 등. 동아리가 많아 외로워 못살겠다는 동문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서희 동창회장의 동아리 사랑은 상임 이사들의 뒤를 이어 더욱 발전해 가고 있다. 이날 이서희 회장은 공대 동창회 전 회장이며 현재 '작가의 집' 대표이기

도 한 김병연(공대 68) 중앙클럽 위원장에게 금일봉과 고급와인을 선물했다.

'작가의 집'은 IA 한인타운에 있어 동문들의 '오가는 쉽터'로 필자가 이롭지 않다. 안 주인(김문희 시인)도 마음 넉넉하고 푸짐한 손으로 쉬기에 안성맞춤이다.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닌, 항상 열려 있는 문이기에 저녁에 한 번 기웃거리 볼만하다.

김병연 클럽위원장이 주축한 이날 지속적인 모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아울러 12월에 생일이 있는 동문을 위한 파티와 장기자랑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서희 동창회장은 "운동도, 취미도 없는 동문들이 대규모 총동창회에서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클럽(소동창회)을 중심으로 자주 만나 함께 이민생활을 개척해가는 기회를 갖고 싶었다"며 "가족 단위로 서로 돕는 동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Winery 동아리

남가주 Winery 동아리 모임이 지난 해 12월 21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해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카페방에서 오붓하게 열렸다.

이날 김기형(상대 75) 위원장은 꽃과 와인을 준비하여 더욱 분위기를 품위있게 만들었다. 게다가 향기가 짙은 Rosemary를 집에서 잔뜩 따와 실내의 향기를 한층 그윽하게 해주었다.

꽃을 장식해서인지 살아 숨쉬는 분위기는 정말 와인을 마시지 않아도 취할 정도였는데 최고급의 와인까지 한 잔 곁들이니 이날 밤을 새도 아까울 정도였다.

와인 한 잔의 뜨끈함은 마음을 녹이니 원수도 사랑으로 감싼다고나 할까. 그러니 와인 동아리는 미움이 없다.



↑ winery 동아리 회원들이 모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오른쪽 첫번째가 김기형(상대 75) 위원장이다.

쟁하는 크리스탈 잔의 야릇한 약기 소리는 발그스름하게 그을린 빵과 잘 어울린다. 와인속에 비치는 자신에 대한 추억의 모습을 상상하기 좋아하는 조용한 분들이라면 이 모임이 제격일 것이다. 추억을 쌓으며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나만의 아늑함, 시가 절로 나오는 마음의 여유, 참으로 좋은 시간이다.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김문희 시인(공대 동창회 김병연 전 회장 부인)이 시를 읊는다. 멀리서 참석한 Denysepyo(winery 경영), 김상찬(문리대 66)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최진석(법대), 이영일(약대), 김병연 내외분, 홍선애(남가주 미대 동창회 전 회장), 양승현(미대)의 친구 2명 등 참석한 12명이 숙연히 감

상하며 새 해를 맞기 위한 마음을 준비한다. 크리스마스 파티인데 조용만하면 어떡하나? 다같이 한 곡조씩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음대 출신들이다. 동아리는 영원한 친구들이다.\*\*\*

<글·사진 =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 동창회장단 기독상담소에 후원금

남가주 동창회 회장단이 지난 해 12월 23일 사회봉사 단체 기독상담소(소장 염인숙·생활과대 78) 사무실을 방문,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 문화행사 및 이웃돕기 산타클로스 운동을 위해 퀸메리호에서 가졌던 연말

↑ 왼쪽부터 조무상(법대 70) 동문, 염인숙(생활과대 78) 소장, 이서희(법대 70) 회장, 김병연(공대 68) 클럽위원장.

송년회 모임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한 것이다.\*\*\*



남가주 상대 동창회 & 법대 동창회

### LA 용수산에서 각각 송년 행사

남가주 법대 동창회와 상대 동창회가 지난 해 12월 19일과 20일 LA의 한식당 용수산에서 각각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상대 동창회(회장 김종극) = 지난 해 12월 20일 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LA의 한식당 용수산에서 송년행사를 가졌다. 이날 동문과 가족들은 지난 2014년 시간을 떠올리며 즐거운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법대 동창회 = 지난 해 12월 19일 LA의 용수산 한라홀에서 2014년 연말 송년회를 겸한 총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14년 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2015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 회장으로 채규황(법대 68) 동문을 선출했다. \*\*\*



남가주 동창회 관악연대

### Garden Sweet Hotel서 송년회

‘해결잔치’에 120여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대박’... 사랑과 우정이 듬뿍한 하룻밤 즐겨

남가주 동창회 관악연대(연대장 고정범·법대 79)의 송년 행사인 ‘해결잔치’가 지난 해 12월

20일 LA Garden Sweet Hotel에서 열렸다. 동문과 가족이 합쳐서 120여 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송년 모임이었다. 고정범 연대장의 세심한 배려로 아이들의 놀이 코너도 따로 마련

됐고, 케를 전문 중창단의 멋진 분위기 띄우기도 좋았다. 관악연대만의 큰 자랑거리인 켈리 프라이즈의 훨씬 노련해진 공연도 참석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많아서 반가웠다. 모두 모두 뜻깊은 송년 보내고 2015년에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원하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남가주 관악연대는 동승동 캠퍼스에서 현재의 관악 캠퍼스로 이



↑ 고정범 연대장이 신혜원(사대 81 왼쪽) 전 연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전한 뒤 부터의 학번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 지난 2003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먼저 결성 조직됐다. 이 해 열린 남가주 관악연대 첫번째 총회에는 60여 명(관악 캠퍼스 설립전 선배들까지 7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2008년 말 경에는 23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모임은 이후 선배들이 젊은 동문들의 모임에 큰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부어 오늘 날까지

남가주 관악연대가 미 전역의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남가주 관악연대는 친목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관악연대는 뉴욕 동창회에 이어 지난 해 시카고 동창회에서 도 조직된 바 있다. 남가주 관악연대 활동은 차기민(공대 85)동문이 지난 6월 28일 워싱턴 DC 제23차 평의원회의에 참가해 모범 케이스로 활동을 발표한 바 있다.\*\*\*



**특키 마운틴 동창회**

**Perkins Restaurant에서 총회**

특키 마운틴 동창회(회장 송요준·의대 64)가 지난 1월 10일(토) 덴버에 위치한 Perkins Restaurant에서 신년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총회에서는 신입 회장으로 선출된 필자(송요준)가 사회를 맡아 개회선언을 한 뒤 사업 보고와 제출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토의를 한 뒤 표결에 붙였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사업보고 = 회의에 앞서 한국어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영어교육과 기독교 전도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 편으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과 이승만에 대한 저서 'Japan Inside Out' 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유광현(문리대 58) 원로 동문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 사업보고에는 '대한민국 사랑회(회장 김길자)'에서 추진

하고 있는 '건국절 제정' 캠페인에 온라인으로 서명하는 일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문 회칙 = 필자가 작성한 특키마운틴 지역 동창회 회칙을 각 동문들에게 분배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을 정식 회칙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감사 및 자문위원 = 공식 중인 감사의 직분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토의 결과 이석호(공대 66) 직전 회장이 맡도록 결정됐다. 김낙제(농대 56) 동문이 자문위원의 직을 이미 맡은 사람이 다른 직책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표결에 붙인 결과 김낙제 동문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다.

▶동문 배우자의 자격 = 이희삼 동문이 동문 배우자의 동문회 내에서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 동문의 비동문 배우자는 준회원으로, 동문의 동문 배우자는 정회원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준회원은 회비가 면제되는 대신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치 않는 것으로 정했다.

▶동창회 영어 명칭 = 서울대 특키마운틴 지역 동창회의 영어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Rocky Mountains Chapter, Inc(약칭 SNU-AARMC.

▶동창회 모임 = 동창회 모임은 막연한 친교 목적의 모임만이 아닌, 어떤 유익한 Topic을 정하여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 세미나나 토론 등을 하는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동문회 외의 인사들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도록 하자고 결의했다.

▶임원 선출 = 차기 모임에서 공식 중인 나머지 임원을 선출토록 하자고 협의했다.

▶사업계획 = 다음 모임에서 올 해 사업계획을 구성토록 한다고 결정했다.\*\*\*

**<글·사진 = 송요준(의대 64) 동창회장>**

**뉴잉글랜드 동창회**

**투병중인 최형철 동문돕기 모금**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음대 76)가 오랜 동안 투병 중인 최형철(공대 73·사진, 원 안은 장수인 회장) 동문 돕기를 위한 동창회 차원의 모금에 나서서 성금을 모금해 지난 1월 5일 전달했다.

최형철 동문은 췌장암으로 투병 중으로 부인마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이에 동창회 동문들이 모금 운동에 나서서 우선 3천 100달러와 그 밖에 생활용품들을 모아 최 동문 자택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 것이다.

동창회 임원진은 두 내외가 그동안 차편이 없어 절실하던 물품들, Juice, milk, detergent, 한국 식품류 등을 구비해 드렸다. 이 뿐만 아니라 해산물이 그렇다 하여 대구탕도 끓여드리는 봉사를 해주었다.

이에 최 동문과 부인께서는 너무 너무 감사해 했으며 모두가 너무 안타까운 사연과 실제 상황에 가슴이 멍멍해졌다. 말로 표



현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이다.

동문애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준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의 선배들 덕분에 동창회에서 좋은 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 한 해도 함께 좋은 시간과 마음 나눠주시길 바란다.

최형철 동문을 후원해주신 동문들은 윤상래·김은한·정인석·오세자·김경석·박진아·조진행·최홍균·이(정)영인·정태영·김선호·이재형·송윤정·장용복·윤선홍·안동희·이강원·김선혁·장수인·김문소·김만옥·이의인 동문 등이다.\*\*\*

**<글 = 장수인(음대 76) 동창회장>**

**보스톤 동창회 동문들에게 감사하며**

**최혜현(Ms. 최형철)**

지난 1월 5일 오후, 도어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상큼한 모습의 보스톤 서울대 동창회 장수인 회장 일행이 물건을 한 보따리 안고 들어 오셨습니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 외출이 불편한 것을 알고 시장을 한 보따리 바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부엌으로 들어가 남편이 먹고 싶어한 대구탕을 끓여 주며 동문들이 모아주었다는, 너무도 소중한 성금 3천 100달러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순간 감격하여 말문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모교 인연으로 모아진 성금 속에서 참여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느껴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 남편에게 다가가 성금을 보여주며 “당신의 모교 분들도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 어서 병을 털고 일어나라”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2014년은 악몽의 해였습니다. 운명의 신은 우리 가족의 17년 고통도 부족했는지 또 한번 고통의 시련을 주었습니다. 17년간 도요타 자동차 사고 소송을 중지부 짚기 위해 7월 8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남편에게 9월 중순 황달

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1997년 6월 30일 일어난 나의 교통사고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17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세 아이들을 돌보아 온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 시한부’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날부터 우리 가족은 패닉에 빠지고 남편이 하던 일은 고스란히 딸 아이에 넘겨져 딸 아이는 하루가 멀게 울며 엄마와 아빠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들도 학교를 쉬고 집안 일을 돌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도요타는 이 케이스를 없애라고 법원에 모션을 내고 우리는 케이스를 없애지 않고 자료를 보충해서 새로 모션을 내겠다고 맞붙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청문회를 했습니다. 남편은 키모 머신을 어깨에 매고 법정에서 출두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번엔 운명의 여신은 우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판사는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잠시 쉬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수술후의 방사능과 수 차례의 키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30년도 넘게 간 병원은 늘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멀쩡하여 간병을 받아도 견디기 힘든 투병생활이지만 아내의 간병 없이도 소리없는 남편의 투병생활은 또 한 번의 감동 스토리일 것입니다. 진실로 남편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과 바꾸는 일에 0.1%의 주저함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현재의 우리 가족에게 고통이란 아주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때론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격려의 편지와 성금에 우리 가족은 숨죽여 울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독하다는 암세포도 사랑과 진실 앞에서는 맥을 못추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나는 이 소박한 진실을 믿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보스톤 지역 서울대 동문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며 이러한 마음의 모음은 기적을 이루리라고 믿어봅니다.

보내주신 성금은 변호사비와 남편의 건강 회복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수인 회장단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췌장암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진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aeyun Choi, 50 Memorial Rd, APT 18-C Somerville, MA 02145 Tel.781-861-6308.yellowchoi@gmail.com. \*\*\*

<이색등문>마라톤 풀코스 93회 완주 박충차(치대 62)박사

# “아내와 함께 올해 안에 마라톤 100회 완주 채울 겁니다”

## 세계 어느 대회든 부인과 동반참가

마라톤 풀 코스는 42.195 km, 26.37 mile이다. 팔팔한 20대라도 자주 뛰어본 사람이 아니면 완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만 60세로 처음 달리기 시작해 74세인 현재 부부 동반 마라톤에서 무려 93회 완주기록을 가진 동문이 있다. ‘마라톤 교주’라 불리고 있는 서울 남대문 치과 전 원장 박충차(치대 62) 박사(치의학)가 장본인이다. ‘건강에 마라톤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게다가 박 동문은 부인(안정자·70·이화여대 의대 산부인과 명예교수)과 함께 세계의 유명 마라톤 대회도 모두 참가해온 것은 동문들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마라톤대회가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참가한다’는 것을 신조(信條)로 삼기도 했다. 부부 연령을 합하면 144세로 종종 ‘부부합산 최고령 참가자’ 상을 받을 정도다. 일반인을 훨씬 뛰어 넘는 초인(超人)적 부부가 아닐 수 없다.

‘행복한 결혼은 만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부부일심동체가 되기나 긴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한 프랑스의 작가 모루아의 말을 연상시키는 부부다.

지난 해 11월 뉴욕 마라톤 대회 참가 후 워싱턴 DC를 관광한 박충차 박사와 부인 안정자 명예교수를 편집주간이 만나 보았다.

“마라톤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대회건 참가하신단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뉴욕·보스턴·시카고·런던·베를린·동경 마라톤 등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해외대회 36회 참가했습니다. 한국내 대회 57회를 합치면 총 93개 대회에 참가해서 풀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처음 마라톤을 시작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젊어서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건강이 늘 걱정스러웠지요. 그러던 차 공대 출신 동기생이 마라톤을 적극적으로 권했어. 나이들어 가족들고생시키지 않으려면 하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지난 2001년 4월 환갑을 맞아 문득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서 달리기로 늘 입상하던 생각이 났어요. 그후 6월 6일부터 달리를 시작해 그 해 10월 인천일보 주최 10km부문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이듬해 하프 마라톤, 이후부터 풀 코스에 나가게 됐으니 나름대로 진도(?)가 꽤 빨랐던 셈이 아닐까요. 허허허.”

“처음 시작한 분 중에는 중도에 그만두는 분이 많은데요.”

“소식적부터 치질(치루)이 떨어지지 않는 고질병이었습니다. 때로는 2-3주씩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애를 먹은 데다가 40대 때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문에 늘 팩을 부착하고

다녀야 했었는데 마라톤을 시작하고 난 뒤 3년만에 치루가 싹 없어진 것이었어요. 이 분야의 료계 전문인들도 신기해 할 정도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감기는 물론 질병이라곤 아예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방주사는 커녕 병원에는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건강에 마라톤처럼 좋은 운동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지요.” (이때 부인이 “저 이는 그 이후부터 ‘마라톤 교주’가 됐어요”라고 웃으면서 귀띔했다.)

“부인께서도 같이 마라톤을 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한데요.”

“지난 1997년 11월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일방통행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승용차에 반했지요. 그 사고로 두개골과 비장파열에 내출혈, 경추 및 골반 골절 등으로 거의 가사상태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혈액을 무려 50병이나 수혈했을 정도였으니까요. 17일간 중환자실에서 꼼짝을 못하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3개월여만에 퇴원했어요.

# “지금까지 국내 대회 57회, 해외 대회 36회 참가해 도합 93회 완주했어요. 아내는 나더러 ‘마라톤 교주, 나는 아내더러 ‘마라톤 전도사’ 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원래 후유증이 심해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할 지경이었습다.”

“그런 상황에서 마라톤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남편이 마라톤의 건강 효과를 확인하고 나서 내게도 마라톤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건강상태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건강을 회복하고 보자는 생각에 처음에는 100m, 300m, 500m, 2km 달리기 등 순차적으로 늘려 나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자신감이 붙어서 5km 마라톤 참가를 목표로 거리를 늘였고 10~15km로 늘이고 주말이면 한 번에 10~20km씩 마라톤을 즐기게 된 겁니다. 마라톤이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 뿐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주변의 어떤 분도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요. 이제는 교통사고 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라고 자신합니다.” (이때 박 동문은 “아내는 ‘마라톤 전도사’가 됐어요”라고 응수해 주변을 미소짓게 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랄까요. 완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007년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54분이 최고였습니다(마라톤을 시작하지 6년만에, 더구나 66세의 나이로 정규 국제대회에서 3시간 54분은 대단히 빠른 기



↑왼쪽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10일 아테네 마라톤 결승점을 통과한 뒤의 박충차 박사와 부인 안정자 명예교수, 오른쪽은 지난해인 2014년 9월 부부의 베를린 마라톤에서의 달리는 장면. →박충차 박사 부부가 뉴욕 마라톤 대회 참가 뒤 버지니아의 Luray Caverns를 관광했다.



록이 아닐 수 없다. 부인 안정자 교수는 이날 4시간 19분 걸렸다고 했다.)

“가장 힘들었던 때라면 어떤 대회를 들 수 있을까요.”

“지난 2013년 11월 10일 아테네 마라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회가 열렸던 곳 지명이 바로 마라톤의 발상지 ‘마라톤’이지요. 참으로 의미가 깊은 지역에서 열린 대회였는데 나와 아내가



가 1명 나왔지요. 절대 무리는 금물입니다.”

“연령상으로 자녀들 반대로 심할 텐데요.”

“나이가 나이만큼 주변에서

이가 나이만큼이니까요.” (한국에는 ‘100회 마라톤 클럽’이 있다. 지난 1999년 5월 설립된 아마추어 마라토너 모임으로 42.195km의 마라톤 코스 공식대회 완주 경력자만 회원이 되는 명예의 전당인 셈이다.)

“풀 코스에 나서려면 평소 연습량이 중요할 텐데요.”

“서울 목동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한 번에 10km정도씩 매주 4-5차례 부부가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 여름철 무더위에서도 물론이구요. 섭씨로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도 나가 뛰다 보면 땀이 털모자 끝으로 흘러내리다가 얼어 고드름이 달리곤 합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뛰고 난 후 샤워를 하고 나면 그처럼 시원한 것이 없지요. 경험자들만이 그런 기분을 이해할 겁니다.”

운동철학자 조지 쉬언은 ‘한낮에 1시간 동안 달리를 할 때면 나는 그 시간 내가 영원한 신비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전혀 모르는 자아를 찾아 나선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된다’고 했던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날은 사실 뛰기가 어렵지요. 마라톤이라는 것이 달리는 과정의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인내를 해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속으로 외치게 됩니다. 나도 역시 인간이니까요. 하하하.”

박충차 박사부부 해외마라톤 참가 ▶미국 = 보스턴·뉴욕·시카고·워싱턴·하와이·신시내티 등 9회(도시별 중복 참가) ▶일본 = 동경·이브스키·삿포로·치토세·키슈쿠지구마노 등 7회 ▶중국 = 단둥·상해·북경·하문·내몽고 등 7회 ▶독일 = 베를린 등 3회 ▶홍콩 = 2회 ▶싱가폴 = 2회 ▶아테네 ▶런던 ▶벤쿠버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총 36회 참가.\*\*\* <이기준 편집주간>

모두 너무 힘들어 5시간 35분이 걸렸지요. 하지만 완주 뒤 장소도 장소인지라 그렇게 흡족할 수 없었습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 중 에피소드도 종종 있었을 텐데요.”

“지난 해 9월 베를린 마라톤 대회 도중이었어요. 나보다도 두 살 연상인 한국인이 참가했는데 27km지점 쯤에서 갑자기 앞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참가했던 우리 한국인 동료 5-6명이 부축하며 끝까지 같이 힘을 내자는 뜻에서 ‘아리랑’을 합창하며 끝까지 완주했지요. 그런데 결승점을 통과한 뒤 그 분이 느닷없이 정색을 하며 ‘나는 전혀 괜찮았는데 다들 왜 그랬어?’ 하지 뭐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모두들 할 말을 잊었습니다.”

“무더위의 한 여름철 대회도 있어 사고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제30회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는 벌써 32도의 무더위에 개최됐어요. 협소한 장소에다가 무려 4만5천명이나 참가했는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35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12시경 대회가 중단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예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조깅하듯 했지요. 덕분에 5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겠어요. 시카고 대회에서는 2011년 대회에서도 54명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사망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절대 기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만치 ‘무리는 절대 금물’이라는 게 기본이죠.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마라톤 덕을 톡톡이 본 아내라 지금은 저보다 더 마라톤을 좋아하고 있을 정도지요. 그만큼 마라톤이 너무 좋아 우리 부부는 자식들에게 ‘(병으로)누워 있다가 죽느니 차라리 달리다가 죽을 것’이라고 해두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나에게 부작용 없는 약과 같다. 울적할 때 달리면 웃으며 집에 올 수 있으니까. 원하는 것은 도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한 미국의 여성 마라토너 페냐 크라운(Pena Crown)의 말이 연상되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하실런지도 가능할 수 없겠네요.”

“우선 풀 코스 완주는 100회까지가 목표입니다. 지난 해까지 93회 참가했으니 앞으로 7회 남았어요. 올해 2월 15일 일본 교토(京都) 대회, 5월 31일 중국 단둥대회, 7월 5일 내몽고 대회 등에 참가하고 국내에서는 동아 마라톤, 바다 마라톤, 한강 서울 마라톤, 춘천 조선 마라톤에 참가하면 100회가 됩니다. 우선 마라톤 100회 완주는 채워보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풀 코스 완주는 ‘반드시’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로 약간 자제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부도 나



관악세대/Acro광장

# 올해 나를 붙잡아줄 두 단어

**이원영(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나이가 들면 한국으로 역이민해 살고 싶다는 마음을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힘든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갈수록 양극화로 치닫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흡수하거나 배척하려는 두 가지 마음만 팽배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다양한 가치관과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고,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야단치고 배척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적 혹은 아군으로 딱 갈라집니다. 친구나 가족 간에도 이 문제로 의절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주는 너그러운 분위기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내 말 좀 들어봐'라는 코너가 있더군요. 새해에는 "내 말 좀 들어주마"라는 말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남북 정상들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관계 개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신뢰와 화해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대화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잘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퍼지고 증오의 감정이 사그라진다면 분단 때문에 생겨난 날선 감정들도 부드러워지겠지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도 예상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두 단어를

붙잡고 한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성장'과 '보람'입니다. '성장'은 저 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보람'은 타자,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박사가 쓴 책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통나무 위에 개구리 다섯 마리가 앉아 있다. 그 중 네마리가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

아들이 "한 마리"하고 소리치자 아버지는 "아니지. 다섯 마리지.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라고 말합니다.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맥스웰 박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실천과 도전정신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타성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꾸짖습니다.

'보람'의 중요성은 법륜 스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사람들의 행복론은 90%가 복을 받는, 즉 내가 받는 쪽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더 잘살게 되어도 늘 걸신들린 듯 정신적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주체적으로 베풀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려면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보람이 있으면 힘들어도 행복하다.'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행복은 잠시 기쁨을 줄 수는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 수는 없다 고 스님은 설교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처음에 섰다는 것은 하얀 도화지를 펼쳐 놓고 마음껏 그림을 그리겠다는 설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순결할 때도, 가장 견결할 때도 지금입니다. 그런 마음이 스러지지 않고 토실토실 과실이 영글면서 한해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과 '보람'이 함께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려다 빈손 털지 말고 복을 많이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 새 동지



**강신용(사대 73) CA**  
**회계사(CPA) · 수필가**

그리피스 천문대는 LA의 명소다. 추억만리 떨어진 별들이 우리의 눈길을 기다리는 곳이다. 채수 좋은 밤이면 기다란 망원경으로 지구의 형제 같은 금성이나 화성도 볼 수 있다.

하늘의 별보다 더 신기한 것은 바다까지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이다. 천문대 아래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네온사인 사이로 취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한적한 길을 달리는 불빛도 보인다.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밤이 깊어지면 하얀 별빛 따라 멀리 공짜로 요술나라 구경 가는 시간이 된다.

대낮에 보는 천문대는 나무 위의 새집 같다. 아침 잠에 일어난 산기운이 새들을 깨운다. 천문대 오솔길로 이른 등산객의 발걸음이 가볍다. 한동안 테니스장에 발걸음이 뜬 동호인이 등

산에 폭 빠져 산다고 자랑이다. 당뇨에도 좋고 근육도 생기고 땀은 몰라도 일하는 데 생기가 돈다고 산행을 권한다. 앞산 뒷산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의 산사랑은 여기서도 가히 놀랄 만하다. 오죽하면 새들이 집터가 무너져 내릴까 걱정이라고 한다. 하늘 밑에 산이고 나무 위에 새집처럼 커다란 천문대도 작기는 매양 똑같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한다. 철새는 바다 건너 대륙 건너 별자리 봐 가면서 수만을 여행한다. 하늘에도 새길이 있나 보다. 백날이 지나도 누구하나 손잡을 수도 없는 외로운 여정이다. 고생 끝에 복이라고 희망과 꿈이 숨 쉬는 유도 피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의 주위를 맴돌며 사는 터줏대감 같은 텃새도 있다. 멀리 갈 이유도 없이 날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곳곳하게 날아가는 철새의 모습에서 삶의 향기가 피어오른다.

잠자리가 물새에게 자기도 새라고 우긴다. 날개가 있고 위로 아래로 날 수 있고 공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으니 자기도 새라고 덤빈다. "나도 새다"라고 혼자서 외친다. 새가 잠자리에 게 묻는다. 너는 알에서 태어나니, 그래 나도 알에서 깨어났어. 그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뼈라도 있지. 뼈는 무슨 개 뼈다귀 같은 소리가야. 뼈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자기도 새라고 까분다. 옆에 앉은 물새가 집안에 알만 남겨두고 그냥 옷

고 외출한다. 맞아 너도 새야. 요즘은 제멋에 사는 세상이니 까.

알은 새의 세상이다. 동지 안에 알짜배기 형제들이 가득 차니 물새가 죽는 듯이 품는다. 날지도 먹지도 못하는 물새가 잠자리 눈에는 애처로워 보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깨지는 알속에서 생명의 환호성이 들린다. 새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잠자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이웃에서 멀어지고 있다. 알속의 세상에서 동지 밖의 하늘로 드높이 날아본다. 새끼 새들은 낯선 눈빛으로 옆집 잠자리에게 인사한다. 세상에는 별난 새도 많다고 고개를 가우뚱 흔든다.

하늘 길에 하늘 집을 짓는다. 제 아무리 사람이 큰 집을 지어도 산 아래 집이고 제 아무리 재물을 퍼부어도 새 동지만도 못한 것이 우리네 집이다. 새처럼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어느 집 처마 밑이건 소나무 꼭대기 동지라고 한들 그들은 알고 있다. 하룻밤을 머물고 갈 곳을. 두 다리 펴고 하늘을 지붕 삼고 별빛을 친구 삼는 안식처를 찾아간다. 아래녁 불빛이 웬지 불안하다.

마음 속에 동지를 만든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한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뜻이다. 한 지붕 한 동지 이야기기 잠자리 동네에 시끄럽다. 꿈길의 요술나라 같은 동지가 그림다.\*\*\*

# 낙엽이 떨어진 후보이는 것들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필자가 살고 있는 미 동부에 제대로 겨울이 찾아왔다. 머리는 '겨울은 추워야 제 맞이지'라고 말하는데 마음과 몸은 '언제 추위가 누그러지나'라고 속삭인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왕국의 위세를 뽐내는 듯 부는 메서운 칼바람은 수은주 온도를 영하로 뚝 떨어뜨린다. 시리도록 푸른 겨울 하늘 아래 앙상한 가지들을 드러내고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소임을 다 마친 듯 당당히 서 있다.

지난 주는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선물처럼 주어져 '얼씨구나'하고 쉼에도 올랐다. 화려한 꽃의 향연도, 초록빛 신틱의 싱그러움도, 영화 속 단풍의 황홀함도 없는 겨울산에 큰 기대없이 올랐다. 그런데, 그곳에는 겨울나무만이 빛어낼 수 있는 숨겨진 풍경들이 깨달음과 함께 마음에 피어올라 이 곳에 함께 나눈다.

쉬는 날 산을 오르기 시작한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상담대학원에서 배운 것은 상담이론과 기술 뿐 아니라 상담사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을 돌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편견없이 내담자를 대할 수 있는 '자기 돌봄(self-care)'의 중요함이다. 산을 오르는 일이 내게는 그런 '자기 돌봄'의 작업이다. 내담자들의

삶의 애환, 눈물, 아픔, 억울함, 슬픔, 상처들을 배낭처럼 지고 올라가 하늘과 맞닿은 높은 산위에 던져 놓고 내려온다.

그러나 추위를 그리 즐겨하지 않는 탓에 겨울산에 오른 기억은 별로 없다. '추워서'라는 표면적인 이유 저변에는 '아름답던 낙엽이 지고난 후에 만나는 겨울 나무의 쓸쓸함이 괜한 썰렁함과 상실감을 자극하면 어떡지...'란 두려움이 컸던 것 같다.

여름산행 때는 무성한 이파리에 가려졌던 따뜻한 햇살과 풍경들이 마른 나무 숲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다. 건너편 산 중턱에 방금 틀어낸 이불솜처럼 폭신하게 깔린 구름바다, 멀리 겹겹이 보이는 산등성이들의 실루엣, 그 위에 수목화처럼 둘러쳐진 겨울 나무 울타리. 올려다 보니 빌딩처럼 높은 나무의 키를 가늠할 수 있었고, 마른 가지 사이에 견고히 얽혀진 새 동지도 볼 수 있었다. 낙엽이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다. 꽃처럼 화려한 희망을 꿈꾸던 봄과 싱싱한 초록의 벽찬 여름을 다 지내고, 곱던 단풍마저 낙엽으로 떨구고 탐스런 열매까지 빼앗긴, 춥고 억울하고 쓸쓸한 겨울을 지내는 이들이 있다. '다시 봄이 오기는 할까'하고 절망하며, 춥고 외로운 인생의 겨울을 지내는 이들이 있다.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것은

쓸쓸한 마른 나무가지 뿐이라며 절망으로 주저앉은 이들에게 겨울산의 깨달음을 나누고 싶다.

내게도 분명 인생의 겨울이 있었다. 둘러 보니 아무도 없고, '이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라고 혼잣말을 되뇌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겨울을 혼자 터벅터벅 걸던 시간. 이제 돌아보니 나를 성장시키고 인내하고 성숙하게 만든 시간은 인생의 겨울에 머물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그 시간들은 지금 내가 내담자들을 만나서 느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배운 학교였고, 나를 사랑하는 법과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낙엽이 진 후에야 보이는 겨울 풍경을 새로운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이다. 추운 날 간이역에서 떠난 뜨끈한 우동,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찜통에서 방금 꺼낸 왕만두, 어린 시절 스케이트장에서 호호 불며 먹던 생선묵 국물이 그리운 계절이다. 이미 삶의 겨울을 지낸 이들이 있다면 지금 겨울산을 걸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여기서 묵묵히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따스한 격려의 메시지를 띄워보자. 누군가의 따뜻한 눈길이, 한 마디의 위로와 작은 배려가 큰 지지와 응원이 됨을 인생의 겨울에 배웠다. 춥고 쓸쓸한 겨울에 만난 마른 나무가지의 교훈.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그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음을 겨울산이 내게 가르쳐주었다.\*\*\*

<4monicalee@gmail.com>



관악세대/Acro광장

# ‘국제시장’의 메시지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지금부터 65년 전인 1950년 12월 우리 조선반도에서 벌어진 ‘홍남 철수작전’은 한국전은 물론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다. 중공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10만 명의 미군과 10만 명의 피난민, 1만7천여대의 차량과 35만 톤의 무기를 안전하게 홍남에서 부산까지 실어 나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민간인 고문 현봉학씨의 호소에 힘입어 메레디스 빅토리 호의 선장 레너드 라루가 이미 선적한 무기들을 모두 내리고 피난민을 태운 것은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물자가 풍부하고 인명을 존중할 줄 아는 미국 뿐일 것이다. 만약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김일성 치하의 북한군 장교가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하들과 그 일가족은 모조리 이적죄로 총살됐을 것이다.

이날 메레디스 빅토리 호에 탄 피난민 1만 4천여 명은 한 배에 탄 인원으로는 세계 최고로 아직까지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다. 피난민 가운데 임신부도 많았는지 부산까지 내려오는 도중에만 5명의 아기가 배 안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극적인 사건이 최근까지 제대로 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6.25 한국전쟁과 함께 부산에서 태어난 ‘국제시장’을 소재로 한 영화 ‘국제시장’이 지난 연말부터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영화 시작 장면이 바로 홍남철수다.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개봉 열흘 만에 벌써 400만 관객을 동원한 저력을 과시했다. 1천만 돌파는 시간문제이기도 했다.

6.25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가난과 서독 광부 파견, 월남전 참전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그 시대를 살던 한국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담담히 보여주는 이 영화가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동안 별 주목도 인정도 받지 못했던 한국의 아버지 세대가 이를 통해 그나마 위안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아프리카 수준의 빈

곤에 시달리던 한국이 지금 무역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그 자체가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다룬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좌편향 일색의 한국영화 풍토를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윤제균 감독은 정치색을 빼고 한국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다고 말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좌파 평론가들은 ‘역사를 보는 시각이 너무 평면적’이라느니 ‘과거를 미화했다’느니 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의 좌파가 산업화의 성공에 뜻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박정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렵잖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한국민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인정하면 이를 주도한 박정희에게도 약간의 찬사를 보내야 하는데 이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다. 이들에게 박정희는 오직 장기 집권을 하며 인권을 짓밟은 독재자일 뿐이다.

이들의 이런 생각이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 1~2%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평소에는 민중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척 하지만 박정희에 관해서만은 예외다.

지난 수십년간 여론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박정희를 꼽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이런 결과가 한국 민중이 아직도 무지몽매하기 때문으로 믿고 있다. 이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 한 조각의 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돋보이는 것은 주인공 덕수의 친구로 나온 오달수다. 그의 코믹한 연기도 일품이지만 한국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영화 ‘변호인’에서도 인권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나왔던 그는 이로써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역사적 인물이 됐다.

길고도 암울했던 박정희 독재 시절 목숨을 내걸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노고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그 와중에 독재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아픔과 독재자에 대한 분노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다. ‘박정희 콤플렉스’에 대한 극복 없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화해도, 진보의 집권도 요원해 보인다.\*\*

## 건강의학 칼럼

# 겨울철 뇌졸중 예방법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요즘은 ‘어르신’ (65세 이상 분들을 일컫는 호칭으로 ‘노인’이란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들이 매우 많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현재 한국 인구의 20%에 달하고 있으며, 점점 더 늘고 추세를 보인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훨씬 넘었다. 이러다 보니, 우리 한국인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계속 올라간다. 우리가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은 25~30% 가까이 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한다. 뇌졸중은 한자로 ‘腦卒中’이라고 쓰는데, ‘卒’은 ‘졸지에’ 생긴다는 뜻이다.

영어로 ‘Cerebro Vascular Accident (CVA; 뇌혈관 사고)’라고 쓰는 것도 갑자기 생긴다는 의미가 있다. 손발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하고 원통해 하지만, 사실은 예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즉,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

거나,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알아보자 1등은 고혈압, 2등은 당뇨병이다. 그리고 흡연, 심장부정맥(심방세동), 고지혈증, 비만이 위험인자다.

그 외에 고령(65세이상 즉, 시니어는 모두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과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다.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뇌졸중의 위험이 4배 정도 증가하는데, 효과적인 고혈압 치료를 하면 50% 정도 뇌졸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3배 정도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된다. 또 서구적인 식습관 때문에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된다. 심방세동도 나이가 들수록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의 두가지로 나뉜다.

겨울철에는 뇌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온도변화에 따른 혈류변화가 커서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뇌혈관이 막혀서 혈류 부족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겨울철 아침이 더욱 위험하다. 겨울 아침에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반사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심장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강한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기 때문에 혈압이 더욱 오른다.

특히 변비가 있거나,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더욱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보통 겨울철에 뇌졸중 환자가 20~30% 더 증가한다. 그러므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조절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또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칠 것, 흡연은 꼭 끊고, 과도한 음주를 피할 것 등이 중요하다.

특히 적극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 하루 30분 이상, 1주일에 4~5일, 규칙적으로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달리기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소금 섭취는 하루에 5그램 이하로 할 것이며(상당히 싱겁게 먹어야 한다),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과 의사 선생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항상 혈압 120/80이하, 공복시 혈당 100mg% 정도(HbA1c:당화혈색소 수치 7.0 정도)를 꼭 유지하도록 해야 비참한 질병인 뇌졸중을 피할 수 있다.\*\*\*

# 죽은 자와 산 자의 가르침

**노재원(인문대 82)CH**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지난 1980년대 말 신문사에 입사해서 처음 부여받은 업무 중 하나가 부고 기사 정리였다.

‘구로 삼각(▲) 000(직책)씨 부친상 = X월 X일 X시 △△병원서. 발인 X월 X일 X시, 장지 00. 유가족 누구 누구. 연락처 = 123-456-789X.’

이름 대부분을 한자로 병기하던 시절인 탓에 ‘빛날 희(熙)’자를 ‘박정희 회’로, ‘만 윤(允)’자를 ‘오징어 윤’으로 불러주고 받아 쓰곤 했다.

지난 해 눈길에 가는 부고 기사들을 잇따라 접했다. 어린 시절 ‘첫 사랑 누나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배우 김자옥씨가 암으로 타계했다. 자그마한 체구에 늘 밝은 미소를 짓던 그녀의 죽음은 뜻밖이다. 얼마 전까지 ‘영원한 공주’의 모습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숙연해졌다.

한국 언론 유일의 건축전문기자로 알려진 구본준 기사가 역시 지난 해 해외취재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부음은 지인들은 물론 수 많은 독자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40대 나이도 그렇지만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던 그가 황망히 떠난 후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의문이 든다.



그는 소외된 곳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소시민들을 위한 ‘땅콩 집짓기’를 통해 세상살이의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고 다른 언론이 잘 찾지 않던 ‘중삼’, ‘피맛골’로 대표되는 도시의 뒷골목을 누비며 우리네 터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되살려냈다.

미국 대도시 최초로 자 유일한 여성시장이었다던 제인 번 전 시카고 시장이 얼마 전 유명을 달리 했다. ‘시카고 시장의 선거 당락은 눈 치우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시카고 속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77년 시 소비자 국장직에서 해고된 그는 예비선거에 출마, 자신을 쫓아낸 당시 마이클 빌란트 시장을 꺾고 당선됐다. 열세라는 예상이 압도적이었으나 빌란트 시장이 1979년 초 시카고에 몰아친 눈폭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비록 그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4년 재임 중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차별 철폐에 앞장섰다.

각각 배우와 기자, 정치인으로

살다가 차례로 이 땅을 떠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 이들과 달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직접 실천하는 이도 있다. 지난 해 가톨릭 시카고 대교구장에 취임한 블레이크 스피치 주교(사진)다. ‘빈자의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 선택한 미국 가톨릭계 수장인 그는 교황과 닮은 꼴 행보를 하고 있다.

스피치 주교는 소외된 자들을 최우선에 놓겠다는 약속과 낮은 곳을 향한 따뜻한 눈길로 종교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미시간 호반의 명소인 관저 대신 임대 사제관을 거처로 정한 그의 소탈함은 지난 해 취임 후 방문자용 공동숙소를 선택한 교황을 떠올리게 했다.

네브래스카주 크로아티아계 가톨릭 가정의 9남매 중 한 명인 스피치 주교는 취임 미사 강론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기적을 내게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물에서 간신히 수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목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그는 “아버지가 사제가 되라고 하셨지만 사실 9남매 중 내가 사제와 가장 거리가 멀었다. 학창 시절 여학생과 파티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담백한 스피치 주교의 온화한 표정은 비록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웬지 모를 위안과 평화를 갖게 한다.

일련의 부고와 스피치 주교의 실천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의 가르침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훗날 이 세상과 작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독후감

#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정흥택(상대 61)P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이 지구에서 나 좀 내려줘, 제발!”

마구마구 소리지르고 싶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빙수보다 시원한 책** = 좋은 일들은 저 밤하늘 보름달 뒤로 숨어버린 것 같고, 청천하늘 세계 각처에선 무섭고 더러운 사건들이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지 않은가. 만일 내가 외계인이라면 지구를 들여다 보며 영화구경하듯 재미가 쏠쏠할테지만 나도 지구상 점(點) 하나 인생인지라 짓느니 한숨 뿐이다.

그런데 한 여름 빙수보다 더 시원한 책이 나왔다고 한다. 이름하여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100년 살았으면 양로원에서 끔찍하게 살다 가실 것이지, 무얼 더 볼 게 있다고 창문까지 넘어서 도망을 치나”

이것이 나의 첫 반응이었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모락모락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었다. 100세 노인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나만대로 쉬지 않고 책을 읽어왔지만 이런 파과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은 아직 본 적이 없다. 나는 책을 주문했고 열흘 후에 도착했다.

▶**100세 생신날** = 지난 2005년 5월 2일 스웨덴의 작은 마을 양로원이 아주 떠들썩하다. 시장이 왕립하였고 양로원 로비는 지방신문사 기자들로 범석이다. 오늘이 ‘알란’이라는 노인의 ‘100세 생신날’ 이란다.

위낙 작은 손이어서 뉴스꺼리 흉년에 신문사가 문달을 지경인데 100세까지 산 노인의 이야기는 건강에 목숨 건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토픽임에 틀림없으렸다. 시장은 차기 선거운동용으로, 양로원 원장은 연임의 빌미로 얼마나 좋은 행사인가. 대형 케이크에 촛불 100개가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러나 정작 알란이라는 당사자는 기분이 영 뻥뻥이다. 저 간간하고 미운 원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대중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싫고, 떠들썩한 분위기에 억지로 웃으며 사진 찍을 생각하면 온 몸에 소름이 끼친다.

도망가야겠다. 문 밖에는 사람들로 붐빌테니 안되겠고, 유일한 방법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수 밖에는 없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생일파티가 시작된다.

드디어 알란은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에라”. 이어 ‘쿵’ 하는 소리!

무릎팍이 조금 흔들렸을 뿐 아직도 걸을 수가 있다. 비록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동네 공원을 비척비척 지나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텅빈 실내, 서너 개의 벤치는 하나같이 비어 있다. 매표구로 가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몽땅 꺼내 역무원에게 밀어 넣었다.

“아무 버스나 제일 먼저 오는 놈으로, 그 돈으로 갈 수 있는데 까지의 표를 주소.”

표를 쥐고 다시 벤치로 가서 버스를 기다리며 꾸부정히 앉아 있는데 누가 어깨를 탁 친다.

‘아이쿠, 벌써 잡혔구나.’ 생각하며 올려다 보니 험상궂은 젊은이가 찌려보고 있다. 긴 금발 머리는 기름기로 젖어 있고, 하관은 성긴 턱 수염으로 덮였으며, 등쪽에 ‘Never Again’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 재킷을 걸친 차림이 깡단 멤버임에 틀림없다.

“잠깐 이 가방 좀 봐 주슈. 갖고 뵈려는 마쇼. 머리가 박살나고 싶지 않으면.”

그리곤 배를 잡고 화장실로 급히 뛰어간다. 광쾌라도 설사에는 장사없는가 보다. 변소칸이 너무 좁아 사람과 가방이 같이 들어갈

## “그런데 저 가방은 뭐요? 꽤 큰 데” 가방을 얻게 된 자초지종을 들은 율리우스는 절절 웃으며 “그러면 당신도 도둑이네” 하자 알란도 “아직은 아마추어 단계지”

수 없기 때문이다. 변소문이 닫히고 2-3분 후 버스가 스트르 도착했다. 노인은 버스에 올라 탔다. 친절하게도 버스 운전사가 내려와 탱그마니 서 있는 여행가방을 번쩍 들어 버스에 실었다. 그리고 버스는 떠났다. 알란은 모른채 잠자코 앉아 창밖 먼 산만 쳐다본다.

‘뽀링’이라는 곳에서 버스가 섰고 알란은 내렸다. 여기가 버스표 행선지였다. 운전수는 여행가방도 내려 놔 주고는 뺑하니 가버렸다. 사방을 두리번 거려보니 동네는 커녕 집도 사람도 없는 무인지경이다. 어느덧 오후도 늦자락, 해는 높은 전나무 숲 뒤로 넘어 갈 기세다. 저 멀리 장난감 같은 간이 기차 정거장 속소가 쓰러질 듯 기우뚱 서 있는 게 보인다. 알란은 스텝퍼 바람에 여행용 가방을 무겁게 끌고 그리로 지적지적 걸어갔다.

문을 두드리니 늙스그레한 노인이 머리를 내밀더니 들어오란다. 며칠이고 사람구경 못 하던 차에 잘 왔다고 무조건 환영이다. 자기 이름은 율리우스, 75세이고 혼자 산단다. 젊어서 사업이라고 하긴 했지만 다 날려먹고 노숙자 신세는 싫어서 폐가가 된 이 집에 살면서 날품도 팔고 가끔 편의점에 가서 눈치보며 슬쩍하기도 해서 먹고 산다면서 저녁 반주로 독한 술을 내온다.

독주라면 언제라도 사양않는 알란이 사양할 리가 없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진다. 알란도 자기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그런데 저 가방은 뭐요? 꽤 큰 데.” 가방을 얻게 된 자초지종을 들은 율리우스는 절절 웃으며 “그러면 당신도 도둑이네” 하자 알란도 “아직은 아마추어 단계지” 응수하자 두 촉매의 잔이 공중에서 짹 부딪혔다. 율리우스는 그동안 익힌 특기를 발휘해 가방 자물쇠를 쉽게 열었다.

▶**84억의 횡재?** = 가방이 열리자, 아! 이게 웬 떡? 스웨덴 고액지폐가 다발로 차곡차곡 쌓여 가득 들어 있지 않은가. 500만 크로나(한국돈 84억원)였다. 둘은 공평하게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고 또 한 번 촉매.

한 편 급한 설사를 후딱 해결하고 뛰어 나온 조폭, 어??? 노인과 여행가방이 안 보인다. 현금 500만 크로나가 설사 똥 누는 동안 사라진 것이다. 내 것도 아니고 조직의 돈인데... 이렇게 해서 국제 조폭조직이 발각 뒤집혀지고 부하들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한 편 양로원 무단이탈 100세 노인을 찾고 있던 동네경찰에 국제 조폭이 들이닥친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 그런데 이들이 총력을 기울여 찾은 사람이 바로 ‘슬리퍼 신고 걸어다니는 노인’ 이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경찰서도 순경들과 사복 형사를 보강해 노인 수색작전을 강화한다. 이제 알란은 단지 집 나간 노인이 아니고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된 도둑이 된 것이다.

얼마 있다가 경찰서에 들어 온 제보는, 처음에 돈을 운반하던 깡이 살해되어 노인 둘이 어디로 인지 끌고 갔다고 한다. 아니, 노인 둘이 총 들고 다니는 팔팔한 국제갱을 죽여 끌고다니? 이게 무슨 귀신 곡할 소린가. 당국은 수사의 도를 넘어 전담검사를 지명, 경찰과 형사들을 지휘하게 했다. 이제 알란은 잠간 사이에 ‘집나간 노인’에서 ‘도둑’ 이 됐고 곧 이어 ‘현상불은 살인강도’가 되어 방방곡곡에 사진 포스터가 붙여지고 전국 TV에 지명수배 사진이 방송되어 나갔다.

이 뉴스를 보며 조폭 두목은 생각했다. 경찰보다 먼저 이 늙은이들을 잡아야 돈도 찾고 범죄도 커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최신 고성능 권총과 팽팽 돌아가는 두뇌를 가지고...

한편 알란과 율리우스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집을 나와 번갈아 가며 돈가방을 끌고 정처없는 도보여행을 계속한다.

▶**100세 전후의 이야기** =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정작 재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읽어나가면서 나는 혼자 ‘ㅋㅋ’ 웃기도 하고 ‘ㅎㅎ’ 소리 높여 박장대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밥도 귀찮고 잠도 자기 싫다. 이 책을 놓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소설은 알란의 100세 이전의 이야기와 100세 생일 이후의 이야기가 서로 번갈아 나오며 이어지

### 동문 시 감상 <懷鄉의 시>

#### 옛 동산에 오르니

김태환(법대 46) PA

화사한 봄날  
옛 동산에 오르니  
아지랑이 어른대는  
저편 언덕엔  
할미꽃 진달래꽃  
빙그레 웃으며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와락 안기네

햇살 따가운 여름날  
옛 동산에 오르니  
하늘엔 뭉게구름  
무심히 떠있고  
역새풀 무성한  
작은 나무 사이  
이름모를 산새들이  
낮설어 하네

시원한 가을날



옛동산에 오르니  
구름없는 하늘은  
높기만 하고  
산국화꽃 여기 저기  
피어 있는 곳  
어릴 적 묻은 꿈이  
살며시 고개드네

눈내리는 겨울날  
옛 동산에 오르니  
소나무 가지마다  
추억이 소복소복  
새들은 어디 가고  
등지만 남았는데  
나는 야 두 팔 벌려  
대지를 안는다 \*\*\*

게 구성되어 있다. 알란은 1905년 생이다. 100세까지의 알란의 역사는 바로 20세기의 세계 역사와 그 궤도를 같이 한다. 스웨덴 작가 요나손은 20세기에 일어난 세계적 대 사건에 ‘알란’이라는 주인공을 내세워 일일히 참여하게 반주했다. 알란은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 장군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와 역사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는 것 자체가 빠있는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허황한 삶이 진짜 역사와 부딪힐수록 우리가 지나는 역사는 농담이자 희극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허황되지만 작가는 정색하며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간다. 이래서 우리는 과장된 거짓말인 줄 알지만 책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읽으며 마음 속 응어리진 현실의 불만을 카타르시스적으로 해소한다. 이것이야말로 작가의 실력이고 역량이다.’

▶**세상만사는 그 자체일 뿐** = 작가 요한슨도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만 얘기하는 엄숙한 사람은 내 얘기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책은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스페인 등에서 5,000,000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는 교보문고 등 6개 대형서점 베스트 셀러 집계에서 1등을 7주간 누렸다(2014년 8월 현재).

결론적으로 이 폭력적 역사의 현장들을 누빈 알란은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는 한 가지 원칙은 꼭 지키며 살았는데 그것은 15세 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 받은 인생 교훈이다.

“세상만사는 그 자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다.”

그는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로 불평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까 미리 걱정하지 말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거야.

그래, 그냥 나아가는 거야. 가다 보면 길이 보여, 그 길을 가노라면 횡재의 기회도 만나고 길동무도 생기게 되지. 모험의 인생길 좌우편에는 이런 행운의 보따리들이 줄줄이 숨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이니 그 때 후회 없이 죽으려면 지금 뛰쳐 나가야 해. 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을 넘어서라도.

<참고> 책 구입법은 www.bandibookus.com 에서 본인 등록후 구입.\*\*\*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 아메리칸 드림 50년<19>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아내가 상담소에서 가정문제와 건강문제를 상담하는 동안, 우리처럼 은퇴한 가정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매일 한결같이 꾸려가는 삶 속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게 되면 실패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평생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에만 몰두해오던 남편이 정년퇴직하면 부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된다.

▶**아내의 가정상담소** = 이제 막 은퇴한 부부가 가정상담소를 찾아와 하소연한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가정을 끌어가던 남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아내의 조강지처 애정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말다툼은 감정폭발로 이어지고 드디어 가정폭력까지 일어나 노년이혼으로 몰락하는 비극까지 연출하기도 한다.

상담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은퇴 이전의 불만부터 오늘까지 참고 쌓여온 하소연을 털어내고 나면 조금은 분노가 풀리는 듯 해 다음을 약속하고 돌아간다. 그러나 판정승은 없지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차츰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 태도로 진전을 보이면서 다시 안정된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면 옆에서 마음 졸이며 걱정하던 자식들도 겨우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된다. 남자의 은퇴는 바깥사람이 안사람, 할아버지로 탈바꿈하는 것이며, 여자의 은퇴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남편의 건강과 아직 생존하신 부모님들 보살피고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는 할머니로 탈바꿈이 아닐까.

또 하나의 변화는 나이 들면서 닥쳐오는 건강 문제다. 은퇴 3년 후에 간암이 발견됐다. 다행히 1985년부터 개발된 치료약이 약화 속도를 늦춰주었지만, 완치는 기적이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암으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개성이라고 한다. 걱정 끝에 자신을 잃은 환자는 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죽음을 초월하고 희망을 지켜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암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궈낸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외부생활에 중점을 두던 삶에서 은퇴한 남편도 아내와 마음을 합쳐 이제는 집안 일도 나누어 하고 사회봉사도 같이 하면 남은 삶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 통계를 보면 65세에 건강하게 은퇴한 사람은 평균 17.5세를 더 산다고 한다. 반면 은퇴하면서 권위와 명예를 모두 잃은 듯 상실감에 빠진 사람은 평균 3~4년 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한다. 본인의 재산과 정부보조금을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건강한 생활에 몸과 두

뇌 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하며 주어진 능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100세 시대 도전에 승리하는 인생이리라. 70~80대에도 위대한 발자국 남긴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인구폭발과 환경오염의 가속화로 깨끗한 환경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고 즐기며 주위에 부담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때 자리를 내주고 떠나는 노년이 되기 위해 좀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만 할 것 같다. 시들기 전의 꽃이 더욱 아름답듯, 지기 전의 황혼이 더욱 빛나듯 우리도 모두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한국의 전통건축 역사와 문화사가 동아시아의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며 세계 문화사 안에 어떤 위치인지 알고 싶어 끊임없는 노력했다. 일본에 4번, 중국에 4번 현지답사를 하였고 인도·캄보디아·월남 등 동남아시아를 찾아다니며 조사하였다. 그중에 앙코르와트·인도·네팔 여행기를 나누어 보려고 한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 여행** = 캄보디아는 동쪽에 베트남, 서쪽에 태국을 접경해 말레



↑왼쪽 사진은 찬델라 왕국의 신전으로 600여 신도들이 순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인도의 문'으로 불리고 있는 뭄바이 항구에 세워진 영국 기념문의 모습이다.

세와 자바르만 3세 때(877AD) 앙코르지역 동부의 바쿱을 비롯한 지역에 사원과 궁전을 건설했다. 바쿱 피라미드는 우리나라 고구려의 장군총과 같은 층단식 석층에 사방 중앙에 층계를 내 5층을 지어 올렸고 맨 상층 중앙에 동쪽으로 문이 열린 탑 하나를 세워 다시 5층 지붕을 올렸다.

고구려 분묘건축 양식에서 사방신(청룡·주작·백호·현무)을 보이는 사방향 공간개념이 이곳 건축양식과 연결됨이 명료하고 고구려의 음양 5행 사상에 5행이 있는 것처럼 5층 구조물 의미가 포함돼 있다. 석굴암의 구조가 해 뜨는 동쪽으로 향하듯 앙코르에 모든 신전과 사원들은 동쪽을 향하였고 앙코르와트 사원만이 유일하게 서쪽을 향하였다.

루어 좌우에 균형을 갖추었다. 정면에 양편 돌 창문 안에 다섯 개의 작은 기둥들이 대나무 마디처럼 조각돼 있다.

문설주와 문지방과 보 밑에 신비스러운 글들이 기록되었고 깊은 양각으로 구름모양의 넝쿨 잎 조각과 힌두의 파괴 신 쉬바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음과 양의 사상과 같이 힌두교에도 남자의 상징 링가와 여자의 상징 요니가 있어 자연종교에 자손들 번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성기의 상징적 표현들을 볼 수 있다. 링가는 원형으로 하늘과 연결되고 요니는 사방형으로 땅에 연결됨을 본다.

힌두교의 삼성은 우주의 창조신 브라마, 관리 신 비쉬누, 그리고 파괴와 창조 신 쉬바로 이루어

를 가진 코브라의 몸으로 만들어졌다. 두 마리의 사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 물 건너 정문에 이르면 입구가 3대문으로 열렸고 서울 광화문처럼 중앙 큰 문은 제왕의 문으로 부른다. 문 안에 들어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3층 피라미드의 1층에 이르고 속세의 층이라고도 부른다.

▶**건축양식** = 성지를 둘러싼 전체의 석벽조각은 8부분으로 나누어져 서쪽의 양쪽 벽에는 제왕의 승전 역사를 조각했다. 남쪽 2벽에는 왕조역사의 기록과 지옥과 천당을 그렸다. 동쪽 2벽에는 바다의 전쟁과 비쉬누 신의 승리를 보였다. 북쪽 2벽에는 크리쉬나와 디바스의 승전을 축하하는 조각이다. 힌두교의 전설에 따라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역사, 생활상, 전쟁상, 신화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으뜸가는 조각 문화재다.

우리나라 불교 전설의 손오공 이야기가 이곳 조각물에도 나타난다. 비쉬누는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윈의 진화론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물고기의 모습으로 생명이 시작되어 거북으로 변하고 네 발로 움직이는 돼지가 되고 다음에는 사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11세기까지 전해 온 인간의 육감에서 느끼는 상상과 21세기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예술적 표현들이 무진장 함축되어 있다.

문 안에 들면 십자형 통로로 나누어진 4개의 정원이 있고 양쪽에 경전각이 보여 한국의 궁전건축에 좌의정과 우의정을 좌우로 나누어놓은 인상이다. 정원을 지나면 다시 가파른 층계를 오르고 3대문이 열려있고 피라미드의 2층에 이른다. 여기는 승려들과 귀족들의 층이고 역시 양쪽에 경전각들이 세워졌다. 3번째 층계는 드디어 제왕과 제사장이 걸어서 신을 영접하기 위해 오르는 피라미드의 삼층 즉 천신의 층에 이른다. 중앙 탑에 비쉬누 신의 위치가 중앙에 있고 사방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4개의 성수지가 있어 왕과 제사장은 성수에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물 안에 드는 층계가 있다.

전체적으로 3층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천신 층에 가장 큰 중앙 탑이 있고 작은 탑들이 세워져 모두 5개의 탑들이 피라미드의 상부를 형성하였다. 탑들의 상부는 5층 지붕이다. 비쉬누상이 놓였던 위치에 현재는 불상이 자리 잡고 있어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한국의 전통건축 역사 및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의 연관, 세계 문화사내 위치 등을 알고 싶어 일본과 중국에 4번, 인도·캄보디아·월남 등지를 현지답사했다”

이 반도를 이룬 나라다. 남쪽에 인도네시아 섬나라들과 지형적으로 한 맥을 이루었다. 역사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던 중 베트남인들이 동아시아인들의 인상에 비하면 캄보디아인의 인상은 더욱 인도계 혈연으로 보였고 피부색갈도 적도에 가까운 남방계인들임을 느꼈다.

캄보디아 국토 중앙에 메이콩강이 흐르고 강 옆으로 거대한 톤레삽 호수가 있어 호수 북단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크메르 제국(790~1350AD)의 문화유적들이 모여 있다.

인천공항에서 직행 비행기로 6시간 후 시엠립 공항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마치고 밖에서 기다려주는 일행을 만나 호텔에 들었다. 도시 분위기는 1950년대 한국의 경계를 상기시켰다.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해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이 큰 길을 메웠고 한국인 식당들도 가끔 볼 수 있었다. 이 지역에 39개의 11세기 전후 세워진 힌두교·불교 사원들과 궁전의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국가적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39개의 유적지 중 7개 지역, 앙코르와트·앙코르톰·바쿱·반테이스레이·베이온·프레아칸·타푸롬에 가장 많은 유적이 모여 있다. 이들 사원과 궁전들을 역사적 순서로 해설하면서 관광을 한 감상을 기록하고 앞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흥미를 돕고 여행한 기록을 작성 해보려고 한다.

앙코르 왕국의 인드라바르만 1

이곳 프레아코 사원은 처음으로 세워진 사원건축 양식으로 승려들이 수양하는 우리나라 암자와 같은 공간으로 탑들을 건축했다. 아직 석조건축 양식이 이곳에 들어오기 이전 벽돌전탑으로 건축하고 밖에 회를 바르고 풍부한 조각으로 싸여 인도의 조각미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관광버스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대부분 두 사람이 타고 생활전선에 나가는 모터사이클들이다. 낭만적인 젊은 남녀들의 테이트도 보이지만 작은 바퀴 두 개 위에 3세대 가족 다섯 사람이 함께 붙들고 아슬아슬하게 가는 모습은 온가족이 생존경쟁의 마지막 한계를 보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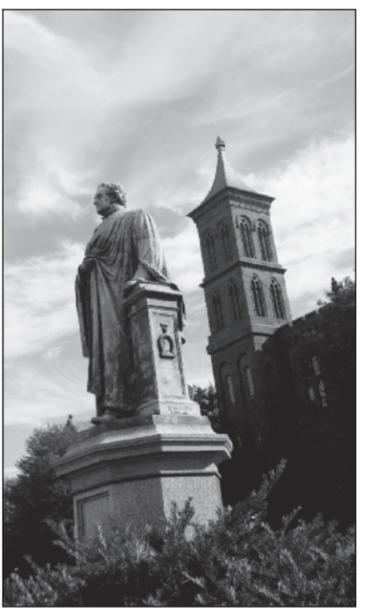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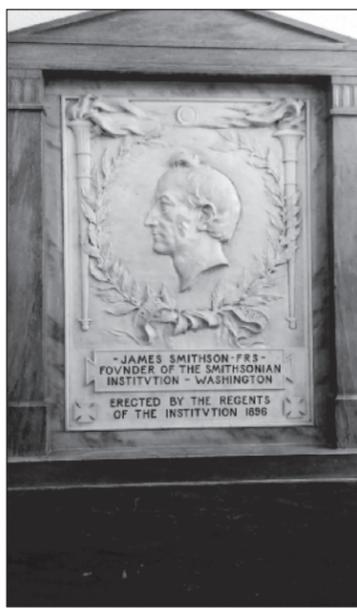
▶**반테이스레이 사원** = 앙코르에서 약 20km 북쪽에 거의 킬렌산비탈에 가까이 자리 잡았다. 동쪽에서 외곽 성문을 들어서면 긴 난간을 따라 내곽정문에 이르러 그 안에 인공호수를 사방에 두른 사원을 본다. 성곽 주위, 그리고 궁궐이나 사찰 주위에 인공호수를 건설하는 것은 세상에서 격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이며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건축양식이다.

반테이스레이 사원은 자야바르만 5세 때(967AD) 건축물이며 붉은색 사암석으로 분위기가 따스하고 특이하다. 힌두교 전설을 조각으로 풍만하게 장식했다. 3층 피라미드 위에 3탑을 세웠고 탑지붕은 5층 구조며 층마다 동문에서 서문으로 통하는 축을 이

고 크메르 제국의 종교의식에서 가장 많이 숭배하는 신은 쉬바신이다. 이 시대 역사에 계속되는 전쟁 중 승리를 보장하는 위대한 힘을 부여하는 신이기도 하다. 상체가 노출된 여신들의 아름다운 조각과 물고기, 거북이, 악어 등의 해양문화를 보이면서도 소를 타고 말을 탄 농경문화와 유목문화가 이미 융합된 역사적 내용을 볼 때 우리나라 통일신라에서 이미 세계화된 불교문화로 연결되는 모습을 본다. 사찰의 벽 조각은 손가락들이 뒤로 넘어가는 듯하고 발목이 많이 꺾이면서 양쪽 무릎이 궁둥이와 일직선을 이루는 움직임이 신기하게 보였다.

앙코르와트 사원은 캄보디아에 가장 중요한 문화재이며 세계의 7대 불가사의 문화유물들 중에 대표적 문화재다. 크메르 제국이 앙코르에 수도를 정하고 자야바르만 6세 때(1080 AD) 완성된 거대한 건축물이며 최근까지 캄보디아 원주민들이 종교의식을 실행해왔기에 가장 잘 보존됐다. 17세기부터 유럽에 알려졌고 1907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이후 세계에 알려진 유적지다.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회의에서 세계문화제로 지정돼 프랑스와 일본정부의 후원으로 수차례 복원공사가 반복되고 있다.

앙코르와트는 유일한 서쪽을 향한 가람이다. 사면이 인조호수로 둘러졌고 물 건너 성지에 들어가는 육교 양편 긴 난간은 9개의 머리



↑ 스미스소니언 재단 설립의 주인공 제임스 스미스슨의 얼굴상(왼쪽)과 스미스소니언 캐슬 정문에 있는 초대 관장 조셉 헨리의 동상.

↑ Independence Ave.에서 바라다본 스미스소니언 캐슬 전경.

문화기행<1>

# 스미스소니언 캐슬에서 시작

이영목(공대 59) 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미국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어떻게 혼자 생각해본다.

아마도 여름철이면 친구들과 모여 고기나 핫도그를 구워 먹으면서, TV로 야구 중계나 보면서 떠들석거릴 것이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모여 피자와 맥주를 들이키며 풋볼의 자기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겠고, 봄에는 농구, 그리고 씨즌 중간에는 아이스 하키를 보거나, 서부 지역은 사냥총을 꺼내들고 사냥에서 곰 한 마리 잡았다고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인들의 문화 = 그들에게 “도대체 미국에는 문화가 있소, 없소.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소?”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있지요. 두개 반(Two & half)이지요, 동부의 뉴욕, 서부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문화의 크기가 반 정도지만 남부에 뉴올리언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신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한 하나 빠뜨린 것이 있소. 다시 말해 세개 반(3 & half)이며 그리고 추가되는 하나가 바로 워싱턴 디씨요. 당신 관광 가이드 업체 ‘론리 플래닛’이 2015 최고의 관광지로 워싱턴 디씨가 이탈리아 밀라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인도의 첸나이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선정된 것 모르시요, 또 그 이유가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공간 때문이요.”

나는 한국일보사가 주도하는 워싱턴 디씨의 문화탐방팀에 합류해 그 문화들을 섭렵할 예정이다. 내가 첫번째로 글을 써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나는 주저할 것도 없이 ‘그것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 중 스미스소니언 캐슬에서 당연히 시작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제퍼슨 거리 편의 스미스소니언 캐슬 앞에 섰다.

▶제임스 스미스슨 = 캐슬 앞에서 있는 동상이 조셉 헨리(Joshep Henry)다. 그는 과학자이며 전기 발명가로서 유명한 미국인이다. 그는 1846년부터 1878년까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초대 관장을

하지만 ‘이러한 이유일 것’ 이라 추측하는 것은 필자의 권리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과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명문가의 아들로서 더 알려진 모양이다. 그는 그것이 꽤나 자존심이 상하고 싫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유언에 현실을 감안해서 그가 죽으면 자기 조카에게 물려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를 하나 달았다. 그 유산 상속인인 조카가 자식이 없어 물려 줄 사람

## “스미스소니언 재단 창시자 스미스슨은 생전 미국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다. 사망후 55만 달러의 유산을 모국이 아닌 미국에 넘겨줘 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했다”

지낸 사람이다. 문을 들어 섰다. 왼쪽으로는 오늘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탄생하게 한 스미스소니언의 재단 창시자 제임스 스미스슨(James Smithson)의 관이 있다.

그는 영국인으로 생존시 미국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다. 죽어서 미국에 온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약 55만 달러의 돈을 넘겨 주었다. 그 돈이 건네진 때가 1836년 전후였고, 그 돈의 규모가 미국 정부 예산의 1/66, 그러니까 약 1.5% 였다. 왜, 그리고 무슨 동기로 채척을 했을까?

사실 스미스슨의 유산이 어찌서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미국으로 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없으면 그 유산을 자신의 모국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 주라고 한 것이다.

▶왜 하필 미국에? = 그런데 왜 미국이었을까? 미국이라는 땅은 미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의 라파예트를 비롯한 프러시아, 폴란드 등의 젊은이들이 꿈의 이상향을 그리면서 참전을 한 땅이다.

그리고 스미스슨의 유언 작성 때는 유럽 대륙은 나폴레옹 1세, 공화정 등으로 정치적으로 꽤나 혼란했고, 영국은 아일랜드의 구교를 비참하게 탄압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청교도들이 그는 새삼 생각났을 것이다. 또 서민들의 현실은 산업혁명으로 국가의 부는 축적돼

갔으나, 방직공장에서 어린 여인들이 폐병으로 죽어가고, 러시아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이 활자화 하던 수난의 시대였다.

▶새로운 세계의 동경? = 물론 그가 죽은 후 50년이나 지나서 안톤 드볼작이 ‘신세계’ 라는 교향곡을 작곡하기는 했지만 이미 스미스슨이 유언을 작성할때 그의 마음 속에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그래서 그의 유언에 미국에 유산을 넘기라 했을 것 같다.

북도를 지나 메인 홀에 들어섰

자가 있어 가까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숲 속에 ‘달의 문(Moon Gate)’ 이라는 이름의 작은 중국풍의 조각공원이 있다. 달이라는 천상의 원과 인간세상이라는 사각형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각공원은 중국 북경에 있는 것을 축소해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인디펜드 에브뉴 길을 가는 문을 나서기 전에 왼쪽에는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Africa Art Museum), 오른쪽에는 색클러 화랑(Sackler Gallery)이 있다.

‘문화탐방 기행’의 나의 바턴을 이어받을 분이 미술 역사를 전공한 이정실 교수다. 그 분이 Freer Gallery를 주제로 글을 쓸 것으로 아는 바 이 두 곳을 먼저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스미스소니언 캐슬을 떠났다.

<참고>

▶정보 = 스미스소니언 캐슬에 관한 정보는 캐슬 내 Information Center 에서 얻을 수 있다. ▶개장시간 = 8:30 ~ 5:30(12월 25일 제외) ▶입장료 = 무료. 전화 및 인터넷으로 검색. 202 - 633 - 1000. www.si.edu/ Smithsonian.org ▶주차 = 스미스소니언 몰 안에 주차장이 있다, 다만 주차장의 여유공간 부족으로 끈기를 가지고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한다. Independence Ave 쪽에 미터기 주차시설이 있고 주차가 좀 용이하다. 지하철 이용이 한 방법이다. 정거장 이름은 Smithsonian Station.\*\*\*

↓ (왼쪽부터)기증자 Enid Haupt 이름을 딴 정원.북경 달의 문(Moon Gate) 입구. 미국 땅에서 사라져가는 새를 보호하자며 조각을 해놓았다.



교육 칼럼

# 자녀 양육에 관한 조언



정정순(사대 56) CA  
산호세주립대 명예교수

자녀를 기르는 일은 세상 모든 부모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자녀와 부모** = 서점에는 온갖 종류의 육아서가 넘쳐나고 TV나 신문, 잡지, 인터넷에서도 육아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또 그만큼 아이를 잘 키우는 데는 뚜렷한 공식도 정답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난 40여년간 아동학 강의와 연구 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과 대학부속 유치원 부모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세 아이를 기르면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자녀양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리해본다. 내 편견이나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아동학 분야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거나 연구 결과로 검증된 원칙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능력과 기질을 타고 나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다. 그러나 이 환경이란 것이 생후 2-3년 동안은 거의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다. 그 후에는 친구, 학교, 이웃 그리고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더구나 갈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자녀 수도 적어지는 추세로 인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 역할을 잘 해도, 자녀가 자신의 바람대로 자라주지는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면 도움은 커녕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한 포기의 꽃을 기르는 것과 비슷하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꽃들이 있고 저마다 특유한 특성과 아름다움이 있듯이 아이들도 자기 다른 능력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그 꽃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양의 물을 주어야 하고, 햇볕이 더 필요하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옮겨 심어야 하고, 때로는 비료도 주어야 한다.

백합을 장미처럼 다루어서는 잘 자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기질을 생각지 않고 마치 공장처럼 찍어내고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들 듯이 자신이 원하는 틀에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자녀가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거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

자녀가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돕고자 하면 지켜야 할 10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1.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 주어야** = 자녀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보다는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는 허수아비의 삶을 살게 된다.

아이가 스스로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건전한 자아상과 자존감 없이는 다른 누구를 온전히 존중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자.

**2. 조건 없는 사랑을 주어야** =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어린아이는 엉뚱한 해석자인 동시에 ‘가장 예민한 기록자’다.

아이들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부모가 자신의 잣대로 아이를 판단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실망하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로부터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 “자녀양육은 꽃을 기르는 것과 비슷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특성에 따라 알맞은 양의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고, 때로 비료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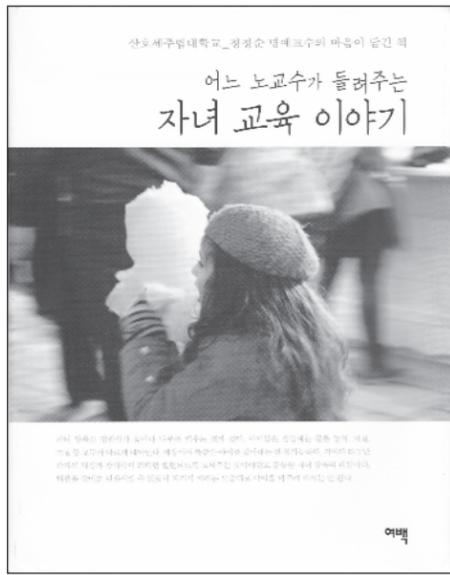
다. 이는 아이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된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반항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다.

**3. 자녀를 세심하게 관찰하라** = 평소 자녀의 말이나 행동, 얼굴 표정, 목소리, 신체 자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건강은 어떤지, 어떠한 심리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바를 그때그때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는 말이 아니다. 가령 함께 거리를 걷다가 아이가 나뭇가리 거미줄을 신기하게 쳐다보면, 멈춰서서 그것을 충분히 바라보고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기나 취학 전 자녀는 언어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4.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 =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소원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한다.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지나친 경우가 많다.

소질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만을 강요하면, 자녀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맛보게 된다.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여겨 매사를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아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



워야 한다. 이웃의 한 젊은 부부-남편은 유능한 변호사, 아내는 대학교수인 엘리트 부부였다-는 딸을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딸에게 온갖 과외학습과 운동, 음악 레슨을 받게 했다.

처음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던 아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에게 반항했고, 학교 성적도 떨어졌다. 이웃 부부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다. 대학진학 상담사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부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거둬들여 심각했던

←정정순 교수는 42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저서를 출간했다.

그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물을 주고, 풀을 뽑으며 정성을 쏟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싹이 텃고, 그 싹이 자라 당근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자그마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비록 주위에선 안될 거라고 말해도 자기가 믿는 일을 꾸준히 하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도 자꾸 읽어 주다 보니 내 아들과 손자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이 책 내용을 통째로 외워버렸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자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해 보도록 도와준다. 열세 살이 된 내 손자가 뒤뜰에서 채소를 길러 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덕분에 지난 여름에는 손자가 정성껏 길러서 수확한 상치, 토마토, 호박 등 각종 채소를 온 가족이 즐겁게 맛볼 수 있었다. 채소를 기르는 동안 어린 아이들은 많은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된다.

**7. 규칙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자녀가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규칙이 무엇이며 왜 지켜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자

녀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규칙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이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규칙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감시와 압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이가 언제나 자기의 견을 자신 있게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의견이면 흔쾌히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소통만으로도 아이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된다.

“말대꾸 하지 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같은 강압적인 말로 아이에게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유아원에 오는 아이들 부모와의 접촉에서 가장 놀라게 생각되는 점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육아 방법과 실제 자기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8.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 자녀가 항상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양육 방식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자라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자학하거나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다. 모든 잘못을 배우자 탓으

로 돌리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나 부모 자신은 물론 문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부모 자신이 올바른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9.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신의 가치나 존재 이유를 자녀에게서 찾으려 하는 잘못된 동일시를 야기한다.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자식의 능력이나 사회적 성취 여부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거나 자기의 성취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자녀가 전교에서 수석을 했다면 부모의 숨은 공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곧 부모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10. 부모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 =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은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자녀가 소중한 만큼 자기 인생도 소중하다. 그래야만 노후에 자신의 희생을 자녀로부터 보상 받으려는 그릇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기 건강관리 잘하고 생산적인 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은 어느 부모나 똑같다. 그러나 어디선가 무슨 특별한 육아 비법이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 지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육아의 비법을 찾기 전에 육아의 기본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 부모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육아의 기본이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까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은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이기적이고 편견이 많으면 자녀도 그와 비슷하게 성장한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의 행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자녀를 기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인내와 헌신, 사랑이라고 믿는다. 참고 견디고, 잘 자라주리라 믿어주면 아이들은 분명히 바르게 잘 자랄 것이라고 믿는다.

학교에 가 보지 못하고, 글도 읽을 줄 몰랐던 우리 선대의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덕망 있고 성취감 높은 인재를 많이 길러 내셨는지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교육을 논의 할 때마다 자녀를 올바르게 건강한 성인으로 키워내는 것은 비단 부모로서의 책임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정순 교수> 1960년 사대 가정학과 졸업. 1961년 조지아대에서 석사, 1964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 후 1965년부터 CA 산호세 주립대 교수, 아동학 과장 역임. 1972-74년 서울대 부교수. 2007년 정년퇴임, 현재 산호세 주립대 아동학과 명예교수. 1981년 산호세 주립대 최우수 가정학과 교수상 Most outstanding Home Economics Professor Award, 1994년 미국 교육연구학회 AERA 우수 연구상을 수상했다. \*\*\*

<여행기>

#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2>



**이강홍(상대 60) NY**  
 Manhattan Woods Golf Club  
 CEO

▶제4신 = 부산한 소리에 잠이 깨니 주방 소음이 들리고, 바로 옆 침대 아랫칸에서는 키 큰 남자가 등과 고개를 활처럼 숙이고 떠날 채비를 하는 게 눈에 들어온다.

시선이 마주치자 “Guten Morgen” 하는 생소한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이럴 때는 나도 “안녕하시오?” 하고 싶는데 어쩐지 어색하다.

젊은 웃음기로 “Good Morning!” 하고 답해 주니, 또 “Buen Camino” 라는 말이 되돌아오네. 급방 해득이 안되다 몇 초 지나서야 ‘좋은 길 즉 탈 없이 순례길을 가시오’ 라는 스페인 말 뜻이 뒤늦게 생각나네. 몇 마디 익힌 Spanish도 타이밍이 맞아야 써먹지.

서둘러 아침 단장하고 짐 꾸려 나서니 10월 초의 아침 7시가 칠 흡이다. 인근 카페 입구에 배낭, 모자와 스틱을 내려놓고 들어서니 벌써 몇몇 테이블엔 순례객들이 아침을 들고 있다. 나도 커피와 버터 바른 바켓트(빵)를 씹으니 정말로 순례자의 소박한 아침 식사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형식이 내용을 규제한다’ 는 말이 있지. 병어리들의 조찬인가? 말소리가 거의 없다. 분위기가 영화에서나 접했던 수도원의 아침처럼 조용하다. 누가 뭐라고 지시한 적 없는데 이런 경건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비장감마저 드네.

아직도 여명의 어슴프레한 7시 50분경, 드디어 성루같은 성모마리아 성당 밑의 터널을 통과하여 급류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자, 그 옛날 로마 군대가 돌로 포장한 고개의 언덕길이 시작되었지. 해발 170m의 출발점에서 1450m의 고개를 넘어서서 ‘피레네 고원’ 으로 진입한다. 11kg의 등짐으로 오르니 15분도 채 안되어 등줄기와 앞가슴에 땀이 흐른다.

오늘 길 25.1km가 평지로 환산하면 32.0km라고 표시가 돼 있다. 짐꾼이라도 있었으면... 허 말라야 등반대는 짐꾼들이 많던데... 순례길은 안되나? 푸념이 절로 나온다.

첫날부터 기를 죽인다. 어느 순간 감색과 흰색으로 멋지게 디자인된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가 뒷바퀴 양쪽에 짐을 실은 자전거를 경쾌하게 몰며 “Well camino!” 라며 스쳐 지나간다. 부럽구나.

출발한지 두 시간쯤, 벌써 evian 500cc 물병이 비었다. 이제 한 병 남았네. 가계도 행상도 없다. 아

니 인가도 없는 산 언덕길이다. 더러 인명피해도 발생하는 고갯길이다. 목에서 단내가 난다. 누가 쉬는 모습만 보이면 힘들게 걸던 의지가 꺾이면서 함께 쉬게 된다. 어느 지점에서는 마치 picnic 나온 것처럼 열댓 명이 통성명 하면서 일어설 생각을 안한다.

그 중 한 사람은 역사지식을 동원하여 선동조의 불평을 한다. 그분 - St. James 곧 야고보님의 영문표기 - 은 이 길로 가지 않았다고! 로마군이 대리석을 운반하던 배를 타고 곧바로 ‘땅끝(Finis Terre)’ 에 갔다고. 왜 우리들이 이 힘든 길로 가야 하느냐며 불평이 담긴 말을 던진다. 그 사람 아무래도 여기 올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일어났지.

오늘 구간의 반쯤(고도 약 1050m 지점)되는 곳에 순례자 숙소가 하나 나타나더군. 뜻을 관철하지 못할 불쌍한 영혼들을 보살피 주려는 하나님의 자비라 생각됐다.

고도 1340m 지점인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인데, 기대와 달리 표시판 외에는 검문소도 없다. 간간이 눈과 비에 대비한 간이대피소(shelter)가 있는데 예외 없이 또 하나의 간판이 붙어 있다. ‘버리는 곳’ 이라고. 버려진 내

## “해발 170m의 출발점에서 1450m의 고개를 넘어 ‘피레네 고원’ 으로 진입한다. 11kg의 등짐으로 오르니 15분도 채 안되어 등줄기와 앞가슴에 땀이 흐른다”

용물을 들여다보니 많은 책들과 여성 화장품, 여분의 운동화, 스틱, 식품 캔 등. 한 곳은 마음(욕심)도 버리라는 싸인이 깊게 각인된다. 이것들 - 과욕의 물품들 - 은 교회가 좋은 곳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버려진 그 마음(욕심)들은 어디에다 쓰나?

저 언덕 위 넓은 구뱃길 잔디에 널푸러진 검은색 불가사리는 또 뭘까? 어께끈은 파고들고, 발은 천근이고, 숨은 가쁘고, 저 뻥뻥 보이는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네...

드디어 당도하니, 오전에 그렇게도 생기있게 언덕을 질주하며 오르던 자전거 아니던가!

미동도 없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뻗고 있네. 표본실에 꽂혀 있는 마른 불가사리 모양이다. 자전거는 길 건너편에 누워 있고 짐 하나는 이쪽에... 부럽던 활력은 어디로 가고... 삶을 포기한 자세다. 그 뻗어 있는 사람 주변에 하나 둘 도착하는 순례객들이 힘없이 무너진다. 아무도 그 불가사리에 눈길을 안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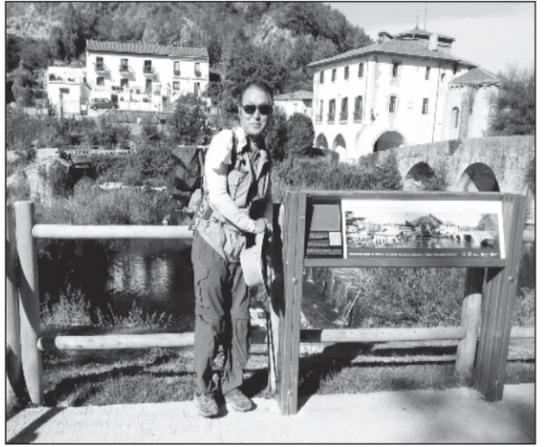
이윽고 이상하다 느낀 한 남자가 접근하여 가슴에 손을 대려는 순간 두 눈을 뜨는데 소 눈만큼 크다. 일순간 긴장했던 주위에 폭소가 터진다. 얼마나 힘들었기에! 내 짐 11kg보다 저 사람의 자전거가 오르막에선 더 괴롭구나.

“God bless you!”

나도 모르는 새 잠이 들었다 깨어 보니 주변에 있던 얼굴들이



↑왼쪽 사진은 사고로 죽은 구도자의 명복을 빌며(해발 1400m지점), 오른쪽은 아름다운 바스크 지방에서



모두 바뀌었네. 잠시가 아니었나 보다. 이럴 때 의리를 찾을 수도 없고, 좀 떨어져서 아시안 여성들이 서툰 영어로 대화하고 있네. 한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하니 한 여성이 머리를 끄덕이며 이를 드러낸다.

틀림없는 한국인이다. 짐은 놔둔 채 몸을 일으켜 접근하니 수줍게 인사를 한다. 한 여성은 말없이 웃음만 짓고.

“이 길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일세! 이 분은?” 하고 물으니, 타이완에서 온 여성이란다. 둘이 어제 숙소에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오르고 있는 길이란다. 혹시 여분의 물이 있는가 물으니 대만 여성이 조그만 오렌지 주스 캔을 뺐어온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주스가 다시 있을까? 거듭 거듭 감사해

쫄리는 대포와 짐마차를 로프에 거는 버팀대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병사들과 말들의 극심한 고생이 눈에 선하다. 바위가 저토록 잘록하게 꺾이다니!

호기심에 언제부터, 누가 이 루트를 개척했나 찾아보니 기원 전 90만년 경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헤매던 ‘Homo Antecessor’ - 지능을 가진 원시인들 - 의 고증된 흔적이 있으며, 그 후 기원 전 1만년 경부터는 사냥과 채집을 한 동굴벽화들이 여러 군데 있고, 기원 전 4천년 경부터는 고대인의 예배당 역인 고인돌 등 거석 문화가 산재돼 있고, 언제부터인지 아일랜드 민족의 주류인 ‘켈트’ 족이 여기 피레네 고원지대를 거쳐서 바다를 건넜다 하네.

어쩐지 민속그림에 아일랜드풍

경치에 취해 보폭도 작아지고 걷는 속도 또한 떨어지니 흐르는 강물의 유속이 너무 빠르다. 아하! 내가 분주히 움직일 때는 강물이 느리게 느껴지더니, 내가 더디니까 유속이 빨라지는구나. 시간의 흐름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겠구나. 많은 일을 만들고 또 기다림을 만들자, 그러면 내 인생 시계는 천천히 가겠구나.

초등학교 시절 3주 전 예고된 소풍날이 그토록 느리게 다가오던 기억과, 다음 반공일 자전거 사준다는 약속이 잠을 설치며 어찌나 더디게 닳던지...

이 길 걷는 fellow pilgrims! 모두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떠나왔을 터인데, 저토록 아름다운 풍광을 스치지 말고, 또 위치 좋은 침대 먼저 차지하려 서둘지 말고, 저 들 풀 뜯는 소처럼 여유로움을 가져 보시구려!

중세부터 순례자를 위하여 강가 숲 그늘에 만들어 준 돌을 깎아 만든 몇 개의 식탁에서는 모처럼 활기찬 점심 파티가 열렸다. 서로 배낭을 풀고 먹거리와 과일 등을 내놓고 권하며 피곤을 떨구는 모습에서 훈훈한 인간애를 물씬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에서는 탈이 난 발바닥을 살펴주고 약을 발라주는 헌신적인 모습 또한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나도 양쪽 발바닥 여러 군데에 물집이 생겨 아리고 걸기가 불편하여 난감하네. 이 고생스런 하루, 그래도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정신적 만족이 풍성하여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구만. 비익조와 연리지처럼 살아낸 하루라는 느낌이 들었지.

하도 몸이 고달프니까 오히려 잠이 쉬 오를 뻔하네. 가지고 온 시집을 펴 도중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을 읊어본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젓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젓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젓으며 꽃을 따듯하게 피었나니/ 젓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몇 번을 되읽어도 몸만 착 가라앉을 뿐 오히려 머리는 더 맑아지고 잠이 쉽게 오지 않네. 쓰러진 발바닥을 내려다보니 내일 걸어 갈 걱정이 태산같이 느껴져 이 시를 저 시를과 써름하다 잠에 깊게 빠져 들었다오.

<다음 호에 계속>

의 무너있는 스커트에 베레모와 파이프를 보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농가의 돌담 위에 날카로운 세모난 돌을 얹은 모습이 오늘날 아일랜드 농촌의 모습과 흡사하더라. ‘이베리아’ 반도 중부 아래로는 ‘사하라’ 사막의 기후대에 속하여, 뜨거운 낮에는 ‘시에스타’ 라는 풍습으로 한낮의 폭서를 피한다.

여기 고원에는 이렇게 기후가 좋아 오랜 세월이 걸쳐 지적유산이 농축되고 감성적 개발이 일찍 이루어졌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채광 및 연금기술에 이끌려 기원 전 200년 경에 로마 제국의 세력이 진출하였다.

그 후 ‘한니발’ 장군의 군대 또한 이곳을 거치면서 미술조각 건축 기술과 물산의 생산력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온 고원으로, 그 폭이 우리의 경상남북도를 합한 폭이다. 길이는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을 이루며 서쪽으로 달리다 프랑스와의 국경이 끝난 곳부터는 바다에 면한 북부지역을 형성한다.

오늘은 3일째, 해발 600m 정도 되는 경관이 아주 수려한 ‘바스크’ 지방의 목가적 풍광이 이어진다. 아니 ‘목가적’ 이란 말이 여기서 시작된 것 아닐까?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언젠가 가족들 동반하여 다시 찾겠다는 맘을 먹었지.

굽이치는 강의 모습도 너무 고와 표현할 형용사가 부족하네.

표하고 이 빛을 갚겠노라 약속했지. 이 길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 되는 것이 peregrino(순례자의 스페인어)들의 선행이다 베푸는 자가 더 위안을 받는다.

인간은 배가 충족되면 진선미를 추구하는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만의 특질을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다. 지금 이 길이 무슨 길인가. 선을 추구하는 신앙의 행적이 더덕더덕 덧칠해진, 발로 선행의 역사를 기록해 온 길이 아니던가!

▶제5신 = 피로가 덜 풀린 무거운 몸으로 아직도 어두운 내리막 길을 나선다. 머리에 두른 랜턴 불빛과 두 스틱에 의지하고 가파른 경사지를 모로 내려가는데, 아래서는 미끄러지며 나오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산행에 익숙한 내 발걸음이 여럿을 추월하다 회초리 같은 나무 가지에 의존해 벌벌 떨며 내려가는 어제의 두 여성을 만났지. 대만 여인에게는 내 스틱 한 짝을 빌려주고 보다 젊은 한국 여성에게는 튼실한 막대기를 주워 주려 길가 숲으로 들어가니 이상한 모양의 바위들이 눈에 띈다. 돌출된 바위들 중간부분이 땅콩껍질처럼 잘록하다.

세월 따라 바위 꽃들이 덮였지만 10여개가 모양새가 같다. 좀 더 내려오자 갈색 간판에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정복 때 이 고개를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2014.7.1 ~ 2015.1.27)

**동창회비**

▶Alabama  
서안희(간호 63)  
오신중(의대 54)  
유성무(상대 66)

▶Alaska  
윤재중(농대 55)  
하인환(공대 56)

▶Arizona  
김영철(공대 55)  
박양세(약대 48)  
지영환(의대 59)  
최선희(자연 93)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  
강명식(의대 61)  
강영호(의대 58)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철호(사대 58)  
강홍제(상대 53)  
계지영(문리 60)  
고영순(음대 59)  
고재천(공대 57)  
권영달(문리 50)  
권영덕(공대 54)  
권영태(의대 57)  
권오형(사대 61)  
김강수(문리 59)  
김건진(문리 62)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교복(농대 63)  
김군빈(법대 56)  
김기태(의대 54)  
김낙구(상대 67)  
김남영(공대 53)  
김동산(법대 59)  
김동호(농대 58)  
김명환(문리 67)  
김병곤(공대 58)  
김병연(공대 68)  
김병완(공대 58)  
김병호(상대 57)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수영(사대 57)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영덕(법대 58)  
김영희(사대 56)  
김옥경(음대 69)  
김완기(사대 50)  
김원경(약대 59)  
김원호(약대 63)  
김의신(의대 60)  
김익창(의대 48)  
김일영(의대 65)  
김 정(치대 59)  
김정민(상대 58)  
김정복(사대 55)  
김정애(간호 69)  
김정희(음대 56)  
김준일(공대 62)  
김진형(문리 55)  
김창무(음대 53)  
김태윤(법대 53)  
김현왕(공대 64)  
김현철(의대 57)  
김혜숙(약대 77)  
김희재(사대 66)

나두섭(의대 66)  
나승욱(문리 59)  
남승채(공대 66)  
남장우(사대 56)  
노명호(공대 61)  
류승일(의대 59)  
문병길(문리 61)  
문인일(공대 51)  
민영기(치대 61)  
박경룡(약대 63)  
박경호(사대 53)  
박병원(의대 49)  
박부강(사대 54)  
박성욱(상대 58)  
박원준(공대 53)  
박영수(농대 64)  
박임하(치대 56)  
박인창(농대 65)  
박재영(문리 48)  
박재호(치대 54)  
박정모(문리 66)  
박제인(약대 60)  
박중수(수의 58)  
박찬호(공대 58)  
박찬호(자연 81)  
박취서(약대 60)  
방명진(공대 73)  
방정자(간호 61)  
배동완(공대 65)  
배병욱(음대 58)  
백길영(의대 58)  
백승호(치대 55)  
백옥자(음대 71)  
변영근(수의 52)  
부영무(치대 72)  
서경선(음대 60)  
서동영(사대 60)  
성낙호(치대 63)  
손기용(의대 55)  
손창순(공대 69)  
손화식(공대 61)  
송정자(의대 67)  
신광재(공대 73)  
신대식(상대 60)  
신동국(수의 76)  
신우식(치대 59)  
심기린(상대 57)  
심상은(상대 54)  
심진숙(간호 68)  
안병일(의대 63)  
안병협(공대 58)  
양명교(의대 55)  
양승문(공대 65)  
양은석(음대 70)  
양은혁(상대 56)  
양창효(상대 54)  
염동해(농대 74)  
위종민(공대 64)  
유두영(공대 55)  
유석홍(상대 61)  
유재환(상대 67)  
유희자(음대 68)  
윤경민(법대 55)  
윤경자(약대 63)  
윤용길(공대 55)  
윤희성(치대 65)  
이건일(의대 62)  
이계승(공대 67)  
이근원(공대 67)  
이기에(문리 52)  
이명선(상대 58)  
이문상(공대 62)  
이미정(의대 78)  
이방기(농대 59)  
이법식(공대 61)  
이성숙(공대 56)  
이영신(간호 77)  
이영일(문리 53)

이원택(의대 65)  
이재권(법대 56)  
이재룡(공대 71)  
이정근(사대 60)  
이정옥(공대 52)  
이종묘(간호 69)  
이중희(공대 53)  
이채진(문리 55)  
이현숙(사대 62)  
이흥기(공대 62)  
이흥표(의대 58)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옥기(법대 57)  
임진성(약대 76)  
임창희(공대 73)  
임춘수(의대 57)  
임화식(치대 59)  
임희영(치대 67)  
장동석(문리 66)  
장 준(인문 85)  
장진성(약대 66)  
전명선(공대 46)  
전범수(농대 71)  
전상욱(사대 52)  
정규남(공대 52)  
정근희(의대 64)  
정동구(공대 57)  
정동주(가정 72)  
정수만(의대 66)  
정예현(상대 63)  
정재훈(공대 64)  
정정순(사대 56)  
정진수(공대 56)  
정태무(사대 44)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송진웅(농대 53)  
신석균(문리 54)  
신택수(의대 88)  
안은식(문리 55)  
오상현(의대 65)  
이덕수(문리 65)  
이상우(문리 61)  
이소희(의대 61)  
이소희(간호 68)  
이승자(사대 60)  
이승훈(공대 66)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윤도(농대 57)  
이종일(의대 71)  
임근식(문리 56)  
임현재(의대 57)  
장세곤(의대 59)  
장시경(약대 58)  
장운일(공대 60)  
장 흥(문리 61)

▶Carolina  
김진일(상대 )  
김정희(약대 56)  
신두식(의대 58)  
이달호(사대 46)  
이범세(의대 56)  
한광수(의대 59)  
홍 훈(자연 )

▶Chicago  
강수상(의대 48)  
강영국(수의 67)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경희(의대 59)  
김갑중(의대 57)  
김갑조(간호 51)  
김계균(공대 60)  
김규호(의대 58)  
김동희(공대 66)  
김병욱(문리 65)  
김사직(상대 59)  
김연화(음대 68)  
김 영(문리 52)  
김영민(의대 51)  
김재관(의대 62)  
림영신(의대 54)  
박영규(농대 57)  
박용순(의대 53)  
배영섭(의대 54)  
서상원(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송진웅(농대 53)  
신석균(문리 54)  
신택수(의대 88)  
안은식(문리 55)  
오상현(의대 65)  
이덕수(문리 65)  
이상우(문리 61)  
이소희(의대 61)  
이소희(간호 68)  
이승자(사대 60)  
이승훈(공대 66)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윤도(농대 57)  
이종일(의대 71)  
임근식(문리 56)  
임현재(의대 57)  
장세곤(의대 59)  
장시경(약대 58)  
장운일(공대 60)  
장 흥(문리 61)

▶Florida  
김재석(의대 66)  
나수섭(의대 54)  
박창익(농대 60)  
송용덕(의대 57)  
신상재(수의 59)  
안창현(의대 55)  
전영자(미대 58)  
정진목(의대 50)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4)  
황현상(의대 55)  
홍순호(수의 74)

▶Georgia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김용진(문리 48)  
방창모(문리 49)  
백낙영(상대 61)  
손중수(의대 50)  
신동현(농대 49)  
안승덕(상대 51)  
오경호(수의 60)  
이영진(공대 76)  
임수암(공대 62)  
임한웅(공대 60)  
정광호(공대 60)  
정량수(의대 60)  
정일화(상대 55)  
최재학(사대 56)  
최종진(의대 63)

▶Hawaii  
김승태(의대 57)  
김용수(농대 75)  
김홍진(공대 50)  
김창원(공대 49)  
유재호(문리 59)  
장광수(사대 50)  
최경윤(사대 51)

▶Heart land  
김경중(가정 70)  
김명자(문리 62)  
김제권(사대 68)  
도태영(사회 93)  
백산옥(문리 51)  
이상강(의대 70)  
정민재(농대 70)  
차봉희(의대 51)  
최은관(상대 64)

▶Las Vegas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관(공대 55)  
박정우(의대 54)  
최영식(법대 59)  
최창식(의대 61)  
홍수웅(의대 59)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김용호(약대 69)  
김우신(의대 60)  
김재석(의대 61)  
김정화(음대 56)  
김희주(의대 62)  
남성희(의대 58)  
박용화(의대 52)  
박준환(의대 55)  
서영일(의대 62)  
신동화(문리 55)  
유효명(의대 58)  
이상철(의대 52)  
이상일(의대 54)  
이상길(의대 65)  
임병훈(의대 54)  
조문희(공대 56)  
조병권(공대 64)  
차대양(공대 55)  
채무원(의대 59)  
최병두(의대 52)  
하계현(공대 64)

▶Minnesota  
권학주(치대 59)  
김영남(사대 53)  
남세현(공대 67)  
박정선(농대 60)  
변우진(인문 81)  
성욱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이창재(문리 56)

▶New England  
김만옥(약대 56)  
김명자(문리 62)  
김문소(수의 61)

김선혁(약대 59)  
김신형(의대 51)  
노인규(의대 52)  
윤상래(수의 62)  
윤원길(의대 59)  
이금하(문리 69)  
정정옥(의대 60)  
주창준(의대 56)

▶NY & NJ  
강충무(사대 60)  
계동휘(치대 67)  
고순정(간호 69)  
곽노섭(문리 49)  
곽상준(약대 55)  
곽선철(공대 61)  
권문웅(미대 61)  
권영국(상대 60)  
권용구(상대 61)  
금동용(문리 58)  
김경애(간호 54)  
김광현(미대 57)  
김광호(의대 66)  
김규화(상대 63)  
김기훈(상대 52)  
김동진(약대 56)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김병성(의대 53)  
김병술(약대 52)  
김봉련( 54)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김수일(약대 62)  
김순자(약대 59)  
김영봉(의대 83)  
김영애(사대 56)  
김영일(약대 58)  
김영철(의대 55)  
김원주(의대 54)  
김용술(상대 56)  
김용연(문리 63)  
김유순(간호 64)  
김자익(의대 69)

▶Texas  
김재경(농대 58)  
김정순(법대 53)  
김정환(문리 60)  
김정희(간호 69)  
김창수(약대 64)  
김태양(사대 61)  
김학자(간호 59)  
김한중(의대 56)  
김현중(공대 63)  
김현희(간호 59)  
김훈일(공대 60)  
노용면(의대 49)  
라준국(공대 47)  
라찬국(의대 57)  
민발식(의대 60)  
민준기(공대 59)  
박건이(공대 60)  
박경원(미대 66)  
박성일(상대 58)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승화(간호 69)  
박영태(상대 63)  
박은규(약대 72)  
박중섭(사대 74)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배상규(약대 61)  
백낙환(약대 56)  
변건웅(공대 65)  
변호련(간호 63)  
서병선(음대 65)  
선종철(의대 57)  
송기호(약대 59)  
유재섭(농대 65)  
손광호(의대 59)  
송병문(공대 62)  
송영순(사대 60)  
신한경( )  
심영석(공대 76)  
안태홍(상대 65)  
이강홍(상대 63)  
양순우(법대 67)

▶NY & NJ  
김정순(농대 58)  
김정순(법대 53)  
김정환(문리 60)  
김정희(간호 69)  
김창수(약대 64)  
김태양(사대 61)  
김학자(간호 59)  
김한중(의대 56)  
김현중(공대 63)  
김현희(간호 59)  
김훈일(공대 60)  
노용면(의대 49)  
라준국(공대 47)  
라찬국(의대 57)  
민발식(의대 60)  
민준기(공대 59)  
박건이(공대 60)  
박경원(미대 66)  
박성일(상대 58)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승화(간호 69)  
박영태(상대 63)  
박은규(약대 72)  
박중섭(사대 74)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배상규(약대 61)  
백낙환(약대 56)  
변건웅(공대 65)  
변호련(간호 63)  
서병선(음대 65)  
선종철(의대 57)  
송기호(약대 59)  
유재섭(농대 65)  
손광호(의대 59)  
송병문(공대 62)  
송영순(사대 60)  
신한경( )  
심영석(공대 76)  
안태홍(상대 65)  
이강홍(상대 63)  
양순우(법대 67)

▶California  
강중경(공대 48)  
고영순(음대 59)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문인일(공대 51)  
배동완(공대 65)  
정동구(공대 57)  
정예현(상대 63)

▶Florida  
정진목(의대 50)

▶Georgia  
오경호(수의 60)

▶Hawaii  
최경윤(사대 51)

▶Minnesota  
송창원(문리 53)

▶NY & NJ  
김기훈(공대 61)  
김태훈(공대 57)  
민준기(공대 59)  
양명자(사대 63)  
최종진(의대 53)

▶Texas  
김기훈(공대 61)  
김태훈(공대 57)  
민준기(공대 59)  
양명자(사대 63)  
최종진(의대 53)

▶Oregon  
한영준(사대 60)

▶Philadelphia  
윤영숙(문리 59)  
조영호(음대 56)

▶Wa.States  
이동립(의대 52)  
Total = 2,250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조형원(약대 50)	500
▶최지원(의대 55)	500
▶이희덕(농대 58)	500
▶권철수(의대 68)	500
▶문광재(의대 68)	500
▶김길평(상대 62)	501
▶이충호(의대 63)	501
▶방은호(약대 43)	600
▶신창민(법대 60)	1,000
▶곽노섭(수학 53)	1,000
▶권기현(사대 53)	1,000
▶정재훈(공대 64)	1,000
▶조순재(문리 53)	1,000
▶한재은(의대 59)	1,000
▶최 철(의대 62)	1,000
▶이명선(상대 58)	1,125
▶이준행(공대 48)	2,000
▶차재철(의대 62)	3,000
▶강신호(의대 51)	3,000
▶이상강(의대 70)	5,000
▶고광선(공대 57)	5,000
▶손재욱(가정 77)	10,000
▶이병준(상대 55)	10,000
Total \$ 50,227	

엄종열(미대 61)	이국진(사대 57)
우관혜(음대 63)	이능석(의대 57)
우상영(상대 55)	이대린(농대 67)
유재용(공대 58)	이만석(공대 58)
원인순(문리 71)	이문자(간호 66)
유재섭(공대 65)	이상복(의대 56)
유택상(문리 58)	이성수(공대 56)
유영호(의대 52)	이영숙(간호 56)
윤봉균(사대 54)	이운순(의대 52)
윤영섭(의대 57)	이유찬(의대 58)
윤인숙(간호 63)	이은미(음대 77)
윤현남(공대 64)	
이강홍(상대 60)	
이경태(공대 63)	
<29면에 계속>	

**2015~16회비 선납**

▶California 강중경(공대 48) 고영순(음대 59)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문인일(공대 51) 배동완(공대 65) 정동구(공대 57) 정예현(상대 63)	▶Florida 정진목(의대 50)	▶Georgia 오경호(수의 60)	▶Hawaii 최경윤(사대 51)	▶Minnesota 송창원(문리 53)	▶NY & NJ 김원주(의대 64) 민준기(공대 59) 양명자(사대 63) 최종진(의대 53)	▶Oregon 한영준(사대 60)	▶Philadelphia 윤영숙(문리 59) 조영호(음대 56)	▶Texas 김기훈(공대 61) 김태훈(공대 57) 민준기(공대 59) 신철영(문리 64)	▶DC 권오근(상대 58) 김영기(공대 73) 김창호(법대 56) 서희열(의대 55)	▶Wa.States 이동립(의대 52) Total = 2,250
---	------------------------	------------------------	-----------------------	--------------------------	--	-----------------------	---	--	---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비 및 후원금 (회계연도 2014년 7월 ~ 2015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주소:		전 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포함)	업소록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연 \$200 <input type="checkbox"/>	2014.7~2015.6 \$75 <input type="checkbox"/>	2015.1~2015.6 \$120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3.5" x 2") \$120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1/6면 (5" x 4.5") \$200 <input type="checkbox"/>
연 \$1,0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 x 4.5") \$400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1/2면 (10" x 6.7") \$6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 x 13.5") \$1000 <input type="checkbox"/>
			전면(Back 10" x 13.5") \$1500 <input type="checkbox"/>
보낼 곳: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Card No.:		Security Cod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여러 가지 후원금은 모두 다음의 Tax 번호로 감면되고 있습니다.  
Federal TIN : 13-3859506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 CA 남가주

###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 의료/ 약국/ 치과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213-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의대 65)  
Diana Kim MD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 치과병원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a@yahoo.com

##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CA 90010  
213-505-8102(0)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O Box6034 Cy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HAAN Kenneth T.HAAN & Associates  
한태호 변호사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 부동산/ 클리닉/ 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Jennie Lee(간호대 69)Realtor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gmail.com jennielee.mytsr.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 재정/ 보험/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 OR 오레곤

**Flon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 ton OR.97007

## TX 텍사스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NY-NJ 뉴욕/뉴저지

공인외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건축/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 SietJ-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0) 703-785-8467(C)
1952 Gallows rd. Ste 214 Vienna, VA 22182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6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27면서 계속>
이재진(의대 59)
이재원(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중환(법대 51)
이준행(공대 48)
이중춘(공대 56)
이중호(의대 63)
이태성(음대 65)
임공세(의대 63)
장태욱(음대 57)
정계봉(의대 60)
정순기(문리 69)
정창동(간호 45)
조규웅(의대 59)
조대영(공대 61)
조숙자(간호 59)
조아미(음대 61)
조중수(공대 64)
조황환(치대 65)
조희재(음대 58)
차국만(상대 56)
최수강(의대 65)
최영태(문리 67)
최영혜(간호 64)
최일단(미대 55)
최종진(의대 55)
최준희(의대 58)
최한용(농대 58)
최 호(문리 61)
한기현(의대 57)
한성호(약대 60)
한영수(의대 61)
한인수(사대 73)
한태진(의대 58)
함중급(간호 66)
허경열(의대 73)
허병열(사대 42)
허선행(의대 58)
현영수(음대 61)
홍선경(의대 58)
이은설(문리 53)
정태훈(공대 68)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Philadelphia
강영배(수의 59)
강준철(사대 59)
권기상(경영 72)
고영자(치대 63)
한국간(치대 64)
김무형(약대 63)
김순주(치대 95)
김영남(의대 61)
김영우(공대 55)
김제술(약대 58)
김정현(공대 68)
문대욱(의대 67)
민홍식(수의 60)
박호현(의대 52)
손재욱(가정 77)
송성균(공대 50)
송영두(의대 56)
신성식(공대 56)
안세현(의대 62)
양운택(의대 58)
염극용(의대 54)
원종민(약대 57)
윤경숙(문리 59)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이병인(수의 69)
전방남(상대 73)
전희근(의대 54)
정덕준(상대 63)
정용남(문리 60)
정정수(의대 56)
정태광(상대 74)
정홍택(상대 61)
조영호(음대 56)
조화연(음대 64)
주기목(수의 68)
지홍민(수의 61)
차호순(문리 60)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남춘일(사대 69)
문성길(의대 63)
박경훈(상대 50)
박용걸(약대 65)
박용걸(약대 56)
박인영(의대 69)
박일영(문리 59)
방정화(의대 61)
백 순(법대 58)
변만식(사대 49)
서운석(의대 62)
서진석(약대 62)
서희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구용(공대 59)
신용계(의대 62)
안승진(문리 55)
안인욱(간호 71)
양광수(공대 73)
오광동(공대 52)
유덕영(공대 57)
유재봉(법대 60)
윤경의(공대 57)
이경상(농대 80)
이규양(문리 62)
이내원(사대 58)
이문향(공대 46)
이연주(치대 88)
이영덕(사대 61)
이영수(공대 59)
이수안(공대 54)
이유세(사대 72)
이윤주(상대 63)
이재승(의대 55)
이중두(의대 57)
이준영(치대 74)
임창주(공대 55)
임청규(공대 62)
임필순(의대 54)
장수영(공대 57)
장윤희(사대 54)
정기순(간호 67)
정세근(자연 82)
정원자(농대 62)
정평희(공대 71)
조경윤(공대 57)
조화유(문리 61)
최경수(문리 54)
최규식(상대 64)
최완열(상대 56)
최정미(사대 45)
최준호(공대 60)
한성업(의대 55)
한의생(수의 60)
한정민(농대 87)
홍영석(공대 58)
홍용식(공대 51)
홍윤기(공대 61)
황보한(공대 56)
Wa. States
고광선(공대 57)
김무웅(음대 64)
김석민(사대 55)
김선호(사대 59)
김영창(공대 64)
김재훈(공대 72)
박진수(의대 56)
박찬형(의대 66)
박희주(약대 83)
변종혜(법대 58)
윤재명(문리 65)
윤태근(상대 59)
이길송(상대 57)
이동립(의대 52)
이희백(의대 55)
홍계인(음대 60)
Hawaii
김승태(의대 57)200
김창원(공대 49)200
New England
윤상래(수의 62)200
윤원길(의대 59)200
정정욱(의대 60)100
N. Carolina
이달호(사대 46) 25
한광수(의대 59)200
NY & NJ
곽선섭(공대 61)225
권영국(상대 60)200
김기훈(상대 52)200
김정순(법대 57)200
김정환(문리 60)200
노용민(의대 49)200
윤현남(공대 64)200
이강홍(상대 60)300
이운순(의대 52)125
이은미(음대 77)200
이준행(공대)48)1000
정길현(문리 60)200
정창동(간호 45) 50
조아미(음대 61)200
최한용(농대 58)200
허선행(의대 58)200
Ohio
송용재(의대 63)200
Oregon
한영준(사대 60) 25
Philadelphia
김국간(치대 64)200
손재욱(가정 77)500
송성균(공대 50)200
송영두(의대 56)200
윤경숙(문리 59)200
정정수(의대 56)200
정태광(공대 74)100
지홍민(수의 61)200
Texas
김동수(의대 60)125
김환영(공대 61)225
이희덕(농대 68)200
진기주(상대 60)200
Chicago
강수상(의대 48)200
서상현(의대 65)250
오상현(의대 65)200
이용락(공대 48)500
DC.
강길중(약대 69)200
강연식(사대 57)125
공순옥(간호 66)100
김동훈(법대 56)200
김부근(의대 54)300
김진수(의대 60) 50
박용걸(약대 56)425
백 순(법대 58)200
서운석(의대 62)200
석균범(문리 61)200
유재봉(법대 60)200
윤경의(공대 57)200
이영수(공대 59)200
이윤주(상대 63) 25
임필순(의대 54)100
장수영(공대 57)200
정평희(공대 71)200
한성업(의대 55)200
홍윤기(공대 61)124
Oregon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정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영식(상대 62)200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중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혜(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근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00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용조(문리 5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웅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Rocky Mt.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 “서울대학교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1. 수집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2) 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4) 박물관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마감기일 연기)  
 3. 수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담당자 : 김진현 대리  
 핸드폰 : 010-7224-075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 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중(상)

#####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욱(가정)

##### 회보 임원

발행인 : 오인환(문)  
 주필 : 백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송(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Homepage Webmaster : 김원영(미대 82)

#####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채진(문)  
 최용원(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평(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 원 = 서중민(공) · 이민연(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 감 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편집·레이아웃 디자인 =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jennypaek2@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북가주	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부회장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Jan-Dec
	부회장		
시카고	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msn.com	Jan-Dec
	부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시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5@gmail.com	
	부회장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길(해양 77)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7)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USDA ORGANIC

**Seas Gift**  
Nori Seaweed Snacks

**SUSHI NORI**  
가비깅 / ずしのり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562-633-7400  
www.jayone.com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ISRAEL  
A GUIDE FOR YOU TO THE HOLY SITES

김연순(82) 대표이사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애독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탁은숙(문리대 54)  
Tel. 650-968-4078  
408-805-0294  
590 Sullivan Dr.  
Mountain View CA 94041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82인, 문리대) www.duo.co.kr

# 좋은 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배려형 커뮤네이지: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뮤네이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 SNU GROUP TOUR - Journey Along the Silk Road Uzbekistan

2014년 베네룩스 3국과 노르망디 여행에 이어 2015년 4월 28일부터 8박9일 동안 서울대 여행 동아리와 함께 하는 우즈베키스탄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0년 전 카라반들이 동서양을 왕래하면서 걸었던 Silk Road를 직접 밟아보는 감동의 여정을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문화와 역사의 요람으로, 또한 알렉산더 대왕과 티무르 왕국, 정기스칸과 터키에 이르기까지 고대왕국들의 패권 다툼의 무대가 되었던 사마리칸트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인 타쉬켄트, 아름다운 성으로 싸인 도시 히바, 고대 이슬람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과거의 도시 부하라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HANS TRAVEL 2015 TOUR SCHEDULE**

- 4월 17일-4월 26일: 봄의 활초가 들러오는 아대데우스 동유럽투어 9박10일
- 4월 26일-5월 8일: PORTUGAL&SPAIN 12박13일 초고속 열차, 럭셔리 일정
- 4월 26일-5월 9일: GREECE&TURKEY 13박14일 도시항공이동으로 편안하게
- 4월 27일-5월 6일: JOURNEY ALONG THE SILK ROAD 우즈베키스탄
- 5월 15일-5월 20일: 정통발칸 7개국(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 5월 19일-5월 30일: 스페인 북부여행+아름다운 명상의 길, 산티아고 순례길
- 5월 25일-6월 11일: PORTUGAL&THE BEST OF SPAIN 17박18일
- 6월 8일-6월 15일: LAST FRONTIER 알래스카 알래스카 인랜드 투어 7박8일
- 7월 27일-8월 9일(1차), 8월 10일-8월 23일(2차): 러시아/북유럽 13박14일
- 9월 10일-9월 21일: TASTE OF SPAIN+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은 맛있다!
- 9월 13일-9월 22일: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 9월 21일-10월 4일: SPAIN, PORTUGAL, MOROCCO 13박14일
- 9월 23일-9월 30일: HOLIDAY IN CROATIA+ALPS TOWN, SLOVENIA
- 9월 29일-10월 7일: 맛따라 맛따라 2차 고국일주 울릉도, 독도, 바다기차

• 원하시는 날짜와 일정에 맞춰 맞춤 패키지 만들어 드립니다(10분 이상)

**한스관광 HANS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 11월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내방,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필리핀도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8차 2014년 베네룩스 3국 투어



# SEOUL MEDICAL GROUP 서울 메디칼 그룹

어르신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남가주 최고 최대의 한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HMO**는 전문의 허가(Refer)가  
 가장 손쉬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 Central Health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HMO 보험

Health Net 헬스 넷 United 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Humana 휴마나 Care 1st 케어 퍼스트  
 LA Care 엘에이케어 Blue Shield 블루 실드 Easy Choice 이지 초이스 Brand NewDay 브랜드 뉴데이

### “서울 메디칼 그룹이 가진 메디케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꼭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그 밖에 250여명의 전문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 내과: 강신욱, 김승현, 김용호, 오화용, 유경수, 정만길, 정희상, 풀오 박사님들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현재 남가주 최고, 최대의 한인 메디칼 그룹입니다. 메디칼 그룹(IPA)는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 ✓ Seoul Medical Group은 현재 14,000명의 환자분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현재 남가주에서 가장 전문의 허가(Refer)를 잘해 주는 메디칼 그룹의 하나입니다.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 많은 의사들이 참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명단참조)
- ✓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대환영**입니다.

HMO 보험은 전문의 추천(리퍼)를 최고로 잘 해주는 메디칼그룹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메디칼 그룹은 95% 가까이 리퍼를 승인해주는 남가주 최고의 메디칼 그룹 중 하나입니다.

 **SEOUL MEDICAL GROUP**  
서울 메디칼 그룹

Tel. 213.480.7770 | Tel. 562.766.2009  
 520 S. Virgil Ave. #507, Los Angeles, CA 90020